

Midas

마 이 더 스



The monthly economic magazine

2012. 04 Vol. 98

Cover Story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특집

선거와 경제

삼성그룹이 변하고 있다

마침내 외환은행 품은 하나금융號

‘안정과 성장’ 켓바퀴서 번민하는 EU
부자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신다

주5일 넘어 하루 6시간 근무제로

애완동물 인구 1천만 명 시대

대한민국 보일러의 기준을 바꾼다

귀뚜라미보일러

착한 기술, 착한 디자인, 착한 소비

모바일메신저시장의 대혈투

下心으로 마음에 짓는 한옥 세 채

김승직 하심한옥 대표



9 771739 165001
ISSN 1739-1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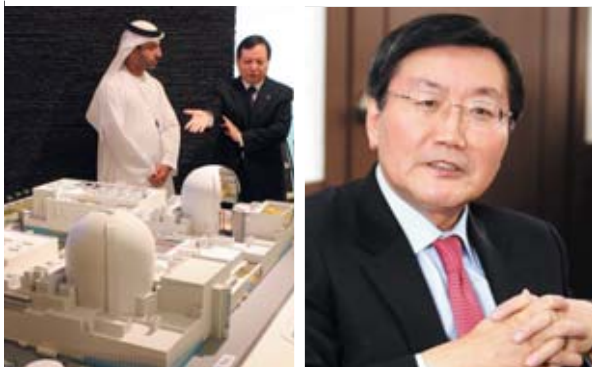


연합뉴스
등록아센터

The monthly economic magazine

www.yonhapmidas.co.kr

Contents . . .



광화문광장

- 14 그들만의 리그 '공천 올림픽'

명사칼럼

- 16 체코 벨벳혁명의 중심자, 하벨 대통령

Hot News

- 20 마침내 외환은행 품은 하나금융
24 삼성그룹이 변하고 있다
28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쟁... 수혜자는?
32 대형 마트들 때어진 가격 인하 바람

Cover Story

- 36 국민연금, 100세 시대 평생 월급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슈

- 46 '안정과 성장' 헛바퀴서 번민하는 EU
50 한국, UAE 유전 빗장 39년 만에 풀다
54 사내하청 문제 마침내 해결 수순 밟나
56 부자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신다

특집

- 60 선거와 경제

20년 만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은 우리 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경쟁적 선심 공약에 당국은 재정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후보들의 개발 공약이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가계부채와 세계 금융시장 불안 탓에 '선거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론이 우세하다.

The monthly economic magazine

www.yonhapmidas.co.kr

Contents . . .



인터뷰

- 72 “경인이 만들면 한국의 냉각탑 역사가 바뀐다”
구제병 경인기계 대표
- 76 10만 배달 업소가 앱 하나에 쏙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특별기획

- 80 한미 FTA 발효, 무역강국 도전 호기

기획

- 88 애완동물 인구 1천만 명 시대
- 92 착한 기술, 착한 디자인, 착한 소비
- 98 中, ‘빠른’ 성장 접고 목표 7.5%로 낮춰

사람들

- 102 下心으로 마음에 짓는 한옥 세 채
김승직 하심한옥 대표

화제

- 106 주5일 넘어 하루 6시간 근무제로

탐방

- 110 대한민국 보일러의 기준을 바꾼다
귀뚜라미보일러

확대경

- 114 바르지 않고 먹기만 해도 예뻐진다!

The monthly economic magazine

www.yonhapmidas.co.kr

Contents . . .



Click

- 118 소자본 · 소점포 창업이 뜬다

IT

- 122 모바일메신저시장의 대혈투

Special Report

- 128 일자리, 이제 동네에서 찾는다

화보

- 132 위웅 드러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외

지구촌

- 136 대지진 1년 후에도 공포에 떠는 일본
140 시리아 사태 1년

증시전망대

- 144 한국 증시의 새로운 위험, 엔화 약세

재테크

- 148 정철진의 도전! 재테크
고유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150 김서은의 부동산 이야기
단독주택
152 김태형의 보험 이야기
보험과 세금의 묘한 관계

리더십

- 154 역량을 갖춘 인재, 경쟁력 있는 인재

The monthly economic magazine

www.yonhapmidas.co.kr

Contents . . .



생활

- 156 이달의 추천 앱
스마트폰으로 좁은 취업문 뚫어 보자
- 158 자동차 미국 차의 공습 시작됐다
- 160 신제품 노트북의 새로운 대세 울트라북

레저

- 162 말레이시아 천국 같은 해변, 낭만적인 휴식
- 168 컨디션 나쁠 땐 피해 최소화하는 플레이해야

연예가산책

- 170 연상녀-연하남 커플, 드라마 점령

Food & Culture

- 172 로맨스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이집트는 로마의 밀밭이었다"
- 176 건강 휴일 뒤에 더 피곤하다?
- 178 영화 퍼스트 그레이더 외
- 180 책 세상 모든 CEO가 묻고 싶은 질문들 외
- 182 갤러리 최미애 자연, 그리고 숨결
- 184 시론 잇단 발전소 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The monthly economic magazine

www.yonhapmidas.co.kr



국민연금기금이 360조 원을 돌파했다. 세계 연기금 4위의 대단한 규모다. 국민의 신뢰 회복에 힘입어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성장여력도 뛰어나다. 국제무대에서 내로라하는 금융전문가답게 전광우 이사장이 취임 후 2년여 만에 일궈낸 성과다. 사진_김영대 기자

발행인 박정찬
편집인 이도선
편집장 강윤경
취재기자 김영대 · 서지훈 · 정승희
사진기자 안성미 · 서민영 · 김서현

연합뉴스 해외 특파원

도쿄 김중현 · 이충원 · 이태문 / 베이징 산삼호 · 인교준 · 차대운 / 선양 박종국 / 홍콩 황희경 / 상하이 김대호 · 한승호 / 방콕 현영복 / 하노이 김권용 / 타이베이 류성무 / 자카르타 이주영 / 뉴델리 유창엽 / 알마티 이희열 / 두바이 유현민 / 카이로 한상용 / 예루살렘 성일광 / 나이로비 우만권 / 뉴욕 주종국 · 이상원 · 정규덕 / 워싱턴 이해영 · 이우탁 · 성기홍 · 황재훈 · 강익영 · 이승관 · 이치동 / LA 권훈 / 시카고 김현 / 애크랜드 김재현 / 샌프란시스코 임상수 / 밴쿠버 조재용 / 시드니 정열 / 멕시코시티 양정우 / 상파울루 김재순 / 산티아고 김태균 / 런던 김태한 / 베를린 박창욱 / 파리 김홍태 / 모스크바 유철중 · 브뤼셀 문정식 · 최병국 / 제네바 맹찬형 / 부다페스트 양태삼 · 황정우 / 요하네스버그 김민철 / 오슬랜드 고한성

사진 연합뉴스 DB센터

디자인 한웅애드

아트디렉터 최남식

디자이너 배영화

교열 · 교정 이민호

광고 진한보미 (02)398-3762~8

인쇄인 김정선

등록번호 서울중,라00407

제호 월간 마이다스

발행일 2012. 3. 20

발행호수 통권 98호

발행처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홈페이지 www.yonhapmidas.co.kr

주소 100-210 서울시 중구 수하동 67 센터원빌딩 연합뉴스 6층 동관

전화 (02)398-3762~3768 FAX : (02)398-3769

정가 10,000원

마이다스는 잡지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협의 없이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부원고의 경우는 필자의 입장과 본지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문의·독자관리 TEL : (02)398-3762~8 FAX : (02)398-3769 e-mail : midas@yna.co.kr

정기구독안내 _ 연간 구독료 120,000원 (우송료 본사 부담)

1.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2. 정기 구독자에게는 본사 발행도서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3. 온라인을 이용하실 분은 무통장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입금 후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전화나 팩스로도 구독 접수합니다(주소변경 포함).

예금주 : (재)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국민은행 023-01-0476-117

농협 053-01-20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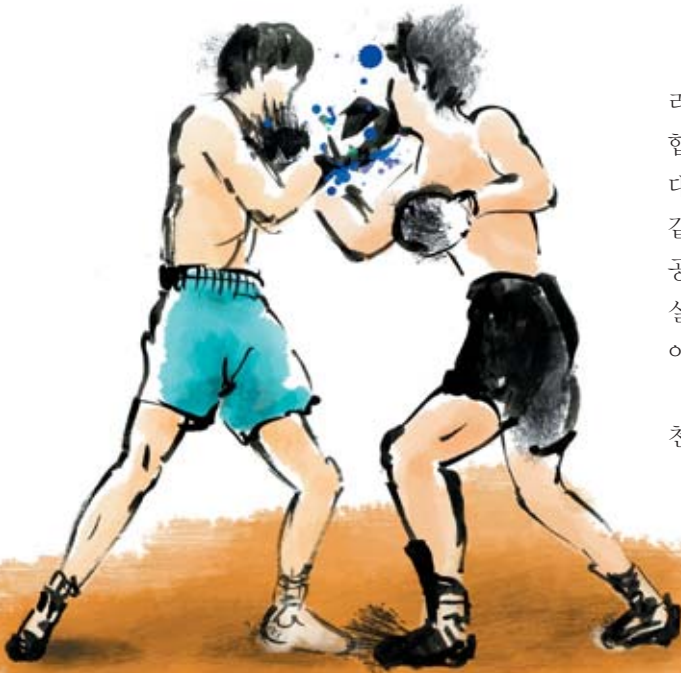
그들만의 리그 ‘공천 올림픽’

4년 만에 한 번씩 치르니 올림픽이라고 할 만도 하다. 그러나 온 국민이 밤잠까지 설치 가며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하계 올림픽이나 동계 올림픽과 달리 우리 정치권의 ‘공천 올림픽’은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다. 거기서 어떤 경기가 벌어지는지, 선수는 누구이고 심판은 누구인지, 규칙들은 제대로 지키는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에 대해 국민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4년 만에 한 번씩 치르는 것만 올림픽과 똑같지 실상은 영 판판이다.

참담하다!

여야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결과를 보면서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른 단어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킷오프니 모바일 국민 경선이니 하며 수선을 있는 대로 피웠지만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 언론의 평가도 하나 같이 감동이나 신선함과는 거리가 멀다. 구태 공천, 회전문 공천, 돌려막기 공천, 낙하산 공천, 땀질 공천, 계파 공천, 밀실 공천에서 사천(私薦)에 이르기까지 가히 ‘비아냥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새누리당은 ‘돌아온 장고’라는 말까지 나온다. 4년 전 ‘공천 학살’을 당했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 친이계에 제대로 양갈음했음을 빚댄 얘기다. 공천 결과는 그러나 당명까지 바꿔 가며 내세운 도덕적, 과학적 공천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민주당 역시 실패한 공천이기는 매한가지다. ‘친노계 쏠림’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모바일 경선 부정 시비 끝에 투신자살 소동까지 빚는 바람에 치솟던 당 지지도가 한풀 꺾인 만큼 후





이도선 편집인
yds@yna.co.kr

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사당(私黨)이니, 공천 불복이니, 탈당이니, 무소속 출마니 하는 뒷말이 무성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게다가 기껏 따낸 공천을 취소당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되레 반납하는 이도 나오는 등 한 마디로 혼돈의 극치다.

이래서 공천 무용론이 나오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이다. 어따 대고 공천 개혁이고 인적 쇄신이란 ‘거룩한’ 표현을 들먹거린단 말인가? 말만 공천이지 실제로는 만천하에 드러내 놓고 벌이는 ‘추악한 패거리 정치’의 또 다른 단면일 뿐이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엉터리 후보들을 놓고 ‘누구를 찍을까?’ 하고 고민해야 하는 유권자들만 볼쌍할 따름이다. 많은 국민이 TV에서 공천 얘기만 나오면 채널을 돌려 버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물같이만 해도 그렇다. 누가 그들에게 물같이 권한을 부여했나? 그리고 누가 누구를 물같이한다는 말인가? 현역 의원 교체율이 40%를 넘느냐, 안 넘느냐는 사안의 본질과 전혀 무관하다. 10선, 20선이 수두룩한 미국이나 일본도 항상 ‘젊은 피’를 강조하나 우리 같은 인위적 물갈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도대체 기준이 없다. 있다면 지금까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일 뿐이다. 잘하면 얼마든지 다시 뽑지만 못하면 가차 없이 내쳐야 한다.

그리고 물갈이를 해도 유권자가 하는 것이다. 우리 유권자는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 조직 동원과 실어나르기가 판치는 무늬만의 경선으로 유권자를 우롱해서는 곤란하다. 누구 마음에 들면 공천받고, 그렇지 않으면 물갈

이되는 식이어서도 안 된다. 심지어 초·재선 소장 정치인이 합당한 근거도 없이 같은 당 중진 보고 ‘나가라’며 대놓고 으박지르는 식의 패륜 정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자칫 우리 정치의 소중한 자산을 우리 스스로 내쫓는 우를 범할 뿐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나라다. 이제 남은 것은 선진화다. 그러자면 정치권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보잘 것 없는 세계의 변방에서 이제는 자동차, 휴대전화, 조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고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의료,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넘보고 있다. 정치라고 안 될 것 없다. 그러나 여야의 이번 공천 결과를 보고 여기저기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거나 “이 놈도 저 놈도 모두 도둑놈”이라는 탄식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정치의 선진화는 요원해 보이기도 한다. 앞으로 4년 후에 이 짓거리를 또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 대목에서 워싱턴 특파원 시절 얼핏 엿본 미국 정치가 생각난다. 마을회관에 모여 “△를 우리 당의 주지사 후보로 추대하자”며 파이팅을 외치던 주민들이 새삼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풍경은 대통령이나 상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도 이제는 유권자들이 공천권을 행사할 때가 됐다. 말 그대로 상향식 공천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공천제도를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 제발 4년 후에는 모든 국민이 손꼽아 기다리는 ‘공천 올림픽’ ‘정치 올림픽’을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체코 벨벳혁명의 중심자 하벨 대통령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SGI 회장

1928년 1월2일 도쿄 출생.

창가학회인터내셔널(SGI) 회장.

창가대학(創價大學), 창가학원, 민주음악협회, 도쿄후지미술관, 동양철학연구소 등 설립.

유엔평화상, 한국화관문화훈장 외 24개국 31개 훈장, 세계계관사인 등 수상 다수.

전 세계 대학으로부터 322개의 명예박사, 명예교수 칭호 수여.

토인비 박사와의 대담집 <21세기를 여는 대화>를 비롯한 저서 다수.



1989년 가을, 체코 프라하. 여기저기서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 21년 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추구한 ‘프라하의 봄’은 소련군의 무력에 진압됐다. 이후 활동이 금지된 어려운 상황에서 육체노동을 해온 예술가들이 이제 다시 일어선 것이다.

‘노래하는 혁명’이 시작됐다. 한 여가수가 무대에 올랐다. 1968년 그때 가장 인기 높던 가수다. 군중은 열광했다. 하지만 그는 가슴이 벅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느 소녀가 다가갔다. 꽃다발을 건넸다. ‘잃어버린 햇수만큼’의 꽃이었다. “고마워요.” 그는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말하고는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자유롭게 노래하자. 두 번 다시 침묵은 없다.

그보다 10년 전인 1979년 여름, 마흔두 살의 한 극작가가 체코의 교도소 문을 나왔다. 훗날의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이다. 그는 세 차례 체포됐다. 늘 당국의 감시를 받고, 가택수색을 당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공장에서 강제노동도 했다. 어떤 작품도 발표할 수 없었다. 그는 늘 면도기와 칫솔과 치약을 지니고 다녔다. 언제 붙잡혀 가더라도 쓸 수 있기 위해서다.

권력이 그를 노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 진실을 ‘지나치게’ 말하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뚝뚝 뭉친 체제에 누구나 다 공포를 느끼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는 말로, 펜으로 ‘왕은 벌거숭이다’라고 계속 진실을 말했다.

1992년 4월 일본을 방문한 하벨 대통령이 연설했다. 그의

주장은 억압을 받을 때 외치던 말과 똑같았다. “정치 세계를 인간적인 것으로, 또 정신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가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보다도 세계의 운명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여러 파벌과 이익을 도모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인들처럼 유일한, 게다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양심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주장 때문에 그는 투옥됐고, 이러한 주장 때문에 그는 역사를 움직여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끝에 ‘비(非)전문가 대통령’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강연 다음 날, 나는 영빈관에서 그를 만나 뵙고 말했다. “연설 내용에 전면적으로 찬동합니다. 민중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보신이나 금전에 얽매이는 ‘프로 정치가’보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아마추어 정치가’인 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청신합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은 미국 경제학자 겔브레이스 박사의 권유 때문이었다. 대통령은 수줍어하는 듯한 소박한 웃음을 띠었다. 그리고 시종일관 말을 고르듯 정중히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연설은 인간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그런 나의 사상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지식인이 지구와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무시하고 있다. 특히 자신을 ‘현인’이라고 자부하는 정치가들은 그런 말을 업신여기며 마음속으로 비웃는다. 정신의 수호자인 지식인이 바로 그러한 권력과 싸워야 한다. 거짓 언론, 거짓 정치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그는 ‘반정치적인 정치’를 말한다. “그것은 ‘아래서부터’ 실천하는 정치다. 기계적인 정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정치, 강령에 따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발전하는 정치다.”

‘사람의 얼굴’을 한 혁명

옥중생활은 4년에 이르렀다. 자유롭게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다. 함석의 녹을 벗기고 용접하는 일, 두꺼운 금속판을 달궈 자르는 일, 빨래터에서 시트를 빼는 일, 강추위 속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일 등의 강제노역이 할당됐다.

자기 나라에서는 박해와 중상을 받았지만 외국에서는 문학

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 이 ‘수감자’에게 캐나다와 프랑스의 대학들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당국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외국의 비관이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석방하고 싶지도 않았다. ‘특별사면을 청원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회유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스스로 머리를 숙이게 하고 싶었다.

그는 거부했다. “궁지를 버리느니 살지 않는 게 낫다.” 그는 ‘희망의 힘’을 믿었다. “희망은 틀림없이 모든 게 잘될 것이라는 낙관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정당한 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하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곧 희망입니다.” 언뜻 보기에 아무리 무력하게 보일지라도 한 인간이 전인격(全人格)을 걸고 진실을 계속 주장하면, 이는 거짓말을 끊임 없이 하는 몇천 명의 말보다도 강하다.

이 진실을 믿는 것이 그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도 피를 흘리지 않은 ‘조용한 혁명’인 1989년의 ‘벨벳혁명’이 그의 정당함을 증명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일파에서 만파로,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위력이었다.

나는 ‘프라하의 봄’이 일어나기 4년 전(1964년), 이 아름다운 ‘백탑(百塔)의 도시’에서 만난 한 청년을 떠올려 본다. 마침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때였다. 쌀쌀한 아침, 프라하 거리를 걸었다. 길 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표정이 거의 없고 무언지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다. 길모퉁이에 올림픽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키가 큰 한 청년이 왔다. 흰 얼굴에 눈동자가 쓸쓸해 보였다. 나는 호주머니에 있는 올림픽 기념주화를 선사했다. “얼마죠?” “아니, 선물이니 받아 두세요.”

청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윽고 나의 작은 우정이 통했는지 청년의 얼굴이 금세 바뀌었다. 가면 아래에서 소년처럼 천진무구하게 웃는 얼굴이 빛났다. 나는 놀랐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랑에 이토록 굶주렸던가.

‘프라하의 봄’이 ‘인간의 얼굴’을 요구한 것은 당연했다. 밀어붙이는 소련군에게 사람들이 말했다. “그대의 어머니는 아들인 그대가 무기가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때 ‘인간의 얼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희망에만 ‘인간의 얼굴’이 있었다. 그 상징으로서 하벨 대통령이 있었다.

‘우익이나 좌익이냐가 아니라 거짓이나 진실이냐’다

내가 청년을 위해 조언해 달라고 하자 대통령은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일파에서 만파로, 소프트 파워의 위력을 보여 준 하벨 대통령(좌)과 이케다 다이사쿠 SGI 회장.

말했다. “먼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이라면 함께 이 공통의 세계에서 ‘평화와 조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되새기는 듯한 어조였다. 일본의 정치가에게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인간주의를 우직하게, 성실하게 실천하려다 투옥됐다. 1989년 동유럽혁명을 가리켜 사람들은 대부분 서유럽 자본주의가 동유럽 사회주의를 이긴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람들의 삶의 혁명이었다. 인권이 억압받는 사회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일어난, 사람들의 정신에서 ‘두려움을 몰아낸’ 혁명이었다.

그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고 논하는 것 자체가 이전 세기의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문제는 ‘정당하냐 부당하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인간이냐 비인간이냐?’ 라고 말한다. 전 지구적으로 ‘의식혁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변명하는 일본 등의 자본주의가 과연 배려심이 있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체코 사람들에 비해 지금 어떠한 숭고한 ‘희망’을 가슴에 안고 있는지 말이다. 

※ 용서와 화해의 철인 지도자 하벨 대통령은 인간다운 사회 건설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해 오다 2011년 12월18일 향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마침내 외환은행 품은 하나금융號

김정태 회장 체제 출범... 5년간 한 지붕 두 가족
하나금융 새 지도부 '젊음' 대신 '연륜'
시민단체 · 소액주주 줄소송은 남은 '불씨'



외환은행을 인수함으로써 하나금융은 순식간에 총 자산 기준 2위로 올라섰다. 자산규모가 224조 원에서 331조 원으로 불어났고 자회사는 8개에서 9개로, 손자회사는 9개에서 22개로 각각 증가했다. EPA_ 연합뉴스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최종 마무리했다. 2010년 11월 계약 체결 이후 14개월 만이다. 하나금융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27일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2월9일 론스타 측에 인수대금의 마지막 잔금을 지급했다. 애초 계약 당시에 합의한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지분 51.02%(약 3억2천904만 주)의 매매가격은 4조6천888억 원. 하지만 추가 협상 끝에 7천700여억 원이 줄어든 주당 1만1천900원, 총 3조9천157억 원으로 최종 낙착됐다.

이 가운데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국세청에 의해 원천징수되는 세금 3천916억 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 1조5천억 원을 제외한 2조240여억 원이다. 하나금융은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약 4천31만4천 주(6.25%)도 4천797억 원에 인수했다.

‘몸집’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 잡기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총자산(2011년 9월 말 기준)은 224조 원에서 331조 원으로 불어났다. 하나금융의 자회사는 8개에서 9개로, 손자회사는 9개에서 22개로 각각 증가했다. 우리, KB, 신한 등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덩치가 작았던 하나금융이 순식간에 2위(총 자산 기준)로 올라서며 명실상부한 4강 경쟁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덩치가 커진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아졌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규모와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지난해 9월 현재 직원 수는 하나은행 9천335명, 외환은행 7천627명으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한 하나금융이 순식간에 총 자산 기준 2위로 올라서며 우리, KB, 신한 등과 본격적인 4강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커진 덩치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아졌다. 특히 5년간의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는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저해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하나금융은 연료 있는 내부 인사들로 새 지도부를 꾸렸다. 하나금융 차기 회장직은 김정태 전 하나은행장이 맡게 됐다. 사진_진성철 기자

로 합치면 우리은행(1만4천999명)이나 신한은행(1만4천329명)보다 훨씬 많은 1만6천962명이나 된다. 그만큼 인력 운용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은 커졌다는 얘기다. 외환은행 직원의 연봉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골칫거리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은행 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불거져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더구나 하나금융은 당분간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외환은행 인수를 주도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금융위의 승인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하나는 행과 외환은행 직원들 간의 급여 차이는 성과급 체계 개편

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최소화는 노조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영 효율화라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중복되는 지점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당장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년간 ‘한 지붕 두 가족’… 시너지 창출 과제

하나금융으로의 피인수 반대 투쟁을 벌이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던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의 인



외환은행은 외환과 무역금융, 국외영업 부문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매금융과 프라이빗 बैं킹에 강한 하나금융이 현명한 전략을 취한다면 기업금융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김현태 기자

수 승인이 떨어진 지 약 3주 만인 2월17일 새벽 하나금융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양측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후 외환은행 독립 법인 존속 ▲편입 5년 경과 후 하나은행과의 합병 협의 ▲합병 시 대등 합병 원칙 적용 등에 합의했다.

외환은행이 독립 법인으로 남는 동안 노사관계 · 인사 · 재무 · 조직 등에서 독립 경영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외환은행 집행임원은 외환은행 출신을 절반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외환은행 임금체계 유지 ▲현재 수준 이상의 영업점포 운영 ▲자회사 편입과 관련된 외환은행 직원의 형사 고발 취하 등에도 합의했다.

쟁점 사항의 하나였던 은행 이름의 유지와 관련해 노조측은 외환은행 브랜드의 '영구적' 유지를, 하나금융은 1~2년 유지를 각각 주장했으나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서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러나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5년간의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는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저해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차피 한 가족으로 합칠 것이라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신한-조흥은행의 합병 사례를 보면 신한금융은 조흥은행을 인수해 2003년 9월부터 2년6개월간 ‘더블 뱅크’ 체제를 유지하다 2006년 4월 완전히 통합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두 뱅크 체제는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한과 조흥도 완벽한 통합이 이뤄진 뒤에야 순익 1위 은행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5년간의 독립 경영 보장은 금융권의 예측인 3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하는 하나금융의 입장이 엇보인다”고 말하고 “다만 독립 체제를 오래 유지하면 시너지 효과 창출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김 전 회장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외환은행의 인적 자원 활용이 관건"이라고 진단하고 "두 은행 간 화학적 결합이 선행돼야 다른 금융지주사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사 합의사항 놓고도 '시각 차' 표출 가능성

노사 합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면 합의에 대해서도 양측이 각자의 처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추후 견해 차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명시한 부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도 은행권이 강제성이 없는 상시 희망퇴직제 등 이른바 '자발적인 퇴직제도'를 통해 인력을 줄이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고용 보장 조항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5년간의 독립 경영도 사실상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엄밀한 의미의 독립 경영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의 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남은 불씨다. 외환은행 퇴직자 범국민운동본부 김준환 교수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라고 전제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외환은행 진로에 대해 합의했다고 해서 이번 사안이 그대로 덮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새 지도부 구성 완료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하나금융은 연료 있는 내부 인사들로 새 지도부를 꾸렸다. 김 회장은 3월 말 임기 만료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김정태(60) 하나은행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경남고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회장은 1981년 서울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계에 발을 디딘 뒤 1986년 신한은행에 이어 1992년 창립 요원으로 하나은행에 합류했다. 이후 중소기업부장과 가계영업점총괄본부장, 가계고객사업본부 부행장을 거쳐 하나금융지주 부사장과 하나대투증권 사장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는 하나은행장과 하나금융 개인금융 부문 부회장직을 맡아 왔다.

김 행장이 지주사 회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공석이 된 은행장에는 김종준(56) 하나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됐다. 당초 은행장에는 김 전 회장이 거론한 '젊은

CEO(최고경영자)론'에 힘입어 50대 초반인 이현주(53) 리테일영업그룹 부행장이나 김병호(51) 경영관리그룹 부행장이 내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주사 회장과 사장, 은행장이 모두 교체되는 상황을 맞아 조직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결국 김종준 카드가 선택됐다. 또 능력 있는 50대 중반의 고참 부행장들이 건재한 상황에서 50대 초반의 행장이 등장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하나금융 등기임원 후보 심사기구인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관계자는 "기왕에 거론된 젊은 부행장들 모두 능력이 출중하지만 한국식 조직문화에서는 능력과 함께 연륜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직의 안정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할 때 '시니어리티'(연공)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홍식(60) 전 소장이 지주사장직에 오른 것은 다소 파격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최 사장은 현대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연세대 경영대 교수 등을 지낸 연구 전문가다. 은행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정통 '은행맨'인 김 신임 회장에게 전략적인 부분을 조언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특히 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 김 행장과 최 사장, 윤용로 외환은행장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짜는 다소 기이한 체제로 김 신임 회장 중심의 새 지배구조를 다듬었다.

기업금융시장 점유율 확대 노릴 듯

국내 금융권의 4대 금융지주 경쟁 체제가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하나금융의 새 지도부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나금융은 소매금융과 프라이빗 बैं킹(PB)에 강하고, 외환은행은 외환과 무역금융, 국외 영업 부문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이 현명한 전략을 취한다면 하나금융이 기업금융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카드 부문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나금융호의 새 선장에 오른 김 신임 회장으로서의 무엇보다도 지난 15년간 굳어진 '하나금융=김승유'라는 공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고유선 경제부 기자 cindy@yna.co.kr

삼성그룹이 변하고 있다

새 지배구조 정립 여부에 촉각
이건희 회장 형제들 상속 싸움도 관심



요사이 삼성그룹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개별적으로, 또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변화인지라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향후 삼성그룹의 새로운 틀 구축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어 재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주회사로 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3세들의 경영 체제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삼성그룹은 금년과 내년에 2개의 의미 있는 이벤트를 맞는다. 먼저 오는 12월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체제가 만 25년을 채우게 된다. 이 회장은 아버지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1987년 11월17일 별세하자 채 보름도 안 된 그 해 12월1일 후임 회장에 올랐다.

이 회장 체제 25년-신경영 20년

내년은 이 회장이 신(新)경영을 선언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회장 취임 이후 삼성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이던 이 회장은 1993년 2월부터 8월 초까지 로스앤젤레스, 도쿄, 프랑크푸르트, 런던, 오사카 등 해외 현지에서 계열사 사장단, 임원, 간부, 해외주재원 등 연 1천8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회의를 잇따라 가졌다. 특히 6월에 열린 프랑크푸르트회의에서는 “삼성 제품의 품질은 바로 삼성의 얼굴”이라는 선언으로 삼성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당시 이 회장이 해외에서 지시하고 교육하고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삼성 신경영’이다.

신경영 철학에는 ‘나부터 변화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품질 위주 경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21세기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것이다. 신경영 선언 이후 삼성의 개혁이 본궤도에 올랐고 이후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며 실제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을 들어 나타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삼성전자의 LCD사업 분사. 삼성전자는 급변하는 디스플레이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4월1일 자로 LCD사업부를 분사시켰다. 사진_전수영 기자

이건희 회장 체제 25년을 맞은 삼성그룹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LCD사업부는 분사시키고 삼성LED는 합병했으며 소니와의 합작사업(S-LCD)은 정리했다. 신수종사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의약품 사업에는 1천200억 원을 출자했다. 제일모직은 SPA사업을 개시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에 버랜드는 큰 폭의 지분 변동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은 이건희 회장이 신(新)경영을 선언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신경영 선언 이후 삼성의 개혁이 본궤도에 올랐고 이후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며 실제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진. 최재규 기자

이 회장 '사회적 책임' 강조

금년과 내년에 부여되는 의미의 중요성에 비춰 그룹 차원에서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10년, 또는 새로운 20년 동안 삼성그룹을 먹여 살릴 사업 구상이나 경영 방침이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되고 있지 않느냐는 짐작이다. 삼성그룹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없다며 일축했다.

이 회장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올 1월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 신년 하례식. 이 회장은 “삼성엔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다해야 하며 특히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라며 ▲기존 사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신사업은 생존 주기가 빠르게 단축되며 ▲동종 경쟁에서 이종 경쟁으로, 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군 간 경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장은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경쟁력의 원천으로 내부적으로는 사람과 기술, 외부적으로는 사회의 믿음과 사랑을 꼽았다. 그는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는 일과 함께 사회로부터 믿음을 얻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려운 이웃,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우리 사



삼성그룹은 저소득층 중학생 1만5천 명의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드림 클래스'로 명명된 이 사업에 필요한 강사는 1년에 총 3천 명, 소요 예산은 300억 원이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의 한 중학교에서 진행된 드림 클래스 시범수업. 사진제공_ 삼성그룹

회의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의 사회적 책임론과 맞물려 관심을 끄는 일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먼저 담합 문제를 들 수 있다. 삼성그룹은 사회정의를 해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담합을 해사(害社) 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해임까지의 중징계를 받는다. 경쟁사와의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감독기관이나 발주처 주관 회의 등을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하고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대대적인 저소득층 중학생의 방과 후 수업 지원사업 역시 눈길을 끈다. 삼성그룹은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중학생 1만5천 명의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드림 클래스'로 명명된 이 사업은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중학생 학습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올해에는 우선 서울을 비롯한 전국 21개 도시, 120개 학교에서 7천200명을 선발해 방과 후에 영어와 수학을 가르친다. 각 중학교는 학년별로 20명을 2개 반으로 나눠 총 60명을 6개 반으로 편성한 후 1회 2시간씩, 주 4회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한다. 주중에 대학생 강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와 도서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는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도시 중학생 1천800명은 주말에 학교에 모여 수업하며 읍·면 도시지역 학생 6천 명은 방학 캠프를 활용한다.

삼성은 각 중학교 인근에 있는 대학에서 학업성적과 봉사정신, 리더십 등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방과 후 수업 강사로 충당한다. 영어와 수학 강의는 물론 중학생들이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고 대학 진학에 성공한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필요한 강사는 1년에 총 3천 명, 소요 예산은 300억 원이다. 삼성은 저소득층 중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등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적지 않은 힘이 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제일모직 등 사업 재편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사업구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일부 사업은 떼어내거나 매각하고 다른 사업에는 새로 뛰어드는 식이다. 올 들어 나타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삼성전자의 LCD사업 분사. 삼성전자는 급변하는 디스플레이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4월1일 자로 LCD사업부를 분사시켰다. LCD사업부는 향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S-LCD 등과의 통합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삼성LED를 합병하고 소니와의 합작사업(S-LCD)은 정리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사업을 씨게이트에 매각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통신장비사업도 떼어내 삼성SNS로 개명하는 서울통신기술에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사장이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통신기술과 삼성전자는 이를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바이오의약품사업에 새로 뛰어 들었다. 바이오의약품은 삼성그룹이 꿈은 신수종사업의 하나로 삼성전자는 이 사업을 담당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1천 200억 원을 출자해 지분 40%를 확보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그룹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이자 이 회장의 후계자인 이재용 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회사로 사업 분야 조정과 지분 변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

하며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의 차녀 이서현 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제일모직이 SPA(제조·유통 일괄화 의류)사업에 뛰어든 것도 관심거리다. 제일모직은 2월21일 자회사 개미플러스유통(주)의 '에잇세컨즈(8seconds)' 출시를 신호로 SPA사업에 착수했으며 주요 소비계층인 20~30대를 겨냥해 남성복, 여성복, 데님, 라운지웨어(편히 쉴 때 입는 옷), 액세서리 등 5가지 제품군을 갖췄다. 연말까지 국내 매장 10곳에서 600억 원어치를 판매하고 2020년에는 300곳에서 1조5천억 원 매출을 올려 세계적 SPA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에버랜드 주식 7.89% 향방에 촉각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이처럼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사이에 삼성에버랜드에서는 대규모 지분 변동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보유 에버랜드 지분 4.25%가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 주식은 이 회장의 막내딸 고(故) 윤형 씨 몫으로 삼성그룹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교육부에 기부한 것을 장학재단이 맡아 관리해 왔다.

한국장학재단 보유 지분이 에버랜드, 나아가 그룹 내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나 에버랜드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인 만큼 그 향방은 큰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회장 일가와 그룹 계열사들의 에버랜드 지분은 69.04%로 이재용 사장 25.1%, 삼성카드 8.6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각 8.37%, 제일모직·삼성전기·삼성SDI 각 4.0% 등이고 이 회장도 3.72%를 갖고 있다.

이번 매각 작업은 동양증권이 주간사로 나섰으며 3월 8~9일에 실시된 예비입찰에는 매각 대상 물량을 초과한 매수 신청이 접수됐다. 동양증권은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들이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이 매각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에 "앞으로 수년간은 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예비입찰에 이 정도로 몰렸다는 것은 에버랜드 지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예비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금명간 본입찰을 거쳐 최종 인수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3.64%도 4월 중 매각된다. 삼성카드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에버랜드 지분을 5%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입장으로 앞서 작년

12월에도 지분 17%를 KCC에 매각했다. 한국장학재단과 삼성카드 보유분을 합치면 4월까지 주인이 바뀔 에버랜드 지분은 7.89%에 달한다. KCC가 지난번 주식 취득으로 단번에 2대 주주로 올라선 만큼 이 7.89%가 누구의 손에 넘어가느냐에 따라 에버랜드의 지분 구조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일단은 "No!"

삼성전자의 눈에 띄는 변화 움직임이나 에버랜드 지분 구조 변동 등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틀을 바꾸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미래전략실) 부활 및 이재용 사장 등의 전면 배치와 연계시켜 3세 경영체제를 염두에 둔 사전 정치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미래전략실이 부활해 삼성그룹의 장기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그룹을 3세들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나눠 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래전략실을 축으로 한 신수종사업 추진과 삼성전자의 LCD사업 분사 등을 거론하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벤트 등을 고려할 때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윤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삼성그룹의 변화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가 유력하게 떠올랐다. 이 연구원은 "지주회사 전환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므로 향후 3~4년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단계별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전자계열, 물산계열, 금융계열 등으로의 분리를 점치고 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삼성그룹의 분리 작업은 이미 시작됐으며 앞으로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삼성그룹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이명희 전 제일비료 회장 등이 최근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된 삼성가(家) 형제들의 상속 싸움을 계기로 3세 경영체제에 흑시라도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룹 나누기를 더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삼성그룹이나 계열사 관계자들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감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바뀔지를 미리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도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다"고 털어놨다. 

박성제 산업부 기자 sungje@yna.co.kr

신용카드 수수료율 분쟁... 수혜자는?

가맹점 이득만큼 부가서비스 축소 불가피
수수료율 체계 개정 착수... 연말 시행될 듯



유흥·사치업소 100만 업주들은 지난해 11월30일 사상 처음으로 하루짜리 연대 파업에 돌입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업소는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2%의 두 배가 넘는 4.5%의 수수료를 부과받고 있다. 사진, 이상학 기자

신용카드는 이제 생활의 일부다. 국민 1명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평균 2.3장. 물건 구매는 물론 비행기를 탈 때에도 신용카드를 내민다. 심지어 1천 원짜리 과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시대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인해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카드사가 얻는 천문학적 수익이 분란의 불씨다.

카드사-가맹점, 수수료 갈등 심화

신용카드의 세 주체는 카드사, 회원, 가맹점이다. 카드사는 음식점 등 가맹점에 회원을 제공하면서 결제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가맹점에서 받는 구조다. 카드사는 이 수수료를 기반으로 회원에게 극장요금 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가맹점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니 가맹점 업주로서는 억울하게 카드사에 돈을 주고 있다는 불만을 갖게 된다.

과거에는 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결제도 많아 수수료 문제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로 인해 아무리 소액이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가맹점 업주로서는 카드 수수료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더구나 카드사들이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 가맹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매기고 음식점 등 영세 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별적인 요금구조에는 처음부터 갈등의 불씨가 배태돼 있는 셈이다.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중소형 가맹점들이 조직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됐다. 가맹점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관계 당국까지 나서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자 카드업계는 “경제 논리상 말도 안 되는 일이 정치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 가맹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매기고 음식점 등 영세 가맹점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적인 요율구조가 갈등의 불씨다. 여기에 선거철을 맞아 '표(票)폴리즘'에 치우친 정치권의 행보가 갈등을 더욱 키우는 형국이다.



1천 원짜리 과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시대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인해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카드사가 얻는 전문학적 수익이 분란의 불씨다. Imagine China_ 연합뉴스

논리로 흐르고 있다”며 불멘소리를 냈다. 그동안 7개 전업 카드사의 치열한 경쟁과 정부의 압력으로 이미 여러 차례 수수료를 내려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터에 또다시 수수료를 내리면 장사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 1조8천억 원, 2010년 2조7천억 원에 이어 2011년에도 2조여 원에 이르는 ‘대박’ 행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수수료 폭리 때문이 아니라 카드 대출 등의 요인이 더 크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그러나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낀 카드사들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은행 위를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는 몸짓을 취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소기업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사치업소들이 들고 일어났다.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60여 업종으로 구성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속 100만 업주들은 지난해 11월30일 사상 처음으로 하루짜리 연대 파업에 돌입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유흥·사치업소는 이용료와 봉사료까지 합친 비용에 4.5%의 수수료를 부과받고 있다. 카드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2%의 두 배도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 외중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와 할부카드 이용 수수료 및 현금 서비스 수수료 등의 담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카드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



선거철을 맞은 정치권은 여야 합작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고 카드 수수료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차별 금지 연대 결성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의원들. 사진_서명곤 기자

수수료가 카드사별로 별 차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부가서비스 축소하는 카드사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로 연간 2천억 원가량의 수익 감소를 떠안은 카드사들은 자구책으로 부가서비스 축소를 들고 나왔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은 지난해 9월~올 3월까지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환급,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50% 이상 축소했다. 전월 이용액 기준도 20~40%나 늘렸다. 종전에는 전월 이용 실적이 20만 원 이상이면 극장요금 할인 등이 가능했으나 각종 제약이 신설돼 이제는 30만~50만 원은 써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신한 4050카드’ 회원은 전월 사용 실적이 20만 원 이상이면 제휴 학원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올랐다. 신한카드는 또 이베이 옥션에서 제공되는 ‘마이신한포인트’를 역시 4월부터 결제금액의 0.2%에서 0.1%로 50% 삭감했다. 삼성카드는 ‘삼성카엔모아카드’ 등 제휴카드 7종에 대해 멤버스주유소에서 L당 20~40원 할인해주던 것을 5월부터는 중단하기로 했다. 신라호텔 제휴 서비스도 3월부터 종료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군림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1월 삼성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차 구매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를 기존의 1.75%에서 1.7%로, 체크카드는 1.5%에서 1.0%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KB국민카드는 당초 “무리”라며 거부했으나 다른 카드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자 속절없이 따라갔다.

카드업계의 이런 행태는 즉각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강자에게는 쉽게 굴복하고 약자에게는 군림하는 알뜰한 상술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현대차의 수수료 인하 때문에 기업 규모별) 경기 양극화가 심화하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경제적 약자의 박탈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대기업 수수료를 인하하면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거철을 맞은 정치권은 여야 합작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고 카드 수수료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금융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개정 법률의 핵심 조항에 대해 카드업계가 시장 경쟁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도 얻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원안대로 통과돼 아쉽다”고 말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국회 법사위원회 전문위원조차 이 법안이 시장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여야가 논의조차 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이

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차기 국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실력 행사 또한 연중 끊이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 법률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삼성카드가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기에 내리지 않으면 4월1일부터 영업 현장에서 삼성카드를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상임 대표 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카드 수수료가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영업자에게는 개정 법률이 시행될 11~12월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기업 가맹점 수준인 1.5%로 즉각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수료율 체계 분석에 주목… 비용 부담 합의 필요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어떻게 공정하게 부담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수수료 수입으로 이익을 내는 카드사에 대해 막무가내로 수수료를 낮추라는 식은 합리적인 해법이 못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익이 줄면 수수료를 올려도 괜찮다는 논리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카드 사용자가 지나친 혜택을 누리고 그 부담을 가맹점이 떠안는 구조”라고 진단하고 “그럼에도 카드 사용의 혜택은 마치

‘공기’ 처럼 당연하게 인식돼 누구도 이익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수수료 인하는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줄이고 소득공제를 없애는 ‘용기 있는’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화로 수익이 줄어들면 부가서비스를 줄여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카드를 발급할 때 회원에게 적용하던 신용 위험을 일부 가맹점에 적용해 카드사와 공유하면 가맹점 폐업으로 인한 미회수금액이 줄어들어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 당국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4월에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그 결과는 연말에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율 차별 금지법에 반영돼 중소기업의 수수료율 부담을 덜어주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두형 여신협회장은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근접한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밝히고 “선진국은 업종별 수수료가 아닌 고정비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으로 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우리도 이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음식점, 골프장, 대형 마트 등 업종마다 가맹점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업종에 대해 고객이 낸 금액 대비 카드사 고정비용을 산출해 수수료율에 반영하는 체제가 된다는 의미다. 

심재훈 경제부 기자 president21@yna.co.kr



카드 수수료 문제를 풀려면 카드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하려는 사회적 합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결구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주성 기자

대형 마트들 때아닌 가격 인하 바람

주요 생필품 최대 50% 1년간 인하
정부 등쌀에 마지못해 물가 안정 동참?
납품업체에 피해 전가될 우려도



이마트가 우유와 커피, 씨리얼 등 가격 인상 우려가 높은 주요 14개 생필품의 가격을 인하여 1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하자 다른 대형 마트들도 잇따라 가격 동결을 선언했다. 사진 연합뉴스DB

국내 대형 마트들이 앞다퉀 주요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겠다고 아연 가격 경쟁에 나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3대 마트는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물가 안정 방침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 대형 마트의 가격 인하 바람이 과연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물가 통제에 나선 당국의 '팔 비틀기'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식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고 실제로 그렇다면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대형 마트들의 가격 인하에 따른 고통이 고스란히 납품업체들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3대 마트 잇따라 가격 인하 선언

이마트는 2월28일 우유와 커피, 씨리얼 등 가격 인상 우려가 높은 주요 14개 생필품의 가격을 낮추고 1년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이마트 PL우유', '캘로그 콘푸로스트' (1,500g), '오투기 스파게티소스' (685g×3), '곰표 중력밀가루' (2.5kg) 등이다.

이마트는 또 커피, 고추장, 라면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17개 품목은 따로 가려내 품목별로 최대 50%까지 가격을 내린 후 3개월 동안 묶기로 했다. '동서 모카' (250개), '해찬들 쌀고추장' (3kg), '삼양라면' (120g×20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3~6개월 동안 가격 인상 우려가 큰 품목 중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고른 뒤 협력회사와의 사전 기획과 대량 매입 및 자체 마진 축소 등의 방법을 동원해 가격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마트 PL우유는 연간 판매량이 48만 개가량 되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마트가 잇따라 주요 생필품의 가격 인하를 선언했다. 소비자 입장에서선 반가운 일이지만 업계 주변에서는 자발적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물가 당국의 등쌀에 억지로 떠밀려 마지못해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 이마트의 1년 가격 동결 14개 생필품

상품명	규격	가격
이마트 PL우유	2.3L	4,050원
크라운 초코하임 36개입	282g	4,320원
오뚜기 스파게티소스	685g×3	9,970원
스니커즈 미니스	1,208g	16,980원
캘로그 콘푸로스트	1,500g	12,160원
동서 아몬드후레이크	1,200g	11,750원
롯데 제주감귤	2L×3	5,890원
월리안브로이바이제	500mL	1,590원
복음자리 딸기잼	1,050g	8,650원
플레도르 소컵	110mL×8	7,450원
하겐버그 필스라거	500mL	1,590원
담버거엑스포트	500mL	1,590원
곰포 중력밀가루	2.5kg	2,790원
대상 클로렐라	200mg×450정	28,500원

■ 이마트의 3개월 할인 17개 품목

상품명	규격	기존가격	인하가격	인하율
동서 모카	250입	27,900원	26,900원	3.6%
해찬들 쌀고추장	3kg	16,900원	14,500원	14.2%
순창 우리쌀참고추장	3kg	17,400원	14,500원	16.7%
매일 애플루트 명작 3단계	800g×3	69,900원	58,900원	15.7%
롯데 카스타드 2번들	230g×2	4,650원	4,380원	5.8%
요하임	900mL×2	4,900원	4,480원	8.6%
해태 맛동산 8팩	304g	3,980원	2,980원	25.1%
해표 포도씨유	900mL×3	14,920원	13,800원	7.5%
트리오 까베르네 와인	750mL	26,900원	14,900원	44.6%
트라피체 오크캐스크말백 와인	750mL	28,000원	14,000원	50%
동원 리챔	340g×3	15,680원	10,980원	30%
드빈치체다 3입 기획	300g×3	11,200원	10,400원	7.1%
자연은 프리미엄	180mL×12	7,300원	6,800원	6.8%
동서 아카시아꿀	600g	14,500원	13,400원	7.6%
삼양라면	120g×20	9,740원	9,700원	0.4%
안성탕면	125g×20	10,580원	10,480원	0.9%
기스면(컵라면)	62g×6	4,800원	3,840원	20%

만 협력업체와의 사전 기획을 통해 60만 개를 1년 동안 예약 매입했다. 이마트는 이를 통해 가격 동결 대상 14개 품목, 400만 개(총 200억 원 상당)와 3개월 가격 인하 대상 17개 품목, 130만 개(총 180억 원 상당)의 물량을 미리 확보했다.

이마트는 이번에 선정된 품목 이외에도 가격이 오르거나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로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마트는 작년에도 '가격 혁명' 캠페인을 벌여 라면, 우유, 고추장 등 37개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동결을 단행했다. 그 결과 고객이 5%가량 늘어났다는 게 이마트의 자체 분석이다.

장중호 이마트 브랜드 담당 바이어는 "이마트는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격 동결 및 인하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협력회사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물가 안정 기여 조치 vs 생색내기용 알뜰한 상술

이마트가 가격 할인에 나서자 다른 대형 마트들도 가격 동결 내지 인하 대열 참여를 잇따라 공표했다. 홈플러스는 3월 1일 400개 생필품의 가격을 1년 동안 인하하고, 1천 개 주요 상품을 5주일 동안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는 '사상 최대의 물가잡기'에 돌입했다. 이번 행사는 창립 13주년을 기념해 홈플러스의 전국 126개 매장과 익스프레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홈플러스는 우선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생필품 가격을 내년 2월까지 5~50%(평균 13%) 낮추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자체 조사를 통해 콩나물, 두부, 우유, 라면, 커피, 밀가루, 즉석밥, 주스, 치즈, 햄, 고추장, 케첩 등 식품과 세제, 칫솔, 방향제, 치약, 생리대, 클렌징크림 등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총 400여 품목을 가격 인하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8주마다 상품을 변경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 인하 제품은 매출액의 일부를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수술 및 위탁가정 어



대형마트의 가격 동결이 자발적이라기보다 물가당국의 등쌀에 밀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조래에 의해 전국 최초로 매주 2차례 의무 휴업이 시행된 전주 시내 한 기업형 슈퍼마켓. 사진, 백도인 기자

린이 지원에 사용하는 ‘생명의 쇼핑카트 캠페인’ 상품으로 추가해 서민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이웃사랑도 함께 실천한다는 구상이다.

홈플러스는 연중 가격 인화와 더불어 3월1일부터 4월4일까지 5주일 동안 한시적으로 1천여 주요 상품의 가격을 대폭 낮췄다. 특히 생필품을 최대 50% 이상 할인하는 ‘10대 기획전’, 매주 목요일 한우, 생선 등 특정 부문의 품목을 전부 반값 수준에 판매하는 ‘한목(木) 잡는 날’ ‘신선식품 1천원의 행복전’ ‘돈 버는 형제가 상품전’ 등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행사 1주 차부터 날개 기준으로 계란 130원, 치약 700원, 즉석밥 542원, 참치(100g) 825원, 생닭 2천990원, 고등어 1천280원, 두부(300g) 500원, 콩나물(400g) 1천원 등 100여 생필품을 초특가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이와 함께 LG디스플레이 풀HD 패널을 사용한 32인치 TV는 48만9천 원, ‘유스파’ 비데는 9만9천 원에 각각 판매하는 등 가전제품도 최대 50%를 낮춘 가격에 내놓았다.

홈플러스는 이 밖에도 1천600만 원의 할인카드 회원 중 홈플러스 이용빈도가 높은 고객 150만 명에게 3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1인당 최대 170만 원, 총 2조5천억 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주는 ‘돈 버는 쿠폰북’을 제공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콩나물과 두부처럼 서민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앞장서기 위해 할인전

■ 롯데마트의 4개월 가격 동결 주요 생필품

상품명	규격	기존가격	인하가격	인하율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	2.4kg	23,520원	11,500원	51%
롯데 베이컨 기획	140g×2	8,000원	5,200원	35%
삼양 수타면	5입/1봉	2,780원	2,220원	20%
프라임엘 우유 기획	현 우유1L+칼슘1L	4,260원	3,600원	15%
제주 참조기	5마리	4,500원	3,500원	22%
복음용 멸치	180g×2	13,600원	8,900원	35%
애경 샤워메이트	550g+300g	8,700원	4,350원	50%
2080 청은차 치약	130g×3	7,500원	3,750원	50%
깨끗한나라 한글 물티슈	캡형/60매×6	13,500원	9,900원	27%

■ 홈플러스의 1년 가격 동결 주요 생필품

상품명	규격	기존가격	인하가격	인하율
LG생활건강 테크맥스 화이트리필	1.5kg	11,900원	5,950원	50%
진미 국산통살 태양초 고추장	3kg	25,400원	14,300원	44%
해찬들 재래식 된장	500g	2,380원	1,980원	17%
삼양사 큐원 각설탕	1kg	4,800원	4,250원	11%
해표 꽃소금	3kg	3,210원	2,950원	8%
오뚜기 스낵면컵	62g	650원	610원	6%
진로 석수	2L	740원	700원	5%
녹차원 호두아몬드올무차	80T/1,440g	21,800원	15,200원	30%
일동 6년근 홍삼사랑	2,000mg×50포	18,900원	16,000원	15%
남양 웰빙1/2프렌치카페 커피믹스	100T/885g	18,400원	15,640원	15%
펄시콜라캔	250mL×6	3,310원	3,100원	6%
해피바스 딥클리어 클렌징크림	300mL	12,000원	5,900원	51%
피죤 무균무때목실용스프레이	500mL	5,500원	3,380원	39%
아모레퍼시픽 미장센파워스윙 메가홀드	85g	9,450원	6,600원	30%

을 기획했다”고 소개하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착한 행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질세라 롯데마트도 3월8일 라면과 고추장, 치약 등 50개 생필품 값을 최대 50%까지 내리고, 그 가격을 6월 말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품 중에서는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 (2.4kg)을 반값인 1만1천500원, ‘롯데 베이컨 기획’ (140g×2)은 35%를 내린 5천200원에 각각 판매하며 ‘삼양 수타면’ (5개) 2천220원, ‘프라임엘 우유 기획’ (현우유1L+칼슘1L) 3천600원, ‘제주 참조기’ (5마리) 3천500원 등이다. 생활용품도 ‘애경 샤워메이트’ (550g+300g)와 ‘2080 청은차 치약’ (130g×3)을 각각 50% 할인한 4천350원, 3천750원에 판다.

롯데마트는 이번 할인 상품은 기존의 염가 기획 상품인



홈플러스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400개 인기 생필품 가격을 내년 2월까지 5~50% 낮추기로 했다. 홈플러스 서울 영등포점에서 열린 물가 안정 기원 행사. 사진, 임현정 기자

‘통큰’이나 ‘손큰’ 시리즈와는 별개로 준비했다고 밝히고 할인 대상 상품을 연말까지 1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미 통큰 시리즈 등 기획 할인 상품을 판매해 왔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추가 상품 할인에 나섰다”고 말하고 “다른 대형 마트들과 달리 서민 생활에 밀접한 라면과 치약 등 핵심 생필품 가격을 낮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 등쌀에 밀린 것… 납품가 후려치기 재연 우려

그러나 대형 마트들의 잇따른 상품 가격 동결 내지 인하에 대해 업계 주변에서는 순수한 자발적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물가 당국의 등쌀에 억지로 떠밀려 마지못해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해에 잇따라 실시되는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물가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정부가 대형 마트들을 상대로 ‘팔 비틀기’에 나섰다라는 시각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연초부터 정부가 대형 마트 관계

자들을 소집하고 생필품 납품가격이 올라도 판매가격은 종전대로 유지해 달라고 당부해 왔다”고 털어놴. 영업시간 규제 등 최근 들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갈수록 심해지는 정부와 영세상인, 시민단체 등의 견제를 감안할 때 대형 마트들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도 일부 마트에서는 벌써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는 등 억지추향식 가격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엿보이고 있다. 일부 품목은 물량이 진작 다했으며 인기 없는 상품들을 ‘생색내기용’으로 대폭 할인 상품에 끼워 넣는가 하면 할인 품목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자 “할인 상품이 대체 어디 있느냐?” “또 알팍한 상술이냐?” 등 고객들의 항의와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함께 대량 매입과 경영 합리화 등에 힘입어 가격 인하가 가능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형 마트들의 납품가 후려치기 같은 고질병이 도질 소지도 없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종석 산업부 기자 banana@yna.co.kr

국민연금, 100세 시대 평생 월급

국민연금 가입자 사상 최대... 신뢰 회복 반영
기금 규모 세계 4위 '큰손'... 사상 최고 수익
주식·대체·해외 등 투자 다변화만이 살길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전 광우(63) 이사장. 언젠가부터 그의 이름 뒤에 '세계적 큰손'이라는 듣기 싫지만은 않은 별명이 따라다닌다. 국제무대에서도 내로라하는 금융전문가답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후 고작 2년여 만에 사상 최대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어느새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우뚝 선 국민연금기금은 사상 최고 수익을 올렸다.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림없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궈 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욕심이 많다. 기금을 머잖아 세계 3위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는다. 덩치가 커질수록 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이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각오를 다잡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소중한 재산이니 안정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겠지만 적어도 연 6%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기금의 고갈을 막아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내놓는 해법은 주식·대체·해외 등 투자의 다변화. 이를 위해 유럽으로, 중국으로 종횡무진 날아다니는 중이다. 서울 중구 극동빌딩에 있는 국민연금 국제회의실에서 마이더스와 인터뷰를 갖기 직전에도 세계적 은행의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아마 식사 중에도 긴장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눈매로 호시탐탐 투자 기회를 노리고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에 대한 고급 정보를 캐내려고 고심했을 게 틀림없다.

“고래가 됐으니 바다로 나가야 산다”

국민연금기금이 지난 2월 360조 원을 돌파했다. 세계 연기금 4위의 대단한 규모다. 하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여력은 어느 연기금보다도 뛰어나다는 게 전 이사장의 평가다. 그는 '젊은 기금'이라는 수식어를 동원했다. 허황된 꿈만도 아니다. 3년 후에는 500조 원, 그로부터 다시 5년 후인 2020년에는 1천조 원으로 늘어날 테니 말이다.

이에 따라 투자 다변화가 시급하고도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전 이사장은 “국내의 안정적인 채권 투자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주식·대체·해외 투자 등으로 기금 운용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가 끝나기까지 이 표현을 수차례나 되풀이 강조했다.

일각에서 공격적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우려하는 것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기금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증식하려면 투자 다변화만이 살 길이라는 면밀한 계산이 금융전문가인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확고하게 그려져 있다. 전 이사장은 “금붕어였던 기금이 이제는 고래로 성장했다”고 비유하고 “언제까지나 안전할 것으로 여기고 연못 속에만 머무르려 한다면 고래도 연못도 다 죽고 만다”고 못 박았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채권 투자에만 매달려서는 연 6% 수익률에 턱없이 못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모

름지기 고래라면 바다로 나가야 살 수 있는 법. 그것이 바로 해외 투자, 대체 투자에 적극 나서는 배경이다.

단 한 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민의 노후 재산이므로 투자에 앞서 모든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최근의 실적은 이러한 노력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다.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4%, 2010년 10.3%에 이어 주식이 10%가량 폭락한 지난해에도 2.3%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는 “금융 위기 이후 가격이 크게 떨어졌으면서도 운용 수익이 보장되는 것만 골라서 최대한 신중하게 투자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채권 투자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며 걱정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이들을 안심시킨다.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야말로 금융전문가의 몫인 만큼 “믿고 맡겨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올해에는 유럽 등의 선진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도 투자 다변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 김영대 기자





국민연금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전에는 기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면 불신이 컸으나 최근에는 신규 가입자가 하루에 1천 명을 훌쩍 넘어섰다. 사진 _ 김선형 기자

“국민연금은 행복한 노후 설계의 기본”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최근 몇 년 새 몰라보게 달라졌다. 전에는 기금이 언제 바닥날지 몰라 불신이 컸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가입을 미루거나 보험료를 연체시키고 깎아 달라며 떼쓰기 일쑤였다. 하지만 요 몇 년 사이에는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자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줄지어 찾아와 가입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신규 가입이 하루에 1천 명을 훌쩍 넘어섰다. 전에는 한 달 치 보험료 내라고 해도 이리저리 피하곤 했으나 최근에는 연금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만 있다면 5년 치도 한꺼번에 기꺼이 내겠다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입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도 종종 받는단다.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증거”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고령화 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부족 커진 덕분이라며 ‘운칠기삼(運七技三)’의 겸손을 잊지 않는다. 하지만 기금 운용의 높은 성과도 달콤한 열매에 한몫했음은 물론이다. 국민에게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챙겨 주는 기

관의 수장으로서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터.

정부는 얼마 전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희소식을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해 시행한다. 그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이 늘어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치 제 일인 양 활짝 웃는다. 국민연금공단도 이에 발맞춰 노후 준비의 필요성과 국민연금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 아직도 국민연금을 꺼리고 있는 이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최고의 금융전문가

지난해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복이 터진 한 해였다. ‘올해의 최우수 연기금상’ ‘올해의 최우수 기관투자자상’ ‘최우수 연기금상’ 등을 휩쓸었다. 전 이사장 개인으로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 올해의 CEO(최고경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투자를 다변화해 수익률을 크게 높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초대 금융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

계에서도 알아주는 금융전문가에 걸맞은 평가라고나 할까?

전 이사장은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려 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사실은 취임 당시 크게 두 개의 목표를 세웠단다. 하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 다변화로 기금 운용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전부터 3년여를 지루하게 끈 노사 문제도 지난해 말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이제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하며 국민을 섬기고 최고의 복지서비스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 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그의 다짐이다. 다음은 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 최적의 조합 찾아야”

Q 국민연금이 ‘세계의 큰손’으로 우뚝 섰다. 현재의 좌표와 향후 진로를 그린다면?

A 국민연금기금이 올 2월로 360조 원 규모에 달해 세계 4위가 됐다. 조만간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여타 해외 연기금과 달리 우리 기금은 성장기에 있는 ‘젊은 기금’으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500조 원, 2020년에는 1천조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주식·대체·해외투자 등으로 운용을 다변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Q 안정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기가 쉽지 않고 국민의 걱정스러운 눈초리도 부담일 텐데.

A 취임 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안정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에 관한 것이었다.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안전한 연못’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아직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미 금붕어가 아닌 고래로 성장했는데 아직도 연못 속이 안전한 줄로만 착각하고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고래도 연못도 다 죽고 만다.

위기가 잇따라 닥치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도 바뀌어 앞으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한 세계연금정상회의는 연기금 운용을 둘러싼 화두를 다 양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며 세계 경제와 금융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와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사진제공_국민연금공단

로 당분간은 저금리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에만 투자하면 수익률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 적어도 연간 수익률이 6%는 나와야 하나 현재의 금리 수준은 턱없이 못 미친다. 금붕어 시절에는 국내에서 채권 위주로 투자해도 살 수 있었지만 고래로 성장한 지금은 넓은 바다로 나가 해외 투자, 대체 투자 등에 나서야만 살 수 있다. 위험 부담이 따르더라도 피하지 말고 적극 관리하며 수익을 내야 한다.

항상 투자에 앞서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 능동적으로 관리한다. 그 결과 최근 3년의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2009년 10.4%, 2010년 10.3%, 2011년 2.3%로 연평균 수익률 7.3%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수익금만 각각 26조2천462억 원, 30조1천58억 원, 7조6천717억 원이다.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기금 운용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다. 믿고 맡겨 달라.

Q 하지만 작년에도 주가 폭락으로 손해가 컸다. 적극적인 투자도 좋지만 수익성에 너무 치우치는 건 아닌가?

A 지난해 주식에서 평가손실을 본 것은 사실이다. 허나 해외 투자에서 높은 수익을 올려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익률도 주식은 12.7%이지만 채권은 절반도 안 되는 5.7%에 그쳤다.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Q 국내외 경제 상황이 올해도 매우 불투명하다. 적절한 투자 방향은 무엇인가?

A 유럽발(發) 금융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리라 본다. 당분간은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 테니 더욱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에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긴 호흡으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 취임 후 2년여 동안 투자 다변화를 적극 꾀한 것도 그래서다. 올해 역시 비금융 실물자산 비중을 높이고 유럽 등 선진시장은 물론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도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2008년의 금융 위기 이후 가격이 크게 떨어졌으면서도 안정적인 운용수익이 보장되는 것만 골라 최대한 신중하게 투자하고 있으므로 위험요소는 생각보다 적다고 본다. 임대수익과 시

세차의 등을 두루 따진다면 여러모로 득이 더 많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 투자에 가깝다.

“투자 다변화로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잡는다”

Q 위기가 지속되는 유럽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강조하는 등 해외 투자에 꽤 공격적이다.

A 취임 후 해외 투자를 꾸준히 늘려 왔음에도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현재 13.2%에 불과하다. 2016년까지 20% 안팎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래도 30% 수준인 해외 연기금보다는 훨씬 적다. 기금의 규모가 워낙 크고 증가 속도도 매우 빨라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너무 협소해졌다. 해외 투자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위기가 닥친 유럽에서 유망한 투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이다.

Q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나?

A 최근 중국은 수출을 대신해 민간 소비가 성장세를 이끄는 모양새다. 경제 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커졌으



국민연금기금이 올 2월로 360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4위의 연기금으로 우뚝 섰다. 조만간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의 현지 사무소 개소식. 사진 김상훈 기자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위해 올해에는 유럽 등의 선진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할 계획이다. 사진_김현태 기자

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투자 확대는 우리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처음으로 올 1월 중국 본토 증권시장 투자자격(QFII)을 획득한 것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중국 현지와 핵심 기관투자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투자 환경도 속속 갖춰가고 있다. 주식 외에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생각이다.

Q 기금 운용의 선진화를 줄곧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확대된 기금의 규모와 증가 추세, 저금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정성을 앞세우는 채권 중심의 보수적 운용은 수익률을 떨어뜨려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수익성을 높이려면 주식·해외·대체 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특히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금융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좋다. 한마디로 기금 규모에 걸맞게 균형 잡힌 투자의 틀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Q 국민연금의 지분 확보와 주주권 행사에 대해 ‘관치(官治)’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국민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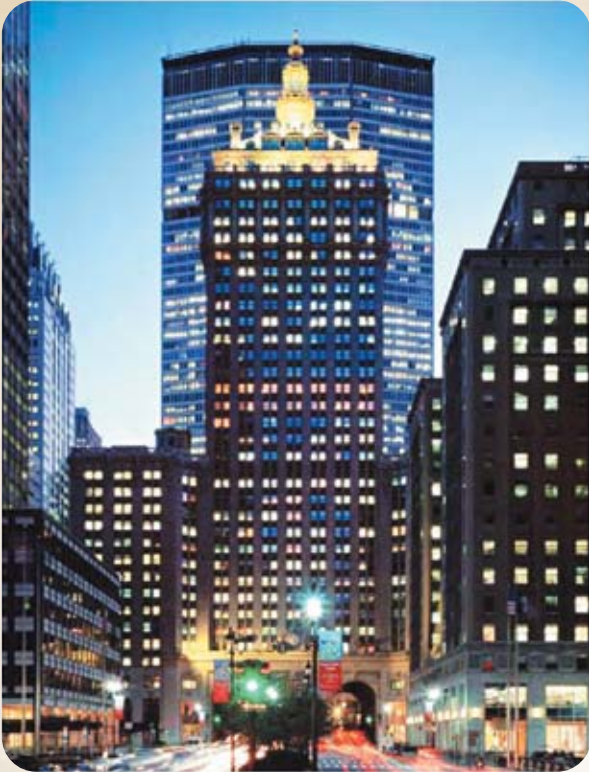
표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

A 주주권 행사는 투자 기업의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다. 동시에 국민의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하는 수탁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기금의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과 경영 간섭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상충하고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중이다.

**“국민연금은
행복한 노후 설계의 기본”**

Q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됐지만 노후를 국민연금에만 기댔다간 파산 확률이 40%를 넘는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라고 보나?

A 과거에는 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이 컸고 기금이 조기에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에



전광우 이사장은 국내의 안정적인 채권 투자에만 머물러선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며 주식·대체·해외 투자 등으로 기금 운용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한 미국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 햄슬리 빌딩. 사진: 주중국 특파원



정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국민연금 공단도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중이다. 사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열린 '100세 시대, 국민행복 노후설계 서비스 선포식'. 사진: 김재현 기자

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의무가입자가 아닌 이들이 줄지어 가입하는 등 신규 가입이 하루에 1천 명을 웃돌고 있다.

또 전에는 한 달 치 보험료를 내라고 해도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요즘은 최소한의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 치도 한꺼번에 기꺼이 내겠다고 한다. 한술 더 떠 여러 개를 동시에 가입할 수 없느냐는 질문까지 종종 받는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 고령화 시대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노후에 관심이 높아졌고 실제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덕분이다. 기금 운용 성과도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100% 끝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노후 준비의 기본으로 생각해야 한다. 가능한 한 부부가 같이 가입하는 게 좋고, 여기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는 다층적 노후 설계가 바람직하다.

Q 현재의 보험료율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A 최근 보건복지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4%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이 적게는 월 1천 원에서 많게는 5만 4천 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 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이 높아지고 보험료도 인상됐다.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월 소득 24만 원 미만이면 최대 810원, 375만 원 초과자는 1만2천600원이 늘어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담이 낮아 재정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몇 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노후에 받는 연금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다. 현재의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인상 여부와 시기는 국민의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히 고려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Q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은?

A 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다. 형편상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맞춤형 노후 설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형편은 되지만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가입을 꺼리는 이들에게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과 국민연금의 장점을 이해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행히도 정부가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 2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오는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각각 2분의 1 또는 3분의 1씩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저임금 근로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는 만큼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취임 후 국민연금 경쟁력 큰 폭 상승”

Q 2009년 12월 취임 후 국민연금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거둔 성과는 무엇이며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이 있다. 운 70%, 재주 30%라는 뜻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의 성패가 능력이나 노력보다 운에 좌우된다는 말이다. 이론에 뛰어난 전문가가 실제로 실적을 내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데 내 경우는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급속한 고령화, 베이비부머의 대거 은퇴 등 노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게 큰 도움이 됐다. 보험료를 내기만 하다가 비로소 받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러운 홍보도 이뤄졌다.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 성과를 높이고 균형 잡힌 투자를 위해 기울인 노력도 보태져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투자에도 적극 나서는 등 국민연금의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 가는 게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3년여에 걸친 노사 협상을 최근 마무리했다. 국민을 주인으로 둔 공공기관으로서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대폭 개선했고 내부 감사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감사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사진: 연합DB



국민연금을 노후 준비의 기본으로 생각해 가능한 한 부부가 같이 가입하고, 여기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보완하는 다층적 노후 설계가 바람직하다는 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전광우 이사장이 들려주는 조언이다. 사진 연합DB

Q 지난해에는 국민연금이 각종 상을 휩쓸었고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지역 올해의 CEO’로 선정됐다. 상복이 터진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나?

A 투자를 다변화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인 점이 크게 평가 받은 것 같다. 지난해에 세계연기금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연기금 운용에 관한 화두를 다양하고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세계 경제와 금융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와 방향을 모색한 것도 수상에 도움이 됐을 듯하다.

Q 국제적인 금융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나름대로 기금 운용 철학이 있다면?

A 기금은 나중에 연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증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철저한 위기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으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 가야 한다는 게 내 철학이다.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최적의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Q 말 많던 노사 협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A 취임 전인 2009년 4월부터 시작한 후 3년에 가까운 마

라톤협상 끝에 2009~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작년 말에야 체결할 수 있었다. 국민을 주인으로 둔 공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응하고자 과거의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대폭 개선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경영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1, 2급 간부까지만 적용하던 연봉제를 복지 관련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3급 부장 보직자까지 확대한 것이 한 예다. 각종 감사와 경영평가에서 반복해서 지적받은 시간외수당 계산 방식도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개선하고 경조사 휴가도 축소했다. 임산부의 근무시간은 하루 1시간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확대했다. 오랜 진통을 겪은 만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협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 앞으로 노사 화합을 바탕으로 더욱 열정

적으로 일하며 최고의 복지서비스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

Q 국민연금 이사장으로서 훗날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A 출근해서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보람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게 공직이다. 그래서 취임하면서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과 기금 운용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다. 아직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라 말하기가 뭣하기는 하나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는 이뤘다고 본다. 힘겹게 얻어낸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 갈 것이다. 기금 규모를 한층 키워냈으니 훗날 ‘큰손’으로 평가받으지도 모르겠다.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과감히 넘어서 조직과 제도의 발전, 그리고 국민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노력할 작정이다. **m**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민·관·학을 두루 거친 전광우 이사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전문가다. 1980년 초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교수를 거쳐 14년 동안 세계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으로 활약했다. 정부 초청으로 1998년 귀국한 뒤 경제부총리 특보와 국제금융센터 소장 등을 맡아 외환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2008년에는 금융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돼 국내 최초의 민간 출신 금융 부처 수장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때마침 불어 닥친 세계 금융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각종 금융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2009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때 불신과 기피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했던 국민연금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성공했다. 사상 최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사상 최고의 기금 운용수익, 공공기관 중 최대 신규 채용 등 각종 기록을 숨 쉴 틈 없이 갈아치우는 중이다.

대다수 국민에게는 얼굴 아닌 목소리로 먼저 다가가기도 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광우입니다”로 말문을 여는 라디오 광고로 국민의 귀에 꽤 익숙하다. 차분하고 정감 넘치는 목소리는 국민연금의 신뢰도 향상과 직결되는 느낌을 줄 정도다. 오죽하면 ‘라디오 목소리에 반한 주부들이 의무가입자가 아닌데도 줄지어 가입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겠는가.



국민연금 이사장 전광우

하지만 개인적인 노후 준비에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워 보인다. 국제 무대에서 ‘큰손’으로 통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빈손’일지 모른다면서도 껄껄 웃는다. “공직이란 모름지기 돈이 아닌 보람을 먹고사는 자리”란 이유에서다. 국민의 편안한 노후 만들기를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으므로 아직은 개인적인 노후 준비에 몰두할 때가 아니란다.

다만 “고령화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니 노후 준비는 누구에게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고 지적하고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내일이 아닌 오늘,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가입할 것을 권한다. 국민연금이 모든 이에게 풍요로운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나 가장 기본적인 노후 대책 수단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다양한 대책을 추가해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만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맞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 서 그가 국민에게 귀뜸해 주는 처방이다.

좌우명은 ‘유능제강(柔能制剛), 화이부동(和而不同)’. 부드러운 힘으로 강함을 이기고, 화합하되 무뎌대고 동화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각각 노자의 <도덕경>과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한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특유의 친화력에 강한 추진력, 탁월한 국제 감각까지 더해져 리더에게 필요한 3박자를 고루 갖췄다는 평가와 썩 잘 어울리는 글귀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1949년 서울 출생 _ 서울사대부고 _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_ 미국 인디애나대학 경제학 석사,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 _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 최고경영자 과정 _ 1982~86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경영학 교수 _ 1986~98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_ 1998~2000 경제부총리 특보 _ 2000~01 국제금융센터 소장 _ 2001~04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_ 2004~08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_ 2007 대한민국 국제금융 대사 _ 2008 포스코 이사회 의장 _ 2008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_ 2008~09 금융위원장 _ 2009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_ 2009~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안정과 성장’ 쳇바퀴서 번민하는 EU

긴축 악순환 벗어나려 성장에 방점
세계 경기·내수 위축 속 재정 한계로 고민
경제 회복까지 2~3년은 걸릴 듯



그리스는 지난해 마이너스 6.8% 성장에 머물며 5년 연속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당초 목표는 작년 마이너스 5.5%, 올해 마이너스 2.8%였고 올해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수정한 지난해 전망치는 마이너스 6%였으나 모조리 빚나갔다. EPA_연합뉴스

지난 2월21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을 논의하기 위해 브뤼셀에 모였다. 이들은 그리스 정부가 1차 구제금융 당시의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매섭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리스가 빚을 못 갚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경우의 후폭풍을 우려해 결국 2차 구제금융 제공에 합의하고 말았다.

지난 2년 새 그리스의 빚이 더 늘고 상황도 더 악화된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오히려 지원 규모를 그때보다 훨씬 더

늘렸다.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가 1천300억 유로를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또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채권단은 액면가의 절반가량인 1천억 유로를 탕감하고 1차 구제금융의 금리는 연 1.5%로 낮췄다.

그 대신 요구 조건은 대폭 강화됐다. 우선 최저임금 22% 삭감과 연금 축소, 공무원 연내 1만5천 명 감원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재정 적자를 올해 33억 유로로 줄이고 2014

EU가 긴축과 성장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다. EU 재무장관이 모여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리스에 강력한 긴축을 요구한 반면 EU 정상회의에서는 초긴축 정책이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렸다고 성장과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나선 것이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심산이지만 유로존 경제 정상화의 길은 멀어 보인다.

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를 7%로 낮추는 초 긴축 조치를 요구했다. 국영기업과 알짜 토지 등 국유재산을 대량으로 민간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팔아 빚을 갚도록 했다. 긴축 이행 강화와 채무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마치 사채업자가 선이자 때듯이 구제 금융의 일부를 채무 상환용 특별계정에 예치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그러나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강력한 긴축을 요구한 바로 그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분위기와 상반되는 움직임이 모습을 드러냈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12개국 정상이 지나친 긴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서한 형식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긴축은 성과 못지않게 많은 폐해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성명은 “지금의 위기는 성장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긴축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라”고 촉구했다. 유럽 재정 위기에 대응한 각종 긴축정책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이다.

강력한 긴축 재정에 경기 급강하

유로존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은 -0.3%였고 올 1분기에는 위축의 폭이 더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제가 2분기 연속 위축되면 ‘경기 침체’로 정의된다. EU 집행위는 이미 2월에 “약한 경기침체에 들어섰다”고 시인하고 올해 성장이 -0.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전망 0.5%에서 불과 석 달 만에 0.8% 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미국발(發) 금융 위기로 타격을 컸던 2009년 이후 3년 만에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유로존 경기의 급강하는 재정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분야가 흔들리자 기업과 가계 대출을 조이면서 실물경제도 타격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각국이 채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긴축 재정을 펼 것이 결정됐다. 성장의 두 축은 국내 수요와 수출이지만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EU의 수출 여건은 크게 악화된 상태다. 국내 수요를 늘리고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가계 소비를 늘리거나 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투자여력이 없고 인력 감축까지 단행함에 따라 실업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결국 재정 투입이 경기를 부양할 유일한 수단이지만 정부 역시 채무 감축을 위해 극도의 긴축재정을 펴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 국채를 갚기가 어려워지고 재정 적자 비율은 더 높아진다. 이들 과정을 거쳐 결국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만 것이 지금의 유럽 경제다.

이런 악순환은 유로존 위기의 진원지이자 구제금융의 대가로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 그리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스는 지난해 -6.8% 성장에 머물며 5년 연속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당초 목표는 작년 -5.5%, 올해 -2.8%였고 올해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수정한 지난해 전망치는 -6%였으나 모조리 빗나갔다.

문제는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받으며 약속한 긴축과 개혁 조치들을 모두 지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부채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트로이카 실무 팀까지도 비공개 보고서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가혹할 정도의 긴축과 공기업 등 국유재산 매각 프로그램에 치우친 소위 ‘TMF 방식’의 금융자본주의적 해결책이 지닌 한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비단 그리스만 그런 게 아니다. 스페인은 당초 재정 적자 비율을 올해 4.4%로 낮추고 채무 감축 프로그램 최종 연도인 내년에는 EU 기준치인 3% 이하로 내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침체돼 당초 목표를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올해 재정 적자 비율을 5.8%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약속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검토했으나 결국 5.3%로 타협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최종 목표를 지키라고 경고하는 선에서 눈감아 줬다. 그리스의 도덕적 해이를 공격하던 ‘모범 경제국’ 네덜란드를 비롯해 여러 나라도 사정은 대동소이하다는 게 유럽의 현재

상황이다.

초긴축정책은 이런 악순환을 가속시키며 사회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로존의 실업률은 1998년 출범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인 10.4%에서 떨어지기는커녕 되레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평균 20% 선이고 스페인은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자다.

경기 부양을 위해 ECB가 기준금리를 전후 최저 수준인 1%로 낮추고 각국이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바람에 물가는 억제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여기에 월급 삭감 내지 동결과 각종 복지 혜택 감축까지 겹쳐 서민들은 등골이 휘고 있다. 청년층과 노동계는 정치인과 부자들의 잘못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격렬한 항의 시위에 나서고 있다. 유로존 채무 위기 이후 총선이 실시된 나라는 좌우를 막론하고 집권당이 모두 패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성장과 고용’으로 정책 급선회

EU 27개국 정상은 3월1일 브뤼셀에 다시 모였고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 정상이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 위기의 원인인 국채의 과도한 발생을 원천봉쇄하자는 취지의 신

(新)재정협약을 채택했다. 협약에는 건전 재정 관련 조항을 회원국의 법규에 반영시키고 EU 집행위가 사전에 회원국 예산안을 받아 심사하도록 허용하는 등 안전장치들이 촘촘하게 삽입됐다.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한 EU가 통화동맹체를 거쳐 통화·재정동맹체로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된 역사적인 협약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뉴스의 초점은 신재정협약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성장과 고용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 선회에 관한 성명에 언론의 조명이 집중됐다. 헤르만 반롬피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유럽 경제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이번 위기와 그에 대한 처방들로 인해 사회적 응집력과 유럽의 위상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씨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위기의 마라톤’에서 이제 반환점을 돈 것으로 평가되므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라는 게 EU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성장에만 ‘올인’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반롬피이 의장은 아직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며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을 촉구했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급박한 위기를 해소



유로존의 청년실업률은 평균 20% 선이고 스페인은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자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서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위기의 마라톤'에서 이제 반환점을 돈 것으로 평가되므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라는 게 EU의 판단이다. 헤르만 반롬피이(사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유럽 경제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EPA_연합뉴스



하기 위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대책들'이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성장 촉진에 초점을 맞출 토대가 곧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성장과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얘기다. 모두 24개 항목의 정책 목표와 달성 방안을 열거한 성명에서 EU의 처지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은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성장을 최대한 촉진한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회원국 다수의 재정 적자 비율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 낙후 지역 인프라 개발 지원금 잔액 등 EU의 자금을 중소기업과 일자리 늘리기 지원에 쓰기로 한 것도 그래서다. 노·사·정 대화에서는 청년 고용, 교육, 평생학습, 경제·사회적 운영 체제 등 8개 분야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에 합의했다. 하지만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의 절반을 먼저 조달해야 EU가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매칭펀드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지출 확대 없는 성장 촉진책... 효과는 미지수

EU는 재정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기로 했다. 징세 능력 강화 등 세정 효율화, 고용과 해고를 더 쉽게 함으로써 기업에 숨통을 터주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더 늘리자는 내용의 '고용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성 인력 활용률 제고, 복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늦추기와 노인 고용 촉진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단일 시장 촉진과 EU 내에 존재하는 무역장벽 제거, 혁신과 연구·개발(R&D) 촉진, 금융 부문과 신용등급평가업계에 대한 개혁, 기업 대출 독려 등 동원 가능한 정책이 망라됐다. 중국, 인도,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제시됐다.

이런 정책들의 효과는 미지수다. 설령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2년 정도는 지나야 한다. EU는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되고 내년에는 회복세가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런 기대를 뒷받침하는 경제지표가 일부 나오고 있고 IMF도 조심스레 "미약한 조짐들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유로존 경제가 정상화되려면 2~3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설령 반환점을 돌고 있더라도 아직 터널의 끝은 멀었다는 시각이다. EU 내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역시 생각만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난제로 지목되고 있다. 독일은 서비스시장과 전문직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고, 프랑스는 무역 개방에 소극적이다. 더욱이 그리스나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경제가 더 악화돼 적자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하는 등의 위험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문제다. 

최병국 브뤼셀 특파원 choibg@yna.co.kr

한국, UAE 유전 빗장 39년 만에 풀다

유공 · GS 컨소시엄, 3개 유전 지분 40% 확보

육상 2개 광구, 아부다비 전체 면적 1/10

2009년 원전 수주 이후 한-UAE 경험 가속



중동은 세계 석유매장량의 54%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 유전지대다. UAE는 석유 매장량이 978억 배럴로 세계 6위에 해당한다. 사진은 아부다비석유공사 소유의 한 유전 현장. 사진_연합DB

중동은 세계 석유매장량의 54%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 유전지대다. 매장량 상위 10개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2천465억 배럴), 이란(1천370억 배럴), 이라크(1천150억 배럴), 쿠웨이트(1천15억 배럴), 아랍에미리트(UAE, 978억 배럴) 등 중동 국가가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 중동 국가의 유전 개발에 외국이 참여하기란 매우 어렵다. 전후 빠른 경제 재건을 위해 외국 기업에 유전을 개방한 이라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가 직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국영 석유회사(Saudi Aramco)를 통해 1973년 자원을 국유화했다. 쿠웨이트는 1975년 국영 석유회사(KOC)에 의한 국유화 이래 자원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아예 헌법으로 원천봉쇄하고 있다.

유전을 외국에 개방한 이라크도 일정 규모의 자격을 갖춘 외국 석유회사만 유전 개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라크 이외에 진출이 가능한 국가로 UAE를 꼽을 수 있지만 그나마 일본에 유전 개발 기회를 준 1973년 이후 외국에 개방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진입 장벽이 높은 중동 유전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이 3월5일 UAE 국영 석유회사인 아부다비석유공사와 아부다비의 미개발 유전 3곳의 개발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석유매장량 세계 6위인 UAE 유전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 현재 UAE 유전에 진출해 있는 나

굳게 잠겨 있던 중동의 유전 빗장이 풀렸다.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공동으로 개발하게 될 UAE 아부다비 유전 3곳의 추정 매장량은 약 5억7천만 배럴. 20년간 하루 최대 4만 3천 배럴씩 뽑아낼 수 있는 양이다. 정부는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와 UAE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속도를 내고 에너지 외에 다른 방면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개국뿐으로 UAE는 39년 동안 닫혀 있던 문호의 빗장을 들어 올린 것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셀, 토탈 등 세계의 자이언트급 기업만 참여한 UAE 유전시장에 세계 72위인 석유공사가 민간 기업 GS에너지와 함께 참여한 것은 꽤거”라고 치켜세웠다.

석유 비상 시에는 생산물량 전량 한국행

우리나라가 이번 계약으로 확보한 유전은 육상 광구 2곳과 해상 광구 1곳으로 이들 유전의 조광권 지분 40%를 보유한 한국컨소시엄은 앞으로 아부다비석유공사와 유전을 공동 운영한다. 양측은 작년 3월 주요 조건(HOT) 계약 당시 우리가 지분을 최대 100%까지 갖기로 합의했으나 추후 협상 과정에서 6대 4의 지분으로 최종 낙착됐다.

개발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각종 행정 규제 등을 감안하면 아부다비석유공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처럼 결정했다는 게 컨소시엄 측의 설명이다. 다만 비상 시에는 우리나라가 3개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전량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이 체결된 3개 유전은 부존량이 이미 확인돼 개발 착수 직전의 상태에 있다. 석유공사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개발 경제성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탐사에 따르는 위험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회수 가능한 매장량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업성이나 회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확인된 '발견 원시 부존량'은 약 5억7천만 배럴 규모로 추산된다.

석유공사와 GS에너지는 육상 광구 중 개발 접근성이 가장 쉬운 1구역부터 개발할 계획이다. 이르면 2014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며 20년으로 예상되는 생산기간에 하루 최대 4만3천 배럴까지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비 50억 달러 가운데 20억 달러를 우리가 부담한다. 통상 8~12%의 수익률이 확보되면 경제성이 있는 광구로 평가되나 고품질의 원유가 매장돼 있는 이 광구는 14%를 넘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원유가 예상대로 생산되면 40%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컨

소시엄은 하루 1만7천 배럴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된 원유를 바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것은 아니다. 생산물량과 수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직접 국내로 들여오는 것보다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 목표

우리가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더라도 이 같은 자주개발물량을 늘려가면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원유 확보가 어려운 위기 국면에서 수급에 숨통을 틔워 주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유전 확보의 의미가 있다. 이번 계약에서 비상 시 생산물량 전량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우리나라가 이 유전을 통해 하루 1만7천 배럴을 확보한다면 석유·가스 자주개발물량은 작년(하루 46만5천 배럴)에 비해 3.7%가 늘어나고 자주개발률은 작년(13.7%)보다 0.5%



한국컨소시엄이 개발하게 될 육상 광구 두 곳은 아부다비 전체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유전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유전, 적색은 가스전. 사진: 연합뉴스DB



우리나라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중동 유전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UAE 유전 개발 본계약 체결식 직후 악수를 나누고 있는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과 아부다비석유공사 알 수와이다 총재. 사진: 성연재 기자

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비상 시의 100% 국내 도입 규정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자주개발물량은 작년보다 9.2% 증가하고 자주개발률은 1.3% 포인트 올라가는 셈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연말까지 20%로 높이고 2020년에는 3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자원 공급의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힌다. 2010년 현재 국가별 자주개발률은 프랑스 105%, 이탈리아 51%, 중국 30%, 일본 23%, 한국 10.8% 등이다.

이번 계약에 포함된 육상 광구 두 곳을 합하면 아부다비 전체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유전 이외에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두 광구 사이에 매장량 3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이 존재한다는 점이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실어 주고 있다. 특히 2구역에는 셰일 오일(shale oil; 혈암유) 개발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셰일 오일 생산은 파쇄기법을 사용해 근원암에서 원유를 직접 뽑아내는 최첨단 석유 사업으로 최근 미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급속도로 확대되는 한-UAE 경험

정부는 이번 계약으로 우리나라와 UAE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속도를 내면서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에너지 이외에 다른 방면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UAE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면서 이전까지의 단순한 원유 도입을 넘어 유전 개발과 함께 국방,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내용의 '100년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양국은 현재 원자력·재생에너지·인력 양성·정보통신 기술(ICT)·조선·반도체 등 6개 분야에서 경험 사업을 발굴, 추진 중이다. 스마트그리드와 정보기술(IT) 의료 등도 상호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전 분야에서는 이번 계약 말고도 10억 배럴 이상 규모의 유전에 대한 우선 참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원전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70km 떨어진 브라카에 총 4기의 원전을 건설·운영하는 186억 달러짜리 사업이다. 자동차 100만 대, 스마트폰 2천300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현재 원전 1호기 원자로 본관 지반 굴착 공사가 약 77%, 2호기는 34%가 각각 진행된 상태다.

굴착 공사가 끝나는 7월부터 본격적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되고 2014년 1월부터 원자로 설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자로를 식혀 줄 냉각수 취·배수로와 방파제 공사도 한창이다. 전체 취·배수로와 방파제의 길이는 총 15.3km에 달한다. 가까운 연안의 바닷물 온도가 35℃나 돼 냉각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가운 바닷물을 끌어들어야 한다. 설계·구매·시공 등 종합 공정률은 1~2호기를 합쳐 14% 수준으로 2017년 5월 1호기를 준공하고 이후 약 1년 단위로 2~4호기를 순차적으로 끝마칠 계획이다.

원전 운영권도 따내… 60년간 180억 달러 추가 수입

정부는 UAE 원전 수출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꽤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건설 현장에는 한국전력 직원 59명,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시공사 직원 200여 명을 포함해 한국 근로자 55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정부는 UAE 원전 4기를 건설·운영하려면 2020년까지 연도별로 1천~4천 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1호기가 준공되는 2017년에는 최대 4천307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UAE 측은 당초 준공 이후 원전 운전인력의 3분의 1을 자국민으로 투입하고 매년 10%씩 늘려나갈 심산이었다. 하지만 자국 내에서 운전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작년 말 우리 측에 원전 운영을 전담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과 운영에 투입될 인력은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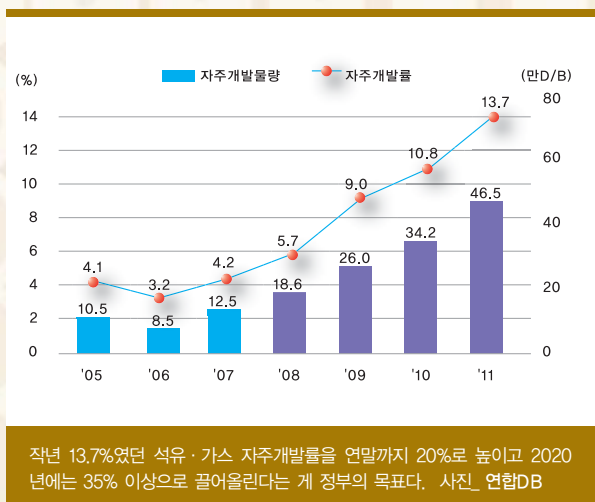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은 연내에 UAE원자력공사(ENEC)와 발전소운영지원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잡으면 3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이 확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요즘에 짓는 원전은 수명이 60년 정도 되므로 총 180억 달러를 더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전과 유전 이외에 금융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박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유전 개발 본계약 체결식에서 “금융 분야에서도 양국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에 아부다비 상업은행이 한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자금 유치가 유럽·미국계 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변동성이 극심한 국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UAE는 중동 내에서도 오일머니가 풍부한 나라로 꼽힌다.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운영하는 국부펀드는 약 6천3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우수한 인적 자본 및 기술과 아부다비의 지하자원 및 국부펀드가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UAE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중동 지역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제2의 중동 붐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희선 산업부 기자 hisunny@yna.co.kr



우리나라는 2009년 UAE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면서 유전 개발, 국방,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100년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파하드 알-카타니 UAE 원자력공사 대외협력국장(가운데)과 김희광 한전 UAE 원자력본부장이 원전 모형을 앞에 두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_강종구 특파원

사내하청 문제 마침내 해결 수순 밟나

대법원 '불법' 판결로 오랜 관행에 제동
산업계-노동계 입장 크게 엇갈려



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고용하면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나 도급은 민법상 계약이므로 법적 강제 장치가 없다. 사내하청은 파견이 아닌 도급이라며 규제를 피해 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며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Penta Press_ 연합뉴스

산업계와 노동계가 사내하청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2002년 입사했다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된 최모(36) 씨가 제기한 구제 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최 씨는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 일종의 도급이라며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제를 피해 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며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은 하청회사와 맺는 고용 형태를 간접 고용이라고 한다. 간접 고용에는 파견, 용역, 도급, 외주, 아웃소싱 등이 포함된다. 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현재 전문지식·기술·경험 등이 필요

한 32개 업종에 한해 허용되나 자동차 생산 같은 제조업은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등의 제조업에는 사내하청 형태의 간접 고용 방식이 널리 퍼져 있다. 파견과 도급(하청)은 그 업체가 실체적 회사인지, 근로자들의 지휘감독권을 가졌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갈린다. 파견이라면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고용하면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나 도급(하청)은 민법상 계약이므로 2년 이상 고용에 따른 법적 강제 장치가 없다.

최 씨는 현대차의 노무 지휘를 직접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게 지난 2월 하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대법원은 최 씨가 정규직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에 배치돼 일하고 현대차의 지시에 따라 일한 점을 들어 하청이 아닌 파견으로 간주했고, 근무기간도 파견법 개정 이전에 2년을 넘겼으므로 고용 의제에 따라 현대차 직원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등의 제조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내하청 방식의 고용이 관행화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해 노동계와 산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노동계 정규직 전환 목소리 확산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자동차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내하청 문제 해결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1천939곳을 조사한 결과 41.2%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 비율은 조선 61.3%, 철강 32.7%, 화학 28.8%, 자동차 16.3% 등이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현대차는 울산공장 23.5%, 전주공장 25.1%, 아산공장 34%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판결 직후 논평에서 “불법 파견이나 도급이나에 대한 쟁점이 명명백백하게 사법부 최고 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판결로 원청업체로부터 직접적 노무지휘를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장에 신규로 투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리해고로 내몰 수 있는 시간당 차량생산 대수, 인력, 신차 투입 등의 협상에서 비정규직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사측이 불법 파견을 도급으로 위장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인 셈이다.

이 같은 긴급 지침에 앞서 모든 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에 들어간 노조는 전체 사내하청 근로자 중 몇 명을 정규직화할 것이냐며 사측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이 3월13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현대차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재직기간이 2년을 경과한 노동자에 대해 당장 직접 고용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재계 “고용 위축 가져올 뿐”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사내하청 전체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내려진 것임을 애써 강조할 뿐 뚜렷한 입장을 선뜻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2월29일 답화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과 관련한 개인의 판결이며, 전체 사내하청을 대상으로 하는 판결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산업계 사내하청 문제를 정리할 계기라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 있어 그 파급력이 훨씬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는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고용 형태를 대규모로 전환하려면 산업계 인력구조와 생산라인 전반을 바꿔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재계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작년 4월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사내하청 도급 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동일 처우 제공이 의무화되면 자동차산업에서 연간 4천33억 원, 전 산업은 5조4천169억 원의 직간접 비용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계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은 “도급 계약을 통한 정당한 업무 부담”이라는 관행적인 시각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3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가 모든 사내하청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몰고 있다”며 “사내하청도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생산 방식으로 현대차 문제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로 노동계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사내하청 근로자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의 일방적인 법적 규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심화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더 위축할 수 있다”며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이나 국내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지연 산업부 기자 cherora@yna.co.kr

부자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신다

증권 · 은행 · 보험사 VIP 고객 집사 자처
과잉 무료 서비스 형평성 논란



금융사들이 부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부 공짜다. 물론 밀지는 장사라서 부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 고객의 주식거래수수료나 대출이자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없다. 사진_하사현 기자

부자 고객을 모시려는 금융권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저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시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양상이다.

슈퍼 리치, 초고액 자산가(UHNW), 최우량 고객(VVIP) 등으로 불리는 이들 부자 고객은 통상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의 금융자산을 굴린다. 하한선이라고 해 봤자 10억~30억 원이니 서민은 꿈에서도 만져 보기 힘든 거액이다. 금융권은 이들의 돈을 잡을 수만 있다면 집사든, 개인비서든, 개인교사든 가리지 않을 태세다.

부자, 그들은 누구이기에...

금융권의 최고 사냥감인 부자들은 평균 94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소득은 1억~3억 원 수준이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하나은행 프라이빗 बैं킹(PB) 고객 가운데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379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 파악한 내용이다.

그 결과 연소득은 1억~3억 원이 47%로 가장 많고 3억~5억 원 23%, 1억 원 미만 15% 순이며 5억 원 이상도 14%나

부자 고객들을 놓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단순히 고수익 약속에 그치지 않고 집사나 개인비서, 개인교사 등 굵은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문제는 부자 영업에 들어는 막대한 비용이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됐다. 소득의 원천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이 38%로 가장 많고 임대소득(29%), 금융소득(19%), 근로소득(14%)이 그 뒤를 이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가 42%로 제일 많고 학력은 대졸 이상이 94%이며 석·박사 비중도 24%에 달했다. 직업은 주부가 31.3%로 가장 많고 기업 최고경영자(CEO, 14.8%), 자영업자(13.5%), 전문직(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거액 계좌와 개인 금융자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국세청의 수입 규모별 분포, 하나은행의 내부 자료 등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2011년 현재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부자는 14만8천 명으로 추산됐으며 올해에는 15만9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들 부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429조 원 규모로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약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증권·보험사 무한경쟁

부자 고객들을 놓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목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들어 공략 대상은 종전의 1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의 초부유층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부자들은 재산을 여러 곳에 나눠 관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재산을 불리기보다는 유지하는 데 관심이 더 많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은행을 선호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다.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부자들이 금융사에 맡기고 있는 돈은 은행이 71%로 압도적으로 많고 증권사(17%), 보험사(9%), 투자자문사(3%)의 순이다.

신한금융그룹은 VIP(우량 고객) 마케팅을 강화하면서도 VVIP 마케팅을 차별화한다는 방침 아래 부유층을 상대하는 신한PWM센터를 8곳으로 확대하되 이중 2곳은 VVIP 전용 센터로 쓰기로 했다.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의 VVIP는 '프리빌리지(특권) 고객'으로 따로 분류해 투자는 물론 상속, 증여, 가업 승계, 부동산 자문 등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국민은행도 올 들어 강남과 명동에 예탁금 30억 원 이상



부자를 상대로 한 은행의 집사 노릇은 예술작품 투자나 골프 레슨, 자녀 유학 상담 등으로 갈수록 고도화, 세분화되고 있다. 사진제공_ 신한은행

고객만 상대하는 스타PB센터를 잇따라 열었다. 스타PB센터에서는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 기업컨설턴트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고객을 관리한다.

증권사들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적극적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VVIP시장 진입 경쟁이 꽤 치열하다. 증권사들의 VVIP 서비스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속, 가업 승계, 기업 경영 컨설팅, 절세 등 각종 부대서비스가 망라돼 있어 결코 은행에 뒤지지 않는다.

삼성증권의 VVIP점포인 SNI(삼성앤드인베스트먼트)센터는 모두 7곳으로 여기서 근무하는 시니어PB만 해도 66명이나 되고 관리하는 고객들의 자산은 8조 원을 넘는다. 삼성증권에 금융자산을 30억 원 이상 예탁한 고객만 해도 321명이나 된다.

우리투자증권의 VVIP센터인 프리미어 블루(Premier Blue)는 서울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와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곳에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그랜드인터컨티넨탈,

강남파이낸스, 센터원 등 3곳의 VIP센터에서 기존의 자산 관리 서비스에 기업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결합한 오피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강남파이낸스센터에 V 프리빌리지센터를 연 데 이어 올 상반기에 VIP 2호점을 부산에 낼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한술 더 떠 부(富)의 세대 간 이전과 승계까지 책임지는 가문(家門)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은 3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고객에 대해 가문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 패밀리 오피스'를 강남에 개설했다. "한국의 록펠러 가문을 만들어 준다"는 기치 아래 자산 관리는 물론이고 자녀 인성교육,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사회공헌 자문 등 명문가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생명은 내년에는 강북, 2014년에는 부산으로 서비스 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자 위해 뭐든 한다… 탈세·탈법 가능성도

과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는 금융권의 부자 마케팅에 대한 우려와 뒷말도 없지 않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탈세나 탈법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0억 원 이상 고객이라면 세무사나 애널리스트와 1대1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절세' 상담이 '탈세' 상담으로 바뀌고 특정 종목 정보 등이 은밀하게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 중에 내심 탈세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탈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못 박고 "다만 고객이 탈세를 원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내면서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사의 세무 상담 자체가 불법일 공산이 크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들은 대외적으로 세무 상담이나 세무 컨설팅 등의 용어를 쓸 수 없고 PB센터에서 세무 관련 내용을 자문하는 세무사는 '세무사'라는 직함을 내걸고 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가 자문료를 받고 잠시 일을 봐주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지만 세무사가 금융사에 적을 두고 세무사로서 일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설명하고 "그런 광고를 회사 차원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사들은 부자 고객들을 공략하면서 집사에서부터 개인비서, 개인교사에 이르기까지 어떤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단순히 고수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부자의 일상생활까지 책임지는 그야말로 생활에 밀착한 '토틸 케어'를 표방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컨시어지(Concierge) 서비스'라는 이름 하에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들에게 호텔과 레스토랑, 문화공연장, 뷰티와 헬스 등의 상품을 추천하고 예약을 도와준다. 한국투자증권도 10억 원 이상 고객에게 여행, 건강, 문화에 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을 대행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컨시어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집사 노릇을 한다는 뜻"이라며 "예전에 자산 50억 원을 맡긴 분의 딸이 자동차를 살 때 따라가 함께 보면서 조언해 준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국민은행은 올 들어 예약금 30억 원 이상 고객만 상대하는 스타PB센터를 잇따라 열었다. 여기서는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 기업컨설턴트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 고객을 관리한다. 사진제공_국민은행

삼성 패밀리오피스 Opening

2012. 1. 11(水)

SAMSUNG LIFE INSURANCE

SAMSUNG



보험사들은 부의 이전과 승계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은 3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고객에 대해 가문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 패밀리 오피스'를 개설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 사진 연합뉴스DB

집사 노릇은 예술작품 투자나 골프 레슨, 자녀 유학 상담 등으로 갈수록 고도화, 세분화되고 있다. 부동산, 세무, 법률 상담은 이미 고전에 속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자녀 교육, 승용차 구입, 자녀 결혼을 위한 맞선이나 상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아우른다.

우리투자증권은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예술작품 분석과 매매, 보험, 보관, 절세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우증권은 예탁자산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에게 프로골프 선수의 레슨을 실시하며 한국투자증권은 대표이사가 직접 초고액 자산가와 함께 필드에 나가기도 한다.

금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서비스가 생활 전반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라고 소개하고 “말하자면 이벤트성 문화 공연, 부동산 컨설팅, 결혼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돈 쏟아 붓고도 모두 무료… 형평성 논란

금융사들은 부자 상대 영업에 상당한 비용을 퍼부으면서 밀지는 장사를 감수하고 있어 일반 고객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금융사들은 노른자위 땅에 대규모 VVIP센터를

잇따라 열고 전문가를 수십 명씩 상주시켜 가며 부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당한 비용이 전제되는 서비스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금융사들은 그러나 이들 서비스의 대가는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부자 고객이기만 하면 된다. 1대1 자문이든, 집사나 개인비서 노릇이든, 부자일수록 비용을 더 물리는 게 아니라 전부 공짜다. 일반 고객에게는 이런 고품질의 서비스가 결코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물론 밀지는 장사다. 부자 고객들이 누리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 고객의 주식 거래수수료나 대출이자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 형평성 논란의 소지마저 없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산관리수수료도 아직 미미한 수준인 데다 고객 유치를 위해 예금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일쑤이므로 사실 VIP 영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사가 대대적으로 부자 마케팅에 나서는 데 따르는 비용을 결국 일반 고객이 충당하는 꼴”이라고 꼬집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차이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울 증권부 기자 yulsid@yna.co.kr

선거와 경제

선거 전에는 경기 부양, 선거 끝나면 초긴축
양대 선거, 부동산 경기 '쌍끌이' 할까
주식시장 선거 예보는 '흐림'

꼭 20년 만에 같은 해에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이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당국은 재원을 망각한 공약들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후보들이 쏟아낼 장밋빛 개발 공약이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가계부채와 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 변수의 힘이 훨씬 더 커 '선거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주식시장의 선거 기상도 역시 '흐림'이다. 표심에 쏠린 정치권이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대형 마트 휴업일 강제 지정 등 대기업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전문



선거 전에는 경기 부양, 선거 끝나면 초긴축

국내외 막론하고 ‘정치적 경기순환’ 뚜렷

선심성 복지 공약 남발...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의 마지막 보루'를 자처하며 급증하는 복지 지출 요구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취임사에서는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300전사가 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사진_안정원 기자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경제의 '선거 리스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꼭 20년 만에 또다시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몰린 상황에서 양대 선거가 우리 경제에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내놓고, 당국은 재원을 생각하지 않은 공약들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과연 선거가 경제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에 선거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토록 커지고 있는 것일까?

노태우 당선시킨 13대 대선 '정치적 경기순환' 가장 두드러져

우선 대선부터 들여다보자. 한국조세연구원의 박형수 박사과 송호신 박사는 최근 '정치적 경기·예산 순환 발생 사례 분석'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다. 과거 4차례의 대선을 전후해 경기 확장과 수축이 교차하곤 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재집권을 노리는 여권이 선거 이전에 경기를 띄울 목표로 확장정책을 쓰고, 선거가 끝나면 물가상승을 억제하려고 긴축정책을 펴는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iness Cycle)'이 이러한 분석의 토대다.

보고서는 민주화 항쟁에 힘입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의 13대 대선에서 2007년 17대 대선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대선 가운데 1992년 14대를 제외한 4차례 선거가 경기 정점 부근에서 치러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실업률, 물가상승률, 실질가처분소득 등 정책 성과의 지표들을 역대 대선 시기와 경기변동 전환점, 경제성장률 등과 일일이 대조한 끝에 얻은 결론이다.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의 13대 대선에서 2007년 17대 대선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대선 가운데 1992년 14대를 제외한 4차례 선거가 경기 정점 부근에서 치러졌다. 사진_이상학 기자

4차례 대선에서 선거 이전에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였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실업률과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발견된 것이다.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금융정책 관련 지표는 정치적 경기순환과 일치하는 현상이 뚜렷했지만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은 정치 일정과 그리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치적 경기순환과 재정정책의 상관관계는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명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13대 대선이 가장 뚜렷했다. 독재자가 정권 말기에 자신의 지명자를 후보에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풀어 경기를 호전시킨 정황이 고스란히 읽히는 대목이다. 정치적 경기순환과 재정정책의 상관관계는 13대 대선에 이어 15대, 14대, 17대 순으로 높았고 16대가 제일 낮았다.

선거 전엔 경기 확장, 후엔 긴축

박·송 두 박사가 분석에 적용한 정치적 경기순환론에는 정책당국자 혹은 정치인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정정책을 왜곡할 요인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미국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1975년에 처음 주장한 이론으로, 정치인

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에 앞서 호황이 이뤄지도록 확장정책을 채택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선거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편다는 것이 이론의 뼈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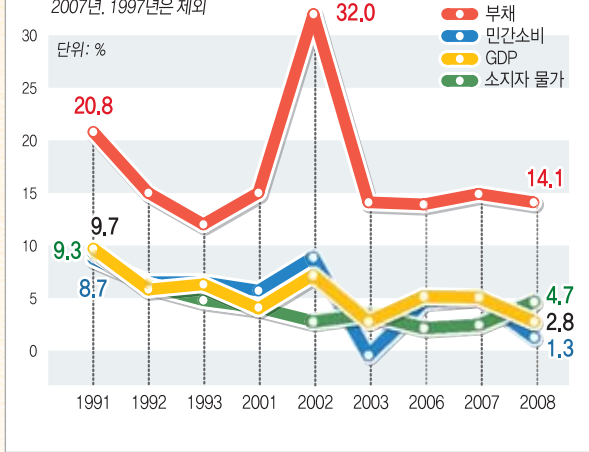
재집권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충관계를 이용하려는 행정부의 행동으로 인해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고, 이것이 경기순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특히 집권층과 여당이 차기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을 높이려고 재정정책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선거가 있는 해에 대형 국책 사업을 벌여 경기를 부양하거나 사회복지 지출을 대거 늘려 선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식이다.

노드하우스의 분석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이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정책(optimal policy)’은 선거 직전에 경기부양책을 채택해 경제를 팽창시키고 실업률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인기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재집권에 성공한 직후에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해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정치적 경기순환론은 한국의 과거 대선 사례뿐만 아니라

대선 당해와 전후년 주요 경제지표

대선 연도는 1992년, 2002년,
2007년, 1997년은 제외



자료제공 : 메릴린치

그래픽_ 배예슬 인턴기자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실증적 근거가 발견돼 단순 가설이 아닌 실증성을 담보한 이론으로 그 위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정치적 경기순환론을 잉태시킨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을 전후한 시기다.

닉슨은 첫 임기(1969~1972)의 후반기에 급격한 통화·재정 확장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썼다. 물론 재선을 노린 조치였다. 닉슨은 집권 초반 긴축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시행했다가 실업률 상승 등으로 정치적 압박이 심해지자 자신과 친분이 오랜 아서 F. 번즈를 1970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의장으로 임명했다. 연준은 그의 기대대로 1972년까지 확장적 통화정책을 계속했다. 돈이 대거 풀려 나가고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특히 실업률 등 고용 상황이 현직 대통령의 재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집권당과 현직 대통령은 선거가 있는 해에 고용을 늘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택할 유인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는 집권당이 의회 해산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선거일에 맞춰 경제 상황을 좋게 유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거꾸로 선거를 호황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한다.

정당 간 이념 차이 클수록 경제에 미치는 위험도 커

이념이 서로 다른 정당 간의 정권 교체가 경기순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정치적 경기순환론과 구분해 '당파적 경기순환론'이라고 부른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미국 민주당 등은 보수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공화당이나 영국 보수당 등은 그러나 진보 정당들과 달리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감세나 규제 완화를 옹호한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경은 민간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오며 특히 정권을 주고받는 두 정당의 이념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경제에 미치는 위험도 덩달아 커진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되거나 12월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당파적 경기순환론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미 발효된 상태에서 집권을 전제로 미국과의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 증세와 재벌 개혁 등을 주요 강령으로 내세웠다. 손익에 민감한 기업들은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두려워한다.

박재완 장관 '복지 포퓰리즘 맞서는 300전사' 자처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격렬한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양대 선거 리스크가 급속히 증폭되고 있는 것은 앞서 소개한 국내의 사례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가 재집권을 위해 확장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마구 내놓고 정부는 되레 그것을 막으려고 인간힘을 쓰는 양상이라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재정 건전성이다. 여야가 앞다투어 내놓는 복지 공약에는 재원을 망각한 무책임한 내용이 많다는 게 재정당국의 시각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댄 각종 공약을 쏟아내자 급기야 정부는 범(汎)정부 복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월20일 첫 복지 TF회의 소집에 즈음해 배포한 자료에서 정치권이 양대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소요돼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내놓고, 재정부국은 재원을 생각하지 않은 공약들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울 시내에 걸린 천반 플래카드, 사진 연합뉴스DB

공약을 분석한 결과, 소요 재원은 연간 43조~67조 원, 향후 5년간 220조~340조 원으로 추계됐다. SOC 시설 건설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외하고 두 정당의 순수 복지 공약 재원만 추산했는데도 한 해 나라 살림살이에 맞먹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다. 두 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 가운데 유사 또는 중복 부분은 단일 항목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소요액은 더 늘어나게 돼 있다. 게다가 대선 정국이 다가오면 어떤 공약들이 더 쏟아져 나올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길조차 없다.

나라의 ‘갯간지기’인 기재부는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 공약들은 현재 재정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대해 ‘일하는 복지’와 ‘지속 가능한 복지’ 등 복지 원칙에 맞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쓴소리도 거침없이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런 강력 대응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심에 서 있다. 박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재정 건전성의 마지막 보루’를 자처하며 급증하는 복지 지출 요구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취임사에서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300전사가 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시아판 사설을 통해 박 장관을 두고 이례적으로 “유럽과 미국은 그의 임기가 끝나면 빌려 갈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공약들이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을까? 조세연구원은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에 앞서 국가재정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이 선거철에 경쟁적으로 내놓는 공약의 비용을 추계한 정보와 국가재정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려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경고하자는 취지다. 박형수 박사는 ‘선거와 재정 관리’라는 보고서에서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올해 같은 해에 재정당국은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선거공약의 재정 추계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간을 권고하고 있다. OECD는 선거 2주 전까지 당시 재정 상황을 정확히 공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정 투명성 지침’(2002)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은 실제로 이 지침을 토대로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며 여야의 선거공약에 따른 재정 소요를 정부 부처 또는 출연연구기관이 객관적으로 추계해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연구원의 이런 제안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각 정파마다 표 얻기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구호는 정권 말기 경제관료들의 한낱 힘없는 메아리에 그칠 소지마저 있어 보인다. **m**

김용래 경제부 기자 yonglae@yna.co.kr

양대 선거, 부동산 경기 **쌍끌이** 할까

막대한 가계부채와 대외 여건이 큰 변수
부동산보다 복지에 쏠린 정치권 공약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는 뉴타운 개발 공약이 큰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부동산이나 경기 부양 공약보다는 서민 복지를 내세우는 후보에게 민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_김주성 기자

흔히들 선거는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쌍끌이’로 밀어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술술 피어오르는 것도 그래서다. 총선과 대선 후보들이 쏟아낼 장밋빛 개발 공약이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가능성도 있으니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가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실제로 역대 선거 연도의 전국 주택 가격 움직임을 들여다봐도 그렇다. 선거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데다 올해에는 가계부채와 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 변수의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선거 특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론에 설득력이 실리는 형국이다.

역대 선거,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은?

선거가 치러지면 각 당과 후보들은 저마다 표심을 사로잡고자 다양한 공약을 쏟아낸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의 하나가 부동산 관련 공약이다. 지역을 개발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만큼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인 카드는 많지 않다.

부동산 공약이 위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는 2000년대 초중반 ‘뉴타운 광풍’을 꼽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2년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며 도입한 뉴타운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과 투자자들에게 주거환경 개선과 집값 상승을 보장해 주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었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저마다 뉴타운 카드를 꺼내 든 결과 여당 후보들이 전통적 약세 지역인 서울 강북 일대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공약으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뉴타운 개



서울시가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단기적인 선거 호재가 끼어들 틈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아현뉴타운 3구역(담장 좌측)과 사업시행인가를 추진 중인 아현뉴타운 2구역의 모습이 대비된다. 사진_김주성 기자

발에 큰 힘을 보탠 것은 물론이다.

직접적인 부동산 관련 공약이 아니라도 선거 직전 정부와 여당이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에 주력해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경우도 많다. 당장의 경기 부양을 목표로 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늘어난 유동성이 투기세력을 통해 주택시장이나 토지시장으로 흘러들면 집값과 땅값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부동산114의 분석 결과 시중 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의 통화(M2)는 역대 대선 연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도별 M2는 2001년 57조 원에서 대선이 치러진 2002년 107조 원으로 경증 뛰었다가 이듬해인 2003년 26조 원으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대선 당시 통화량은 124조 원으로 전년도 128조 원에서 소폭 감소했지만 2005년 67조 원보다는 월등히 많았다.

부동산114 이다혜 연구원은 “선거를 앞두고 증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투자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택시장은 물론 토지시장도 주요 선거를 전후해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선거 영향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선거와 집값, 정말 관계있나?

그렇다면 실제로 주요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다른 해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볼 수 있을까? 국민은행의 ‘주

택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7년 이후 치러진 5번의 대선 당시 12월의 집값 상승률이 앞뒤 연도보다 모두 높았던 해는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뿐이다. 1997년 대선 때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2.0%로 1996년 1.5%나 1998년 -12.4%보다 높았다. 제16대 대선이 치러진 2002년에도 전국 집값이 16.4%나 급등해 2001년 9.9%와 2003년 5.7%에 비해 훨씬 두드러지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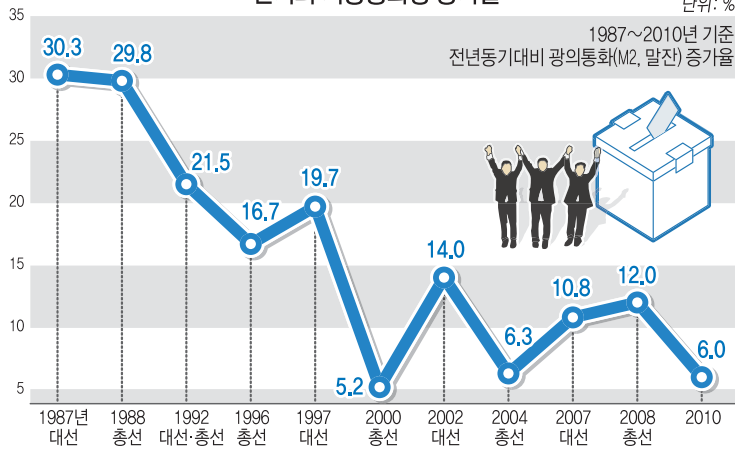
그러나 1997년은 IMF 사태라는 초대형 악재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이었다는 점, 2002년은 한일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출에 따른 막대한 경제 효과를 누렸다는 점에서 오로지 선거가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올해처럼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진 1992년에는 집값이 5.0% 떨어져 19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선거와 부동산이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국부동산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연구원에 따르면 1987년 이후 5번의 대선과 6번의 총선이 치러진 해의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3.98%로 선거가 없었던 해의 5.38%보다 오히려 낮다. 토지 가격도 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연평균 5.58% 올라 선거가 없었던 해의 5.61%에 못 미쳤다. 올림픽과 맞물린 1988년 총선과 월드컵 효과를 톡톡히 누린 2002년 대선을 제외하면 선거연도의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 부양 효과는 더 적을 수 있다. 통계를 보면 선거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끈다는 세간의 민

선거와 시중통화량 증가율

단위: %

1987~2010년 기준
전년동기대비 광의통화(M2, 말잔) 증가율



자료제공 : 한국은행

그래픽 : 김예원 인턴기자

음은 거의 미신에 가까울 정도다.

하지만 선거가 부동산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 1987년 대선 당시 전국 주택 가격은 7.1%가 올랐다. 서울올림픽 특수를 누린 이듬해의 13.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3저 호황(저금리, 저유가, 저환율)'과 더불어 선거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1997년 대선 당시에도 외환 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직전까지는 집값이 예년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탔다는 점에서 역시 일정 기간까지는 대선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대선과 총선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크게 떨어진 1992년은 주택 200만 가구 건설 사업으로 공급이 넘쳐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처럼 선거 자체가 지닌 파급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3저 호황이나 외환 위기 같은 대외 여건과 주택시장 수급 현황 등의 경제 변수가 부동산시장에는 선거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선거가 부동산시장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물경기"라고 분석하고 "선거보다는 금리, 주택 공급 현황, 각종 경제지표 등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는 어떨까?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져 부동산시장에 혼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1992년과 마찬가지로 선거 호재보다 주변 경제 상황이 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부동산시장의 선행지표를 보면 단기間に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주택 매매가격에 한발 앞서 움직이는 수도권 경매 낙찰가율 통계가 80%를 밑돌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다. 수도권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7월 80% 아래로 떨어진 이후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는 두 달 연속 72%대를 찍는 등 작년보다도 더 가라앉은 모습이다.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재건축 아파트 시세의 끝없는 추락도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탠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 결과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7.63% 떨어졌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작년 1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했다. 닥터아파트가 재건축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1년 내내 가격이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전 세계가 금융 위기에 휩싸인 2008년조차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연속 하락 기간은 10개월에 그쳤었다.

그중에서도 '만형' 격인 강남구의 재건축 시세가 작년에 10.83%나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라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통상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투자자 비중이 높은 강남권 재건축 시세가 주택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적어도 당분간 부동산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조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올 들어 서울시가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단기적인 선거 호재가 끼어들 틈은 더욱 비좁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과거 무분별하게 지정됐던 뉴타운 등의 정비사업구역 중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주민 반대가 많은 곳은 조속히 해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어서 재개발 거품이



선거가 부동산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1987년과 1997년 대선 당시에는 집값이 예년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탔기 때문이다. 용인시 수지 와 성남시 분당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_신영근 기자

빠르게 건힐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비율 강화와 용적률 상향 보류 등의 조치도 투기 이득을 노린 수요자들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차단하는 구실을 한다. ‘매머드급’ 재건축사업으로 관심이 높았던 개포 주공에서는 종전 소형가구의 절반을 재건축 이후에도 소형주택으로 지으라는 서울시 방침에 주민이 반발하면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선거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가장 막강한 제도장치는 바로 가계부채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작년 말 현재 913조 원으로 900조 원을 넘어섰다. 인구 1인당 1천900만 원, 가구당 5천200만 원의 빚을 진 꼴이다. 전 국민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내 집을 사라고, 땅을 사라고 유인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조차 부동산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공약을 함부로 내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의 반발이 큰 데다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기 때문이다.

DTI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담보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사들이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한 규제다. DTI 완화는 투기세력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뜰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부동산 개발이나 경기 부양 공약보다는 서민 복지를 내세우는 후보에게 민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규제 완화책이 선거 정국에 힘입어 전격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과급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 정부 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부동산 규제를 풀다보면 복지와 분배를 앞세우는 정치권이 12월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

강건택 산업부 기자 firstcircle@yna.co.kr

주식시장 선거 예보는 **흐림**

기업과 가계 양극화 해소가 정치권 ‘화두’
대기업에 비우호적인 정책 잇따라 도입 움직임



올해의 선거는 주식시장에 그리 우호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듯하다.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선거 국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PA_연합뉴스

예전부터 주식시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걱정보다 기대가 부각되는 경향이 있었다. 정치권이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경기를 부양한다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 결과와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1990년대 이후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 8번 중 주가는 5번이나 떨어졌다. 선거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거 국면에서의 경기부양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실증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금융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경제가 정치권력에 대해 갖

는 자율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고,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그대로 한국 시장에 복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제하기 힘든 대외여건을 중립으로 놓고 보면 올해의 선거는 주식시장에 그리 우호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듯하다.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선거 국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에서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가 강화됐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의 분배구조가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IMF 이후 구조조정과 수익성 중시로 나타났던 시장 논리의 강화는 자본 효율성이 제고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고 결국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귀결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에 귀속되는 몫인 노동소득 분배율은 IMF 구제금융 직전인 1996년의 62.6%에서 2010년에는 59.2%로 줄어들었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노동소득 분배율이 IMF 체제 이후 정체 내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GDP에서 기업에 귀속되는 몫인 법인기업이익 분배율은 1996년 3.9%에서 2010년 20.6%로 급증했다. 국민경제에서 창출해 내는 부(富)가 기업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의 경기 확장세는 과거의 경기 팽창국면보다 약했지만 주가는 탄력적인 상승세를 구가해 왔다. 경제지표는 경제행위자들이 처해 있는 평균적 상황을 나타낸다. 가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으나 기업은 상대적으로 나았고, 기업가치의 반영물인 주가는 이런 상황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평균치로서의 경기보다는 기업의 상황만 반영된 주가가 훨씬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표에 목맨 정치권, 기업에 양보 요구

표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의 양보를 요구하는 정책을 내놓기가 훨씬 쉽다. 특히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가 더 이상 강화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은 비자발적인 소비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행위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지난 십수 년간의 세계화나 시장주의의 확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가계의 희생을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렵게 됐다.

경기 후퇴 국면에서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이라는 측면에서 가계보다 기업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향후 여러 사안에서 기업의 양보를 요구하는 일련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동조합의 저항이든, 정부의 가격 규제든 주주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광범위한 도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감내해야 할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

복지라는 단어는 여야를 막론하고 단연 정치권의 화두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 한국 자본주의와 주식시장에 나쁜 것은 아니다. 양극화 패러다임으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단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물경제는 생산, 유통, 소비라는 장기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마우스 클릭 하나로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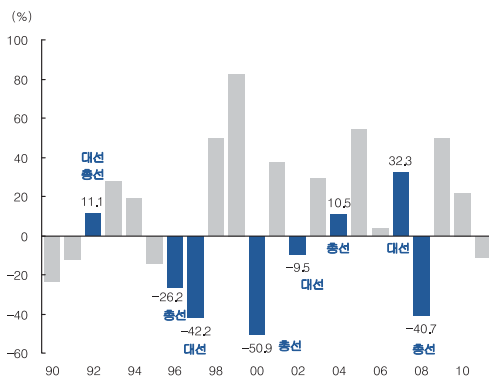
금융시장이다. 속성이 단기적이기에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당장의 주주 가치 훼손에 일단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시장이다. 한국 경제의 강자 중의 강자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대기업들이라는 얘기다.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법인세율 인하는 이미 물 건너갔고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증세 논의가 정치권에서 한창이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공유제 논의, 은행권에 대한 배당 자제 권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 도입, 산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 대형 마트 휴업일 강제 지정 등은 대체로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에 우호적이지 못한 조치들이다. 특히 관료들이 가격 통제력을 갖고 있는 내수 업종은 직접적인 규제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는 사회공동체가 스스로 가치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선택한 가치는 공평보다는 효율이었고 기업 규제 완화였다. 그러나 2012년의 시대정신은 정반대로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효율보다는 공평이 강조되고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이런 흐름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주주들에게 우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앞대 정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의 현주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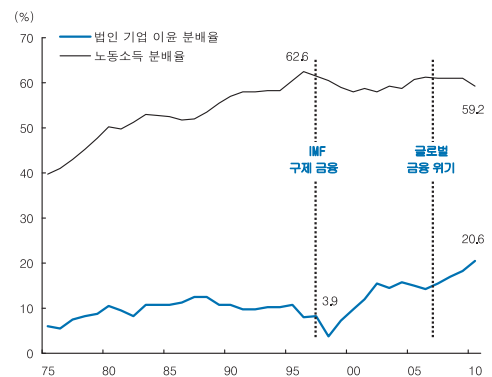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sigo1@naver.com

연간 KOSPI 등락률 - 선거가 있었던 해의 상승 확률 3/8



자료: Bloomberg

법인기업이윤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 - 기업 중심의 분배구조



자료: Bloomberg

“경인이 만들면 한국의 냉각탑 역사가 바뀐다”

냉각탑 외길 37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력

구제병 경인기계 대표



경인기계의 냉각탑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믿고 찾는 '명품'으로 통한다.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설치된 냉각탑. 사진제공_경인기계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보답하자.”

인천항 인근에 위치한 경인기계 정문에 게시된 사훈이다. 37년간 한눈팔지 않고 냉각탑 하나에만 매달려 온 경인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의 냉각탑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덕분에 경인의 냉각탑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믿고 찾는 '명품'의 반열에 올라 있다. 냉각탑의 본고장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동, 유럽 등지로 수출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1975년 인천에서 경인기계를 세운 구제병(67) 대표는 처음부터 냉각탑 한 품목에만 집중했다. 한 회사가 여러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던 당시의 업계 관행을 깨뜨린 과감한 전략이었지만 자금과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때 세계 최대 기업 미국 말리사(社)와의 기술 제휴가 전환점이 됐다. 구 대표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어이 제휴를 성사시킴으로써 경인을 국내 냉각탑 선두 기업으로 올려놨다. 우쭐할 법도 했지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해 한국형 냉각탑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뤄 냈다.

경인은 몇 년 전부터 친환경에 집중하고 있다.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레지오넬라균을 제거하는 친환경 냉각탑 '에코 다이아칼'은 기존 제품에 비해 물과 동력이 30%가량 적게 들어 경제성도 뛰어나다. 겨울철 화재 연기로 오인 받곤 하는 '백연'을 방지하는 신개념 냉각탑도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고객을 위한 노력도 각별하다. 고객이 홈페이지에 남긴 글은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구 대표에게 곧바로 전달돼 최대한 신속히 응대한다. 3개의 사후관리(AS)반이 전국 구석구석을 정기 순회하며 AS는 물론이고 사전관리(BS)도 시행한다.

지난 2009년에는 구 대표가 남몰래 해온 선행이 연합뉴스를 통해 처음 알려지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새터민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 환자들의 치료비도 대준다. 기사가 나가기 전에는 직원들조차 몰랐더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다음은 구 대표와의 일문일답.

Q 40년 가까이 냉각탑 한 우물만 판 이유는?

A 당시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공조기, 밸브, 덕트 등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만들었다. 여러 품종을 생산하면 수익은 안정적일지도 몰라도 품질 개선을 통한시하기 마련이라



“미국 말리와 제휴하고 보니 남의 기술을 빌려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경인기계의 독자 노선을 가능케 한 한국형 냉각탑은 국제적으로 그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각국에 진출한 말리가 유독 한국에만 못 들어오는 이유는 경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더 규모 있는 회사로 도약하기가 어렵다. 1975년 인천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한 가지 품목에만 집중해 일등 기업이 되 자고 마음먹었다. 성장 가능성이 큰 품목을 찾던 중 냉각탑 이 눈에 들어왔다. 산업이 한창 발전하고 빌딩도 급격히 느 는 추세여서 전망이 밝다고 생각됐고 눈독 들이는 업체가 드물어 경쟁이 약한 점도 매력적이었다.

Q 국내 냉각탑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A 대략 1천억~1천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냉각탑은 건물 의 냉방설비나 산업 현장의 기계에서 발생한 열을 물과 공 기로 식히는 기계다. 특히 사용된 물을 재활용하므로 유엔 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인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경인기계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의 냉각탑 역사로 통한다. 경인의 주 거래처는 삼성건설, 삼성전자, LG화학, LG전자, 이마트, 인천공항, 한화63시티, 포스코 등 굴지의 대기업이 다. 경인의 냉각탑이 있느냐 없느냐로 건물이나 공장의 수 준을 가늠하는 게 업계 통념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다.

Q 업계 선두로 발돋움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

A 자본금, 기술, 인력 등 부족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 총체 적 난국을 타개하려면 기술 제휴만이 돌파구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세계 최고의 냉각탑회사는 미국 말리였다. 말리와는 접촉조차 여의치 않아 고심하던 차에 우연히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 재직 중이던 지인이 한국에 일시 귀국했다가 나의 어려운 처지를 듣고는 도움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실사를 위해 날아온 말리 심 사단은 초라한 회사 규모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열의 가 통했는지 결국 도움을 약속했다. 우여곡절 끝에 4년여 만 에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고 어렵사리 돈을 끌어모아 로열티 를 지불했다.

이후 경인의 위상은 거짓말처럼 달라졌다. 전에는 입찰 에서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으나 말리 로고가 박힌 명함만 으로도 환대받았고, 심지어 은행 대출 심사도 홍보 전단 한 장으로 무사통과였다. 한 차원 높은 기술력을 선보인 덕분 에 고객이 회사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졌다. 말리와 의 기술 제휴는 운과 시기, 노력이 만든 기적이다. 그때만 해도 선진국들이 원조 차원에서 기술을 저개발국에 이전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요즈음 같으면 어렵도 없는 일이 다.(웃음)

Q 말리와의 제휴는 지속되고 있나?

A 그렇지 않다. 제휴 초기부터 남의 기술을 빌려서는 한계 가 있다고 보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에 재투자했다. 국 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던 원형 냉각탑은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동력 소비가 클 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진동 저감 기술도 형편없었다. 통째로는 차에 싣기도 어려울 정도로 커서 수많은 부품을 현장까지 싣고 가 조립해야 했기 때문 에 물류비와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동력을 많이 쓰지만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효율인 미국 제품과 저출력이지만 동력을 덜 쓰고 크기가 작은 일 본 제품의 장점만 취해 한국형 냉각탑을 개발했다. 무엇보다도 동력 효율이 높아졌고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여 냉각 탑 성능의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는 'CTI 성능 인증'을 미국 이외의 나라로서는 처음으로 획득했다. 또 크기가 작고 모 양이 직사각형이라 완제품 그대로 싣고 가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외관도 미려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굿 디자인 (GD)' 마크도 달았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자 흔히 말하는 '대박' 이 났다. 그즈음 제휴기간이 끝나자 말리에서 먼저 합자를 제안했지만 고심 끝에 거절했다. 우리만의 기술을 확보했기에 독자 노선을 걷기로 한 것이다. 세계 각국에 진출한 말리이지만 유독 한 국에만 못 들어오는 이유는 경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Q 요즈음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나?

A 산업 전반에 불어 닥친 친환경 바람은 냉각탑이라고 예 외가 아니다. 2009년에 나온 친환경 냉각탑 '에코 다이나 쿨'은 이러한 흐름에 딱 들어맞는 제품이다. 1976년 미국 필라델피아 재향군인회 모임에서 34명의 사망자를 낸 이 후 '재향군인병'이라고도 불리는 레지오넬라병은 냉각탑 이나 배관시설, 가습기 등 따뜻한 물이 있는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고 화학약품을 투입하면 다량의 폐수가 배출돼 또 다른 오염 을 유발한다.

에코 다이나쿨에는 화학약품 없이 물을 살균하는 항균 충 진재 '레지오 프리'가 설치돼 있다. 충진재는 물과 공기가 접촉하는 부분으로 냉각수가 가장 오래 머무르는 냉각탑의 핵심 부품이다. 레지오 프리는 은과 맥반석, 제올라이트 등 천연광물 소재로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항균 기능을 고스란히 유지한다. 더구나 물과 동력도 30%가량 적게 들어 경제적

이기도 하다. 겨울철 종종 화재 연기나 공해물질로 오인받는 백연의 발생을 막는 새로운 개념의 백연 방지 냉각탑도 특허 출원 중이다. 이 제품은 배관과 팬을 내부로 집어넣어 소음을 크게 줄였고 상하좌우의 진동을 잡아 주는 첨단 방진스프링을 달아 빌딩의 옥상공원 옆에 설치해도 안전하고 보기에도 좋다. 일반인은 이 제품을 통신장비로 오인하는 예도 많다.

Q 해외로 수출도 하나?

A 2002년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 중동, 유럽 등지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 특히 냉각탑 수요가 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는 2007년 중소기업 최초로 진출해 지역냉방공사인 타브리드와 협력사 계약을 맺는 등 빠르게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에서 두바이 시장 진출을 위해 자문하러 오기도 했다.

Q 홈페이지를 보니 고객을 위한 노력이 각별한 듯하다.

A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남긴 고객의 글은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 이메일로 전송된다.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 고객에게 보답하자’는 경영 방침의 일환으로 대표가 직접 고객 의견을 듣고 최대한 빨리 응대하기 위해서다. 또한 3개의 AS반을 구성해 전국 구석구석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신속한 AS는 물론이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BS 체제를 구축했다.

Q 사내 중창단이 화제다.

A 15년 전 노래를 좋아하는 직원이 하나둘 모여 시작된 사내 중창단은 이제 경인의 또 하나의 얼굴이 됐으며 직원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성악 전문가와 반주자를 초빙해 연습하고 있으며 전문 중창단 못지않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2010년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 대통령의 대화’에서 공연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Q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다.

A 전 직원이 10년 전부터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무료급식소를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1% 나눔 운동’으로



경인기계의 사내 중창단은 회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얼굴이다. 전문 중창단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표해 청와대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사진제공_경인기계

발전해 각자 급여의 1%를 어려운 곳에 쓰라고 내놓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새터민 대학생 등록금, 인하대병원 소년소녀 가장 치료비, 연세대병원 암센터 발전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는 게 당연하므로 말하는 자체가 부끄럽지만 다른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

Q 청년 취업난이 극심하다. 청년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면?

A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똑똑하고 창의적이다. 만일 지금 그네들과 경쟁하려면 자신 없다.(웃음)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제갈공명이 천문지리에 능통하지 않았다면 적벽대전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것을 예측했겠는가? 부지런히 공부해 역량을 갖춰 놓으면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온다. 그리고 기회가 왔다 싶으면 전력으로 붙잡아라.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는 비가 적게 내려 적의 주의를 분산시킬 폭격을 지속할 수 있었던 천운도 크게 작용했지만 불과 2시간 만에 점령을 끝낸 맥아더 장군의 치열함이 결정적이었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탓으로 작전은 3시간 이내에 끝내야 성공할 수 있었다.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결연함이 돋보이는 사례다. m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

10만 배달 업소가 앱 하나에 쏙

골목상권 수호자를 자처한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먼저 맛본 사람들의 평점과 후기가 남겨져 있어 검증된 맛집을 고를 수 있고 메뉴만 정하면 가장 가까운 업소부터 나열되는 게 장점이다. 사진제공, 우아한형제들

야외 나들이에 도시락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나 막 이사 가서 주변 배달업소의 전화번호를 모를 때에는 참 난감하다. 하지만 스마트폰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21세기 최첨단 전단'을 표방하는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전국 10만여 배달업소의 정보가 담겨 있다. 먼저 맛본 사람들의 평점과 후기가 남겨져 있어 검증된 맛집을 골라낼 수 있으며 메뉴만 정하면 가장 가까운 업소부터 나열되는 것도 매우 편리하다.

지난해 '스마트앱 어워즈 생활서비스 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하고 300만 명 이상이 찾은 '배달의민족'은 '우아한형제들'이라는 특이한 사명의 벤처회사가 개발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회사는 형제인 김광수(39) 이사와 봉진(37) 대표가 공동 창업했다. 형은 시스템통합(SI)업체에서 프로그래머로, 동생은 네이버와 네오위즈 등 포털사이트에서 웹디자인으로 각각 10년 이상 근무하며 내공을 쌓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일찌감치 스마트폰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형을 설득해 2009년 함께 회사를 뛰쳐나왔다.

형제가 주목한 것은 한 해 10조 원이 넘는 배달요식업. 업체 대부분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홍보 전단의 부족한 부분을 스마트폰 기술로 메울 수 있다고 봤다. 초기에는 "사기꾼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만 이제는 무작위로 업소를 방문해도 10명 중 9명은 '배달의민족'을 알고 있을 정도다. 신규 등록 업소는 하루 약 1천 곳에 이르고 주문전화는 월 100만 건을 넘는다. '배달의민족'의 승승장구에는 전단의 10분의 1 수준인 저렴한 광고료와 홍보 효과를 바로 알 수 있는 '콜멘트'가 주요했다. 콜멘트는 주문전화 연결에 앞서 "배달의민족을 통한 전화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도록 한 특허 기술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작년 7월 국내 투자사 본엔젤스에서 3억 원, 최근 미국 투자사 알토스벤처스에서 20억6천만 원을 각각 유치했다. 투자자들은 무엇보다도 '우아한형제들'이 고객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회사라는 데에 높은 점수를 줬다. 즐겁고 말랑말랑한 회사를 만들자는 뜻에서 재미있게 사명을 지었지만 사훈은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연상되는 벤처답지 않게 '근면성실'이다. 회사가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끼가 넘치는 천재보다 근면성실한 일꾼이 더 많아야 한다는 신념에서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은 '우아한형제들'이라는 벤처회사가 개발했으며 이
름에서 알 수 있듯이 김광수(우)·봉진 형제가 공동 창업했다. 사진. 김영대 기자

“우리의 목표는 정보기술을 활용해 배달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가용한 모든 기술을 동원해 골목상권 수호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 소비자 불만을 업주에게 전달해 개선시킴으로써 맛좋은 음식 배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Q ‘배달의민족’은 종이 전단과 무엇이 다른가?

A ‘배달의민족’을 키고 한식, 치킨, 피자, 중식 등의 메뉴 중 하나를 고르면 현재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업소가 나열된다. 도시락 없이 야와 나들이 갔을 때나 막 이사 가서 주변 배달업소 전화번호를 모를 때 대단히 유용하다. 전단과 비교하자면 우선 정보의 양이 상대가 안 된다. 가정집에 흔히 배포되는 40여 쪽짜리 전단책은 40~50개 정도의 업소만 소개되지만 ‘배달의민족’에는 10만 곳 이상의 방대한 업소 정보가 담겨 있다.

안심하고 시킬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전에는 실제로 시켜 봐야 맛이 있는지, 배달은 빨리 되는지 등을 알 수 있었지만 ‘배달의민족’은 소비자가 남긴 평점과 후기를 통해 검증된 맛집 선택이 가능하다. 정보기술(IT) 강국답게 거의 모든 성인이 스마트폰을 가졌다는 점도 큰 경쟁력이다. 요즘에는 집집마다 전단을 배포하기가 쉽지 않다. 쓰레기가 생기고 보안에도 문제가 많으며 아예 배포 자체를 막는 아파트단지도 꽤 있다.

Q 업주들의 반응은 어떤가?

A 처음에는 참 힘들었다. 전단을 보고 해당 업소에 찾아가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라고 권했지만 쉽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홍보가 가능하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웠고 심지어 “사기꾼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전단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 쓰레기통을 뒤진 적도 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대접이 확 달라졌다. 무작위로 업소를 방문해도 10명 중 9명은 ‘배달의민족’을 알고 있다.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제가 배달의민족 직원입니다”라고 했더니 주변 업주들이 상담하겠다고 몰려온 적도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확고부동한 선두 주자로서 앱 내려받기는 진작 300만 건을 돌파했다. 신규 등록 업소가 하루 약 천 곳에 달하고 주문전화는 초당 4건, 월 100만 건을 넘는다. 오픈서베이의 조사 결과 스마트폰 광고는 불과 2년여 만에 전단시장의 3분의 1을 대체했으며 성장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Q ‘배달의민족’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A 소비자와 업주 사이에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상거래에서 인터넷에 의한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유독 배달업은 그렇지 못했다. 소비자는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별로라고 느끼면 안 시키면 그만이고, 업주는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이유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유선 전화 대신 스마트폰을 쓰면서 소비자가 의견을 쉽게 남길 수 있게 됐고, 업주는 소비자의 불만을 그때그때 알게 돼 문제 개선이 용이해졌다. 실제로 소통과 개선에 적극적인 업주는 엄청난 매출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폐업 직전이었다가 ‘배달의민족’에 등록한 후 월 700통의 주문전화가 몰리며 기사화됐던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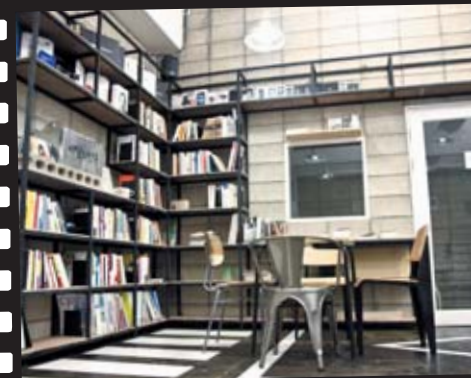
전단과 비교해 저렴한 광고비도 한몫했다. 전단 광고는 한 번 나가는 데에 20만 원가량 들지만 ‘배달의민족’은 수도권·광역시시는 월 3만3천 원, 다른 지역은 월 2만2천 원만 내면 된다. 포털사이트처럼 돈을 많이 낼수록 높은 곳에 올려주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업소가 최상단에 보이도록 구성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 전단과 달리 홍보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주문전화 연결에 앞서 “배달의민족을 통한 전화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는 ‘콜멘트’ 특허 기술 덕분이다. 콜멘트를 도입한 뒤 90% 이상의 업주가 재계약을 원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Q 배달요식업에 주목한 계기가 있나?

A 일찌감치 해외에서 스마트폰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눈여겨보다가 국내에 스마트폰이 도입될 무렵인 2009년에 창업했다. 전화와 관련한 여러 사업을 살핀 끝에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업종이 배달음식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한국요식업중앙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내 요식업시장의 규모는 약 50조 원에 이르고 배달요식업은 그 중 20%인 1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통닭시장만 해도 5조원 대다. 금융 위기와 취업난으로 시작된 창업 붐 덕분에 전망도 대단히 밝다. 그러나 거대한 시장 규모와 긍정적인 전망에 어울리지 않게 홍보 수단은 예전 그대로다. 종이 전단의 부족한 부분을 스마트폰 기술로 메운다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Q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A ‘배달의민족’의 목표는 IT를 활용해 배달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가용 기술을 총동원해 골목상권 수호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픈 생각이다. 소비자 불만 청취→업주의 개선→맛 좋은 음식 배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우아한형제'들의 사훈은 벤처답지 않게 '근면성실'이다. 회사가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끼가 넘치는 천재보다 근면 성실한 일꾼이 더 많아야 한다는 김봉진 대표의 신념이 배어 있다. 사진제공_우아한형제들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나아가 업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과 세금 상식, 식자재 구매 정보 등도 알려 주고 매출 증대에 기여할 온라인 결제 방식도 개발 중이다. 현금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다른 가맹업소에서도 쓸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Q 지난해부터 투자 유치가 잇따랐다.

A 국내 투자사인 본엔젤스에서 작년 7월 3억 원을 투자받은 데에 이어 7개월 만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알토스벤처스에서 총 20억6천만 원을 유치했다.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우아한형제들'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회사라는 데에 높은 점수를 줬다. 대부분의 벤처는 엔지니어 중심이어서 고객과 직접 만나 개선점을 도출하는 속도가 느리지만 '우아한형제들'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빠르게 개선한다는 것이다. 본엔젤스는 동일 업종 10개 회사를 비교한 끝에 우리를 선정했고 알토스는 6개월간 치밀하게 시장 조사와 사업 역량을 검증한 끝에 투자를 결정했다.

Q 사명이 독특하다. 무슨 의미인가?

A '우와!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아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즐겁고 말랑말랑한 회사를 만들자는 뜻에서 되도록 재미있게 지었다. 처음 들으면 웃는 사람이 많지만 누구나 한번에 기억해 준다. '형제들'은 함께 창업한 친형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원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다. 직원 대부분이 10년 이상 IT업계에서 형, 동생 하던 동료들이다. 최근에는 여직원들이 많아져서 '형제자매들'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고심 중이다.(웃음)

Q 사훈은 그러나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벤처답지 않다.

A '근면성실' '새 시대 새 일꾼' '근검절약'이 회사의 핵심 가치다. 회사가 지속해서 발전하려면 끼가 넘치는 천재보다 근면성실한 일꾼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엔젤스에서 투자를 받을 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잘 만들 자신은 없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끝까지 만들어 낼 자신이 있다"고 말한 게 주효했다. '새 시대 새 일꾼'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고객들이 나타내는 기호의 흐름을 주시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근검절약'은 아끼고 남겨서 사회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m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



한미 FTA 발효, 무역강국 도약 호기

세계 경제의 60.9%가 대한민국 무역영토
제도·관행 개선 등 과제도 산적... 부작용 최소화해야
자동차·섬유업계 반색, 농수산업계 위기이자 기회
4년10개월 만의 발효, 엇갈리는 환영 vs 폐지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로 인한 경제 효과에 대해 향후 15년간 대미 수출은 13억 달러, 무역 흑자는 1억4천만 달러가 각각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은 35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부산항 신산대부두. 사진 연합뉴스DB

한미 FTA가 3월15일 오전 0시에 공식 발효됐다. 2007년 4월 FTA 협상이 타결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FTA를 통해 21세기 무역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게 됐다. 세계 GDP의 23.7%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무관세 교역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의 경제영토가 세계 경제의 60.9%로 넓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구조 왜곡, 농어촌 붕괴, 빈부 격차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오전 0시에 공식 발효됐다. 2007년 4월 FTA 협상이 타결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FTA 발효와 함께 양국은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섬유와 농산물을 뺀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은 우리나라가 7천218개(85.6%), 미국이 6천176개(87.1%)에 각각 달한다.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FTA 발효 4년 후 완전 철폐되며, 농업 분야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도 관세가 즉각 사라진다. 품목 수 기준으로 37.9%, 수입액 기준으로 55.8%가 여기에 해당한다.

쌀과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오렌지(수확기), 식용 대두, 식용 감자, 분유, 천연 꿀 등 국내 외 가격 차이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에 따른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 쿼터를 제공한다.

우리 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 우리나라는 쇠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해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시켰다.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미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7%를 차지하는 거대시장

이다. 미국과의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연간 교역 2조 달러의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후유증도 예상된다. 특히 야권은 집권하면 미국과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고 나아가 일각에서는 폐기시키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향후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라서는 한미 FTA가 출범하자마자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러나 “한미 FTA라는 과일나무가 잘 자라 누구나 과일을 맛볼 수 있으려면 심는 노력 못지않게 가꾸는 정성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한미 FTA를 저해하는 복잡한 유통구조, 각종 규제 등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해 FTA 효과를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절차, 산업 동향, 수요 전망 등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對) 기업 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ISD 민간 전문가 태스크 포스를 운영해 일부 국민의 오해와 걱정을 차근차근 털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재차 약속했다. 

고일환 경제부 기자 koman@yna.co.kr

구정모 경제부 기자 pseudojm@yna.co.kr

제도·관행 개선 등 과제도 산적



한미 FTA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 과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FTA를 통해 21세기 무역강국을 향해 도약할 기회를 맞게 됐다. 그러나 산업구조 왜곡, 농어촌 붕괴, 빈부 격차 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는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독(毒)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 발전 낙관론 대두 한미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 교역 규모는 처음

으로 1천억 달러를 넘었다. 수출 562억 달러, 수입 521억 달러였다. 통상교섭본부는 “FTA가 시행되고 있는 칠레, 아세안, 인도 등과의 교역액 증가 속도를 보면 시행 이후 무역액이 20~30% 정도 증가한다”고 밝히고 “전 세계 경기 침체 영향을 받겠지만 FTA 발효로 한미 간 교역량은 적잖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들은 경제 효과에 대해 향후 15년간 대미(對美) 수출은 13억 달러, 무역 흑자는 1억4천만 달러가 각각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은 35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우리의



거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에 대해 정부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기념 기자간담회. 사진: 윤태현 기자

주력 업종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반도체 등이 FTA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것으로 보인다. 관세 등 거래비용이 줄고 통상 마찰이 완화돼 그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덕분이다. 이들 공산품의 수출 증가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가 절감과 고용 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값싼 농수산물과 질 좋은 공산품을 살 수 있게 돼 국민후생과 생산성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이 커져 대기업 외에 중견·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한미 FTA는 국가 신인도를 높여 투자 유치나 국외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뿐더러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 향상, 기업의 외자 조달비용 감소, 증권시장 도약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 하지만 준비 없는 개방, 노력 없는 개방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면서 선진 경제 진입을 확신하던 멕시코가 빈부 격차, 문화 종속,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로 몸살을 앓

은 것이 단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거대 경제권과의 관세 철폐가 빈부 격차 확대, 선진국 경제로의 동조화 심화,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기반의 붕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은 아웃소싱이나 임금 삭감을 통한 재래적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비주력 업종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하기보다는 핵심 산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흉내 내기 제품으로는 선진 기업을 이길 수 없고 선진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다.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역을 늘릴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과 정보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영업, 농업 등 취약 업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의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당장 FTA 이후 농어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한미 FTA 발효 5년 차에 농어업 생산액이 7천26억 원, 10년 차에 1조280억 원, 15년 차에는 1조2천758억 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해 평균 8천445억 원이다.

정부는 올해 초 FTA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세금 혜택 30조 원, 재정 지원 24조 원 등 모두 54조 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을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10년간 축산발전기금 2조 원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그러나 갈라질 대로 갈라진 국론 분열 현상이야말로 한미

FTA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 만큼 해결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폭넓은 여론 수렴과 대화 등을 통해 상호 이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 기업,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하는 이유다. 

고일환 경제부 기자 koman@yna.co.kr

ISD 재협상 어떻게 되나



긴여정 끝에 한미 FTA가 발효됐으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정부는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이 조항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가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을 전면 반대한다'고 공표했다. 총선과 대선 후 한미 FTA가 파행을 겪을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외교통상부는 발효일자가 정해진 다음 날인 2월2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가동해 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는 FTA 발효 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양국 정부의 협의체 중 하나다. 이 위원회에서 ISD의 수정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정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중재나 조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 국제공법과 통상법에 조예가 있는 학계 인사나 변호사 등으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ISD에 대해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간 이견이 커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공공정책의 침해, 분쟁 해결 절차의 편파 판정, 사법주권 훼손 등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을 없앨 방안을 찾아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지만 ISD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다고 재차 공언했다.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정도다.

야권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ISD 폐기를 주



미국산 포도주를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내건 롯데마트 서울역점 포도주 매장. 국내 소비자들은 한미 FTA 발효로 값싼 농수산물과 질 좋은 공산품 등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이상학 기자

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한미 FTA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FTA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2월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야권은 총선을 앞둔 연대 협상에서 한미 FTA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야권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ISD는 외국인 투자 유치, 국내 기업의 외국 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규정"이라며 폐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구정모 경제부 기자 pseudojm@yna.co.kr



자동차 · 섬유업계 반색



1960~70년대에 수출을 주도했던 섬유업계는 섬유 분야에서 최대 32%의 관세가 폐지돼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_서명곤 기자

한미 FTA 발효로 업종별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 섬유업계는 수출을 늘릴 기회라며 분주한 반면 전자, 정유 등은 이미 무관세가 시행 중이거나 미국과 교역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무덤덤한 분위기가 뚜렷하다.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판로가 열린다는 기대와 생존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최대 수혜 기대 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업종으로 꼽힌다. 승용차 관세는 두 단계를 거쳐 철폐된다. 2015년까지는 2.5%의 미국 측 수입관세는 유지되고 8%의 한국 측 수입관세는 4%로 줄어든다. 이어 2016년부터는 양측 전 차종에 대한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협정이 발효되면 통상 마찰이 줄고 한국 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져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미국 수입 관세가 없어지면 판매가를 낮출 수 있어 미국으로

의 수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와 함께 없어진다. 현재 2.5~4%의 미국 측 관세와 최대 8%인 한국 측 관세가 바로 없어지면 국내 부품업체들의 대미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완성차업체들도 한국 내 판매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했던 섬유업계도 기대가 크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 분야에서 평균 13.1%, 최대 32%의 관세가 폐지돼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회는 15년간 연평균 4천800억 원의 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신규 투자와 고부가가치 섬유 개발 등이 이어져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항공업계와 해운업계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물동량이 늘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이 최근 B747-8F 등 적재량이 큰 최신형 화물기를 사들이고 아시아나항공이 2010년 애틀랜타, 2011년 마이애미와 포틀랜드에 화물기를 신규 취항한 것도 FTA 발효를 대비한 포석이었다.

전자·정유 등 “별 영향 없다”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지 않거나 이미 관세가 사라진 업종에서는 FTA 발효와 관련해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정유업계는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철강업계는 이미 무관세가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자업계도 FTA에 따른 혜택은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휴대전화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TV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 최대 가전제품시장이지만 FTA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시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외환 위기 당시 문화 개방 등으로 이미 빗장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 건설업계는 공공 조달시장이 1997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으로 이미 개방됐고 민간 투자시장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무덤덤하다.

중소기업들, 기대·우려 교차 중소기업계는 판로 개척에 대한 기대와 경영 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부품·중공업 분야 등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는 한미 FTA 발효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업종에 꼽힌다. 승용차 관세가 두 단계에 걸쳐 철폐되면서 국내 완성차업체는 통상 마찰이 줄고 한국 차에 대한 미국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져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사진: 장영은 기자

“FTA는 미국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국외 수출 상위 5개 품목인 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선박, 플라스틱제품의 판매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경영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FTA는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미국 대형 업체들의 침투 탓에 생존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의 중소기업들은 FTA의 혜택을 보겠지만 의류기기, 화장품, 제약, 서비스산업 등에서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m**

박성제 산업부 기자 sungje@yna.co.kr

농수산업계엔 위기가자 기회



한미 FTA 발효로 농수산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값싼 농산물이 미국에서 대거 유입되면 국내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FTA의 악영향을 줄이려고 대책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좀처럼 믿음이 가지 않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많아져 미국 상품과 한판 승부를 벌일 만하다는 분석도 있다.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보다 훨씬 넓은 미국 농수산시장을 잘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FTA 대비 세제 30조 원·재정 24조 원 지원 기획재정부



한미 FTA 발효로 농수산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값싼 농산물이 미국에서 대거 유입되면 국내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 이상학 기자



한미 FTA 발효를 하루 앞둔 3월14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대한항공 화물기들이 미국에서 도착한 수입화물을 내리고 있다. 사진 김현태 기자

와 농림수산물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FTA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세금 혜택 30조 원, 재정 지원 24조 원 등 모두 54조 원을 농어업 등 피해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업 생산액이 한미 FTA 발효 5년 차에 7천26억 원, 10년 차에 1조280억 원, 15년 차에 1조2천758억 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 축산업을 지원하려고 올해부터 10년간 축산발전기금 2조 원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축산업은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천993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9.7%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 보전 직접 지불제(직불제)의 지급 기준을 종전보다 10% 포인트 완화하고 보전 비율도 5% 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면 법인 5천만 원, 개인 3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의 90%를 보전받는다.

밀, 콩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 원을 지급하는 밭 농업 직불제와 육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 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도 도입했다.

수출경쟁력 강화 모색 정부는 FTA 피해를 줄이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FTA를 농수산식품의 수출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FTA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 시장이 열리는 만큼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농어업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시설 현대화 예산을 작년 2천450억 원에서 올해 4천109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 보조 없는 용자는 대출금리를 연 3%에서 1%로 내렸다. 이차 보전 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시설 현대화 지원 규모는 7천억 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수리·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등 농업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2천억 원 이상 확대했다. 간척지를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는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한다. 금보다 비싼 씨앗을 발굴하는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는 23억 원이 투입된다.

축산 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면세유 공급 대

상 확대 등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안도 마련됐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낮추려고 귀리, 당밀 등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8개 품목의 수입사로 원료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16개 품목을 포함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22개 품목

으로 종전보다 11개 확대했다.

김정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미 FTA는 우리 농업이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을 벗어나 국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m**

최현석 경제부 기자 harrison@yna.co.kr

폐기 vs 환영, 엇갈린 집회



한국자유총연맹은 서울역광장에서 ‘한미 FTA 발효 축하 국민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반세기 전 가장 작고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의 유일한 길은 무역이었다”며 “자원도 시장도 없는 나라가 교역 없이 성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유용석 기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는 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하며 손해 보는 협정”이며 “일부 재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국민이 협정의 악영향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박철홍 기자

한미 FTA가 발효된 가운데 찬반 진영은 각자 집회를 열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협정이 발효된 3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한미 FTA는 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하며 손해 보는 협정”이라며 “일부 재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국민이 협정의 악영향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가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초대받은 손님이 폭탄을 품고 온 것을 알고 집주인이 손님을 쫓아내자 주변에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한다”며 “총선에서 승리해 협

정문 22.2조에서 24.5조에 이르는 협정 종료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같은 날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한미 FTA 발효 축하 국민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남영역까지 행진했다. 박창달 자유총연맹 회장은 “한미 FTA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나 선거 전략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며 반대 측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 대부분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세기 전 가장 작고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의 유일한 길은 무역이었다”며 “자원도 시장도 없는 나라가 교역 없이 성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m**

김지현 사회부 기자 valelapena@yna.co.kr

애완동물 인구 1천만 명 시대

시장 규모 4조 원, 불황에도 꾸준히 확대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추세와 맞물려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벌써 1천여만 명을 헤아린다니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꼴로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얘기다. 이들이 기르는 애완견만 해도 약 500만 마리나 되고 전체 애완동물 시장은 4조 원 규모에 이른다. 전통적인 애완동물인 강아지, 고양이, 새 등에 거미, 고슴도치, 뱀, 이구아나 등까지 합류하면서 애완동물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희귀동물을 기르는 사람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불황에도 끄떡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며 유망 산업으로까지 꼽히고 있다.

사람보다 잘 나가는(?) 애완동물들

올 2월 경북 청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애견 패션쇼가 열렸다.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공식 마스코트로 전 세계에 알려졌던 샵살개 ‘살비’가 주인공이다. 애완견에게 오케스트라의 우아한 음악을 들려주겠다며 매년 복날이 되면 <개나 소나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 원로 개그맨 전유성 씨와 패션디자이너 최복호 씨의 합작품이다. ‘애견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뜻을 모은 두 사람은 애견용 커플 셔츠를 비롯해 다양한 패션 소품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개도 새처럼 날고 싶다. 옷이 날개다”라는 게 기획을 주도한 전 씨의 변이다.

잘 생긴 외모 덕에 영화에 ‘소품’ 아닌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잡지나 화보 광고에서 모델로 활약하는 애완동물도 있다. 수요에 비해 외모, 연기력, 사회성 등을 고루 갖춘 동물이 부족해 유명 연예인 못지않게 일정이 바쁘고 몸값은 웬만한 신인배우보다 높다.

배우 김하늘, 유승호와 함께 영화 ‘마음이’에 출연한 ‘달이’는 대표적인 연기견(犬)으로 애견 중에서는 최초로 주연

을 맡으며 단번에 스타로 뛰어올랐다. 연기력이 어느 배우 못지않다는 평까지 받으며 과연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예능 프로그램에 단골로 출연하며 최근에는 강아지용 영양제 광고에도 등장해 주가를 높인 ‘상근이’도 출연료가 어지간한 배우보다 높다. 스타의 지위에 걸맞게 어디에 가나 매니저가 동행하며 풍성한 털을 탐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값비싼 영양제도 복용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예활동에는 외모 관리와 연기력 훈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들은 ‘가족 같은’ 동물을 기르는 데 들어가는 돈을 기꺼이 지출하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몇 년째 이어진 불황에도 끄떡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마다 성장하는 추세다. 사진_연합DB

련이 필수다. 하지만 동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리는 만무하다. 연예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재능은 주인이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발굴하고 키워 줘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말 창간된 애완동물 인터넷 웹진은 다양한 동물의 육아일기를 연재하고 있다. 잠깐만 읽어 봐도 동물을 기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력이 사람이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애지중지 기르다 보니 사료나 간식을 지나치게 먹고 활동량이 줄어들어 '비만' 동물도 생겨난다. 예를 들어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과체중이 되면 노화 속

진, 심장 기능 이상, 고혈압 증상 등이 초래되며 허리나 다리 관절에 무리가 생겨 장기적으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꾸준한 운동과 산책은 기본이고 소량의 식사를 자주 챙겨 먹여야 하며, 그때마다 칼로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음식량을 조절하다 보면 영양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영양제도 따로 복용시켜야 한다. 사람의 다이어트도 쉽지 않은 터에 하물며 동물은 말이 안 통하고 먹을 것도 조절하지 못하니 주인이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관련 시장 확대일로

지난 2월 혼자 살던 30대 여성이 기르던 개가 죽은 직후 “애완견과 같이 있고 싶다. 함께 묻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가족으로 생각했던 애완동물의 죽음은 주인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 준다는 게 동물애호가들의 입장이다.

애견 패션쇼가 열리고 애완동물을 위한 특급호텔 못지않은 서비스 공간이 등장하는가 하면 고가의 애견 보험도 등장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르면서 관련 시장은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번창일로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동물을 장난감화 하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삶을 함께 하는 '반려동물'로 여기며 아낀다. 사진_이상학 기자



반려동물 전문기업이 선보인 특급호텔급 서비스 공간. 의원원, 호텔, 유치원, 트레이닝센터, 미용실 등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사진_박지호 기자

이 때문에 애완동물이 죽으면 장례를 전문적으로 도맡아 진행해 주는 기업이 등장했는가 하면 화장 후 유골의 부패 및 악취 등을 막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보석으로 가공해 주는 회사도 생겨났다. 살아 있는 동안 사람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던 애완동물을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되새기려는 마음을 사업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그 밖에도 애완동물의 분양, 입양 등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업소를 비롯해 파충류, 설치류 같은 이색 동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업소에 이르기까지 애완동물 관련 시장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공통점은 하나같이 규모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커피전문점이 생기는가 싶더니 아예 애완동물을 위한 전용 음식점도 문을 열었다. 식단에 나와 있는 특이한 음식들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용이다.

2008년 나왔다가 적자 누적으로 사라졌던 애견보험도 애완동물 열풍에 힘입어 다시 등장했다. 삼성화재가 애견의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겠다고 지난해 11월 출시한 보험상품에는 두 달 만에 120여 마리가 피보험자로 가입됐다. 역대에

달하는 명품견이 있는가 하면 볼품은 없지만 주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개도 있다. 보험료는 1살짜리 개를 기준으로 연간 50만 원 정도. 동물병원에서 감기 1만~2만 원, 배탈과 설사에 3만~4만 원 등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현실을 감안해 책정됐다. 개가 아프거나 다치면 연간 500만 원 내에서 건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사람을 물거나 다른 개를 다치게 하는 사고도 보상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는 애완동물을 위한 서비스 공간도 들어섰다.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을 위한 행복도시'를 목표로 애완동물 전문기업이 선보인 이 공간은 사람으로 치면 특급호텔에 해당한다. 동물의료원, 호텔, 유치원, 트레이닝센터, 미용실 등이 들어 있어 반려동물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귀엽거나 여성스러운 디자인 일색이던 애완동물 관련 용품은 최근 들어 부쩍 고급스러워지는 추세다. 그래픽 디자인이나 패션 디자이너가 기획한 우아하고 멋스럽고 세련되고 정갈한 디자인의 애완동물용 상품이 다채롭게 쏟아지고 있다. 사람이 즐기는 수준 높은 디자인을 애완동물용품에도 적용한 것이다.

지난 3월8~11일까지 영국에서는 이른바 '견공 올림픽'이 열렸다. 세계 최대의 명견 경연대회 '크러프츠 2012'가 바로 그것으로 올해가 121번째다. 영국견종협회 주최로 매년 세계 최고의 명견을 선발하는 이 행사는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세계 각국에서 찾아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후원사로 나선 삼성전자는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관람객들이 최신 스마트 기기를 통해 애견과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스마트TV로 애견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갤럭시 노트를 이용해 애견에 대한 크로키나 스케치를 그리는 활동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가족 같은' 동물 위해 기꺼이 지출한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법하다. 요즘은 살아 있는 동물을 장난감화 하는 '애완'이라는 표현 대신 삶의 동반자로 여긴다는 뜻에서 '반려'라는 표현이 점점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한마디로 가족이란 얘기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은 '가족 같은' 동물을 위해 기꺼이 돈을 지출하므로 관련 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

신규 사업 종목을 개발하는 랭크업의 김미라 팀장은 “사회적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는 추세와도 맞물려 애완동물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시장은 앞으로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창업 관련 연구소를 운영하는 창업몰 역시 “국내 애완동물시장은 불황에도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지적하고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아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창업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인터넷 창업도 활발하며 짝퉁한 수익을 올리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귀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작용도 없지 않다. 특히 애완동물 분양과 관련해 이런저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에는 애완동물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분쟁 접수가 끊이지 않는다. 애완동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보상 규정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동물 유기가 늘어나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동물을 집에서 기르려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예쁜 마음에 즐겁게 기르려 하지만 얼마 못 가 남에게 넘기고 마는 이가 적지 않으며 아

예 길거리에 내다 버리는 이들마저 나온다. 생명 경시 풍조에 경기 침체의 여파가 겹친 것도 원인이다.

유기 동물이 늘어날 때마다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유기 동물을 지정된 동물병원에 열흘 동안 맡긴 후 주인이나 분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시킨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마리당 최대 10만 원 정도다. 경남 울산의 경우 2003년에는 유기 동물 854마리에 위탁관리비용 1천9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월 말 현재 3천298마리, 3억4천900만 원으로 18배 급증했다. 경기도에서는 연간 2만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20억 원이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런 이유로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앞당겨 시행하자는 여론이 높다. 연락처를 비롯해 주인의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이식하거나 인식표를 몸에 부착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동물 사랑, 생명 사랑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애완동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소중하게 기르던 동물이라면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려는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날씨가 풀려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애완동물용 나들이 제품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패션 품목으로도 손색이 없는 운반용 가방이 등장해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진제공_ 아이파크백화점

착한 기술, 착한 디자인, 착한 소비

환경 지키고 빈곤층 돕고 약자 배려하며 이윤도 낸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맑은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 주민들이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흙탕물을 그냥 마신다. 이들에게 '라이프 스트로(life straw)'는 말 그대로 '생명의 빨대'다. 언뜻 보기에는 두꺼운 빨대처럼 보이지만 화학약품이나 전기를 쓰지 않고도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 걸러 주는 휴대용 정수기다.

필터 교체 없이 정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1천L, 5달러에 불과한 정수기 하나가 1천여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 덴마크 기업가 미켈 베스티가르트 프란젠이 '착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돈도 잘 번다'는 자신의 경영철학을 살려 상품화한 것으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여행할 때의 비상용품이나 재난구호용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착한 기술'

요즘은 사회공헌사업의 화두는 '적정 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다. 국내에서는 '착한 기술'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사회적 기업, 재능기부의 차원을 넘어 소외된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새로운 시도다.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은 독일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가 1973년에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처음 소개됐다. 슈마허는 저개발국의 자체 기술보다는 훨씬 우수하나 부자들의 거대 기술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값싸고 소박한 기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의 대량생산기술과 달리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라고도 정의했다.

오랫동안 묻혀 있던 적정 기술은 200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의 대학들이 관련 연구센터를 오픈하며 세우면서 본격적인 상품화의 길로 나섰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개설한 디랩(D-Lab)이 대표적으로 이곳에서 개발된 제품들은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관(NGO), 국제구호기관 등이 사서 빈곤국 주민들에게 보낸다. 연료가 부족한 지역에서 나무 대신 사탕수수를 태워 연료를 생산하는 사탕수수 석탄제조기가 디랩의 작품으로 사탕수수가 아닌 식물로도 만들 수 있다.

적정 기술의 또 다른 예로 '큐드럼(Q Drum)'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물을 길어 오는 데 몇 시간씩 걸리지만 힘에 부쳐 조금씩밖에 떠 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만든 지름 50cm의 도넛 모양



질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흙탕물을 마시는 빈곤국 주민들에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99.9% 걸러지는 휴대용 정수기 라이프 스트로는 말 그대로 생명의 빨대다. 서울 인사동에서 시민들이 라이프 스트로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 김주성 기자

물통이다. 줄로 묶어서 굴리면 한 번에 약 50L의 물을 옮길 수 있고 15년 이상 쓸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

프란젠이 만든 방충모기장 ‘퍼머넷’은 말라리아 방지제와 살충제를 첨가해 20회까지 세탁해도 3년간 살충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국제보건기구(WHO)는 퍼머넷 덕분에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생존율이 30% 이상 신장됐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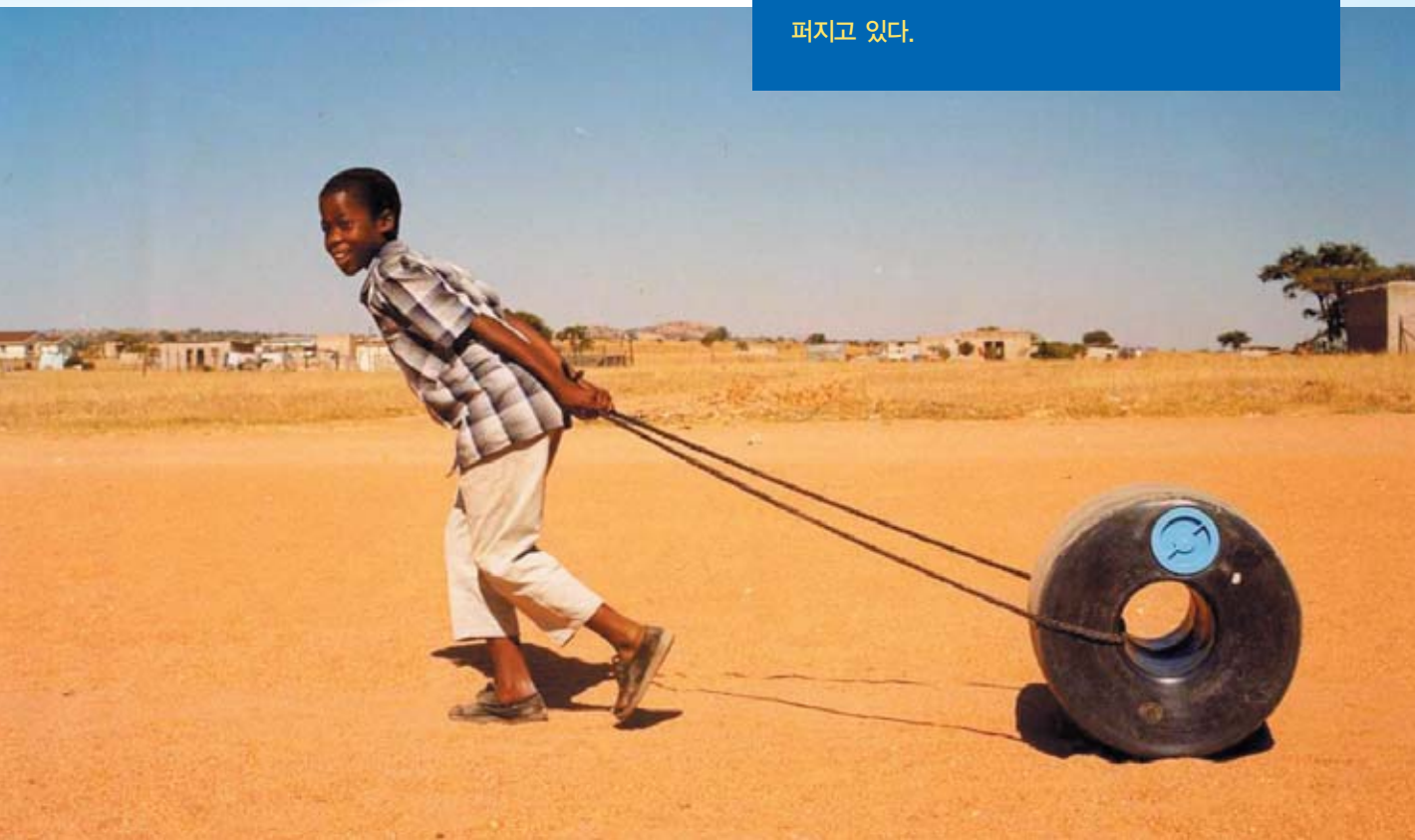
2010년 세계 소셜 벤처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리모션 디자인은 빈곤국 장애인들에게 값싸고 튼튼한 의족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적게는 400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도 넘는 인공 무릎관절 대신 플라스틱과 볼트 등을 조립한 20달러짜리 인공 무릎관절로 인도의 장애인 1천여 명에게 걷는 기쁨을 안겨 줬다.

한국의 ‘좋은 이웃들’이 전하는 착한 제품

몽골에서는 연중 7개월 동안 평균 -38℃의 혹한이 지속

된다. ‘게르’라는 천막으로 만든 집에 사는 유목민들은 대부분 유연탄 난로로 난방을 해결하지만 온기가 3~4시간밖에 유지되지 않고 매연도 심하다. 한국 국적의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의 김만갑 적정기술전문위원이 몽골 유목민의 이런 사정을 헤아려 개발한 축열기 ‘지세이버(G-saver)’는 온기를 5~6시간 유지하면서도 매연은 크게 줄였다. 굿네이버스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생산공장 ‘굿쉐어링’을 세워 싼값에 판매한다. 지세이버는 한국의 ‘좋은 이웃들’이 몽골 유목민에게 전하는 따뜻하고 착한 제품인 셈이다.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차원을 넘어 지구촌 빈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겨냥한 ‘착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익 추구와 사회 공헌을 동시에 실현하고 나아가 ‘바른 기업’이라는 평판도 얻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다. 소비자 사이에서도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사겠다는 ‘착한 소비 운동’이 퍼지고 있다.



큐드럼은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물을 길어 오는 데 몇 시간씩 걸리지만 힘에 부쳐 조금씩밖에 떠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만든 지름 50cm의 도넛 모양 물통이다. 한 번에 약 50L의 물을 옮길 수 있고 15년 이상 쓸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 사진제공_ Q Drum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층, 노약자,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착한 디자인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유니버설 플러그, 드림볼, 60 백, 샷-다운 샤워. 사진 연합DB

굿네이버스는 또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적정기술단체인 '나눔과 기술'이 고안한 숯탄제조기를 아프리카 차드공화국에 보급하고 있다. 정부의 별목금지령에 묶여 연료 구하기가 힘든 차드의 빈곤층에게는 흔한 재료인 사탕수수과 뿌리 녹말식물 카사바로 만드는 숯탄이 더없이 고마운 선물이다. 사탕수수를 태워 만든 숯을 틀에 넣고 압축해 숯탄을 만드는 구조는 디랩의 석탄제조기와 비슷하나 수동인 디랩 제품과 달리 숯탄제조기는 반자동으로 압축과 배출이 이뤄지므로 훨씬 편리하다.

나눔과 기술은 현지 과일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흔하지만 저장성이 떨어지는 망고를 자연광과 바람으로 건조시키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숯탄제조기와 망고건조기를 생산할 사회적 기업을 아프리카 말라위에 세워 주민 소득 창출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나눔과 기술은 이 밖에도 네팔에는 저소득층이 우기에도 허물어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압축 흙벽돌 생산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특허청 및 웅진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정용 정수기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동으로 작동하는 이 정수기는 두 가지 용도의 필터를 쓰는 게 특징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1차 필터로 거른 물은 세탁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2차 필터로 한 번 더 거른 물은 식수용이다.

환경 보호하고 약자 배려하는 '착한 디자인'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층, 노약자,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착한 디자인'도 관심을 끈다. 시간대별로 복용해야 할 약의 색과 포장이 달라 어린이나 외국인도 쉽게 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콘택 주·야간 감기약'이나 한복판에 구멍이 뚫려 있어 힘들이지 않고 전기코드를 뽑을 수 있는 '유니버설 플러그' 등은 간단한 아이디어로 착한 디자인을 실현한 사례다.

일본의 가전업체 파나소닉이 내놓은 '샷-다운 샤워(Sit-down Shower)'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앉아서 샤워하면서 입욕 효과까지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사형 드럼세탁건조기'는 키 작은 사람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세탁물을 꺼낼 수 있도록 세탁통(드럼)을 기울이고 단추만 누르면 문이 열리도록 만들었다.

국내 산업디자이너들이 만든 '드림볼'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보낼 구호물품을 담은 원통형 상자로 절취선을 따라



탐스슈즈가 세계적 상표로 성장한 데에는 신발이 한 켤레 팔릴 때마다 신발 없이 생활하는 빈곤국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원 포 원' 정책이 기폭제가 됐다. 창업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어린아이에게 신발을 신기고 있다. AP_ 연합뉴스

조각을 떼어내 다시 조립하면 멋진 축구공으로 변신한다. 얇지만 잘 찢기지 않는 종이로 제작돼 아이들이 차고 놀기에 충분하다. 구호물품은 물론 꿈과 희망까지 전달하는 것이다.

배상민 KAIST 산업디자인과 교수는 올 여름방학을 이용해 케냐와 에티오피아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개념의 집을 지어줄 계획이다. 이 집에는 식수난과 전기 부족을 해결할 묘안이 숨겨져 있다. 지붕에 부착되는 접이식 장치가 햇빛이 비칠 때에는 우산 모양으로 펼쳐 태양광 발전을 하고, 비가 오면 깔때기 모양으로 접혀 빗물을 모은 뒤 장치에 연결된 관을 통해 지하의 물탱크로 보내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닐봉지를 대체할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폴란드 출신 디자이너가 만든 '60 백(bag)'도 그런 제품으로 폐기 후 두 달이면 완전히 분해되는 신소재 아바-비스코스스로 만든다. 아바-비스코스 자체도 다른 섬유를 만들고 남은 폐기물이다. 국내 의류디자인업체

오르그닷이 만든 웨딩드레스는 일반적인 폴리 원단이 아니라 옥수수 전분이나 썰기풀, 유기농 면 등으로 만들었다. 역시 폐기하면 100% 분해돼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친환경 제품이다.

“공정하고 윤리적인 제품 사자” 착한 소비 운동

요즘 의식 있는 소비자들은 작은 물건을 사더라도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그저 싼 물건보다는 친환경적 제품이나 이윤의 일정 부분을 빈곤국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공정무역(Fair Trade)' 제품을 선호한다. 이른바 '착한 소비 운동' '윤리적 소비 운동'이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커피 프랜차이즈업체 스타벅스는 착한 소비



요즘 소비자들은 그저 싼 물건보다는 이윤의 일정 부분을 빈곤국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공정무역 제품을 선호한다. 사진은 굿네이버스의 착한 소비 캠페인 '굿 바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 사진_이지은 기자

운동을 외면하다 혼쫓아 났다. NGO인 글로벌 익스체인지가 공정무역 원두 사용을 중용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벌일 조짐이 보이자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다. 착한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NGO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정무역의 주요 관심사는 커피, 코코아, 면화 등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생산된 후 선진국에서 소비되는 제품들이다.

2006년 설립된 탐스슈즈는 착한 소비 운동을 활용해 성공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평평한 고무 밑창에 천 소재를 깎아 탐스슈즈 신발은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 금세 입소문이 퍼졌다. 하지만 탐스슈즈가 세계적 상표로 성장한 비결은 다른 데 있다. 신발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신발 없이 생활하는 빈곤국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원 포 원(One for One)' 정책이 바로 그것으로 매출 신장의 기폭제가 됐다.

탐스슈즈는 신발이 없어 맨발로 흙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에 이른다며 이들에게 신발을 보내 주라고 호소했다. 첫

해인 2006년에는 1만 켤레에 그쳤던 원 포 원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일면서 2010년에는 무려 100만 켤레로 늘어났다.

국내에서도 착한 소비가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의 '아이맘 조아'는 한부모 가정의 40~50대 여성들이 모여 유기농 소재 유아용품과 방석, 목쿠션을 제조·판매하는 자활 기업이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좋은 재료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해 만들어도 매출이 신통치 않았다. 월 30만 원도 쉽지 않았고 고작 1만5천 원에 그친 달도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경기도와 경기광역자활센터가 세운 '서로 좋은 가게 1호점'에 입점하면서 상황이 크게 호전됐다. 서로 좋은 가게는 가난한 이웃들이 질 좋은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착한 생산, 착한 소비'가 이뤄지는 곳이다. 개점 첫 달에 매출이 90만 원으로 늘었고 12월에는 340만 원까지 올랐다. 현재 서로 좋은 가게에는 아이맘 조아 같은 자활 기업, 사회적 기업,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자활 시설 등 30여 곳의 400여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김영대 기자 Lonaíree@yna.co.kr

中, '빠른' 성장 잡고 목표 7.5%로 낮춰

순조로운 권력 교체 위해 안정에 방점
10월에 물러나는 후진타오 마지막 兩會 주재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 낙마 등 권력 투쟁 조짐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1기 5차 회의가 3월 14일 폐막했다. 최고 국정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이보다 하루 앞서 막을 내렸다. 양회(兩會)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로 이번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시대의 마지막 무대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이 쏠렸다.

이번 전인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7.5%로 잡은 정부공작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정 속 빠른 성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 소득 및 지역 격차 해소, 티베트·신장위구르 안정, 농민공, 의료보험, 교육, 복지 문제 등의 해법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인권 보장 조항이 삽입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법률의 개정·제정안도 처리했다.

후 주석을 정점으로 한 제4세대 지도부는 올가을 제18차 전국대표대회 개최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를 필두로 한 제5세대 지도부로 권력을 넘길 예정이다.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목표로 한 이번 양회에서는 사회 안정과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성장에서 내실 있는 성장으로

중국은 올해 10월 권력 교체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양회는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고 평가된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현 지도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시 부주석을 위시한 차기 지도부가 순조롭게 권력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내보였다.

이런 의지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로 7.5%를 제시한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중국이 그동안 성장의 하한선으로 간주해 온 '바오바'(保八; 8% 이상 성장 유지)를 포기했다는

것은 성장보다 경제와 민생의 안정에 더 신경 쓰겠다는 점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막대한 시설 투자와 철도·도로·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건설 등을 통해 빠른 성장을 추진해 왔다. 중국은 장기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이 성장 목표의 하한선으로 간주해온 '8% 이상 성장'을 포기했다는 것은 성장보다 경제와 민생의 안정에 더욱 신경 쓰겠다는 점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EPA_연합뉴스

서는 고부가가치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차에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수출 증가 속도가 떨어지자 산업구조 전환이 더욱 절박한 사안으로 대두됐다.

중국인 이와 함께 중국인의 생활을 힘들게 했던 물가를 3.5% 내에서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억제하는 한편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경제 적 형평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성장 속도를 늦추더라도 빈부 격차 확대나 인플레이션 발생 등 고

성장의 후유증을 해소하고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농민이나 도시기층민 등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이 올해 수출입 물량 증가율을 약 10%로 전망한 것도 경제구조 전환과 내수주도형 성장 추진이라는 면에서 관심을 끈다. 작년 중국의 수출은 20.3% 증가하고 수입은 24.9% 늘어나 교역 총액이 22.5% 신장됐다. 중국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무역의존도는 50.1%였다.

세계 각지로 각종 제품을 내다 팔아 성장을 추진해 온 중국이 올해 교역 증가율을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로 내다본 것은 외국의 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 폭이 작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출이 아닌 내수 부양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의 올해 실제 성장률은 8%를 넘으리라는 게

중국은 막대한 시설 투자와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 등을 통해 빠른 성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후진타오 주석의 임기 중에는 마지막으로 열린 양회를 통해 현 지도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시진핑 국가부주석을 위시한 차기 정권이 권력을 순조롭게 이양 받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안정을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내보였다.



올가을로 예정된 중국의 권력 교체를 앞두고 후진타오 국가부주석을 정점으로 한 현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개최한 이번 양회는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AP_ 연합뉴스

일반적인 예측이다. 중국 정부가 성장 속도를 늦춰 질적 성장과 구조조정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 구조조정이 쉬운 일은 아니며 많은 고통이 수반된다. 이 때문에 올해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은 기존의 방향과 관성에 따라 굴러가면서 일부에서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추진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작년에도 중국이 8% 목표를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9.2% 성장한 만큼 올해에도 목표를 넘어 8.5% 내외의 성장을 보이리라는 게 상당수 경제예측기관의 전망이다.

정치·사회 안정에도 방점 찍어

중국 지도부는 이번 양회 기간에 정치권이나 사회 분야에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 양회 마지막 날인 3월14일 원 총리가 폐막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개혁을 강하게 역설하고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시 서기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거론하면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긴 했지만 이전까지는 정치 개혁이나 보시라이 사안 등 민감한 문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또 예년과 달리 특정인에 대해 인민일보나 신화통신 등의 매체가 집중 조명하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튀는 발언 등으로 누리꾼의 관심을 사로잡거나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를 들쭉게 하는 인물도 없었다. 중국 매체들은 인물보다 정부 공작 보고, 각 시·성 대표단의 활동, 후 주석 등 지도부의 원론적인 발언과 동정 위주로 보도했다.

이런 모습은 중국 지도부가 협력과 타협 속에 국가를 이끌고 있으며 정치권과 사회 역시 안정 가도를 달리는 등 순조롭고 안정된 권력 이양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보여 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을 이번 양회를 통해 민생 개선과 공동 부유 등을 강조하는 한편 양로보험 확대, 사회 관리 강화, 의료체계 개선 등을 약속하며 일반 백성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앞으로는 전인대 대표 선출 시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례를 고려하고 당과 정부 인사의 비중을 낮추는 등 선거제도를 일부 손봤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인권 개선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아울러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 특색사회주의'라는 독자적인 길을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올가을 정치지형 변화에 촉각

이번 전인대를 마지막으로 후 주석 중심의 제4세대가 물러나고 오는 가을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제5세대로의 권력 이양이 이뤄진다. 현재 중국의 최고 권력은 후 주석 중심의 공청단(共靑團; 공산주의청년동맹), 쑹칭홍(曾慶紅) 전 국가부주석의 태자당, 여전한 현실 권력인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상하이방 등 3대 세력 간 힘겨루기와 균형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 부주석이 소속 태자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차기 최고 지도자로 가는 국가부주석 자리를 꿰찬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치지형은 후 주석의 공청단에 크게 기울어져 있다. 시 부주석이 안정적인 차기 구도를 위해서는 세력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귀족적이고 요란하면서 최근 측근과의 분란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보시라이 서기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중요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서민적이면서 조용한 시 부주석은 보시라이 서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결국 안고 가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공청단 소속의 광둥(廣東) 성 왕양(王洋) 당서기와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낙점 경쟁을 벌여 온 보 서기가 대책 없이 낙마하면 차기 상무위원 구성에서 태자당의 세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당이 3월14일자로 보 서기를 해임하고 후임에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를 임명키로 하면서 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급변하는 중이다.

시 부주석은 차기 10년을 이끌어 갈 의제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의지를 다 잡아 고속 성장의 토대를 닦은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가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장에 방점을 둔 개혁개방 드라이브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치이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중국을 마르크스 사상의 기본 원칙 아래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의 삼개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이론이 존재해 왔다. 과거와 차별화한 시진핑 통치이론의 등장이 예고되는 배경이다. 시 부주석은 근래 들어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를 부쩍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치이념 수립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교준 베이징 특파원 kjhn@yna.co.kr

신상호 베이징 특파원 ssh@yna.co.kr

차대운 베이징 특파원 cha@yna.co.kr

왕리쥘 이어 보시라이도 해임... 후임에 장더장

최 측근이었던 왕리쥘(王立軍) 전 충칭시 부시장직의 미국 망명 시도설로 정치적 타격을 받은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서기가 마침내 밀려났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은 3월14일 보를 충칭시 서기에서 해임하고 후임에 장더장(張德江) 국무원 부총리를 임명했다. 보는 당분간 제17기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직만 갖게 된다.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던 왕은 부시장직에서 이미 해임된 상태다. 왕 후임으로는 칭하이(青海)성 부성장이자 공안청장인 허팅(何挺)이 임명될 예정이다.



태자당의 일원인 보시라이(사진) 전 서기의 낙마로 중국 핵심부의 권력지형에 변화가 예상되며 계파 간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PA_ 연합뉴스

왕이 주군인 보를 간신배와 부정부패 혐의자로 공격하고 나선 이후 중국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거취에 시선이 집중됐다. 보는 왕 사건 이후에도 공산당과 사회주의 사상을 홍보하는 '홍색 행보'를 지속하고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 이 때문에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양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보시라이는 반성해야 하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보가 해임됨에 따라 올가을의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상무위원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태자당의 일원인 보의 낙마로 중국 핵심부의 권력지형에 변화가 예상되며 10월로 예정된 권력 이양을 앞두고 계파 간 치열한 권력 투쟁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역임한 보이보(薄一波)의 아들로 1949년 태어난 보는 중국 다롄시장, 랴오닝성장, 중국 상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충칭시 서기를 맡아 '창홍타흑(唱紅打黑; 홍색문화를 고취하고 폭력, 부패 등의 사회악을 척결한다)'을 내세우며 충칭시의 면모를 일신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그가 폭력 및 부패 척결을 위해 최측근으로 활용했던 왕 전 충칭시 공안국장이 쓰촨성 청두 주재 미국영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그의 후임인 장은 1946년생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서 공부했으며 국무원 부총리 시절 공업, 에너지, 교통, 통신 등을 맡았다. 

신삼호 베이징 특파원 ssh@yna.co.kr

下心으로 마음에 짓는 한옥 세 채

고3 때 한옥에 뜻 두고 24살에 대목수

한옥을 가리켜 '천 년의 건축물'이라고 한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사찰들이 웅변으로 증명하듯이 '천 년을 가는 건축'이자 '큰 변화 없이 천 년을 이어온 공법'이라는 두 가지 뜻이 함축돼 있는 말이다. 한옥은 기둥과 바닥은 나무, 벽은 흙, 창은 한지 등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짓는다. 그래도 천 년을 버텨낼 정도로 견고하고 천 년 역사의 한옥 공법에서는 그 어느 최첨단 건축기법에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매력이 뿜어져 나온다.

전 통 건축물 설계시공기업 하심한옥의 김승직(28) 대표는 10대 때부터 한옥 공부에 매진해 20대 초반에 벌써 대목수 칭호를 들은 한마디로 '한옥에 미친 젊은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옥의 매력에 흠뻑 취해 대학 진학도 포기했다. '대목수는 자기 손에 딱 맞는 연장이 있어야 한다'며 마음에 드는 연장 하나 얻으려고 전국 곳곳을 뒤지고 다녔고 목공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숨은 고수들을 찾아 헤매기도 했다.

김 대표는 뒤늦게 한옥에서도 조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대 후 조경학과에 진학했고 몹시 추운 금강산과 몹시 더운 아프가니스탄에서 호된 신고식도 치렀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40~50대 '타짜'들도 붙기 어렵다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숲 속에 움막을 짓고 들어가 손톱 8개가 부서지거나 빠질 정도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목수생활 어언 11년째. 김 대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공사는 하심한옥 간판을 내걸고 처음으로 맡았던 한남대학교 본관 지붕 공사. 설계도면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었으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한옥 구조로 바꾸고 구리 기와로 지



하심한옥은 설계도면을 가상의 건축물로 제작해 실제로 거주할 사람의 취향을 충분히 반영한다. 설계 반복, 부자재 교체 등을 방지해 노동력과 시공 시간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사진제공_하심한옥

붕을 올렸다. 내심 불안한 구석도 없지 않았지만 완공 후 건물의 우아함과 품격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듣고는 정말 기뻐하고.

김 대표는 한옥이 대중화되려면 부자재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자재가 표준화돼야 1차 가공을 기계로 손쉽게 할 수 있어 단가가 내리고 공기도 단축된다. 하심한옥은 설계도면을 단면이 아닌 가상의 건축물로 제작해 건축주에게 보여 준다. 실제 거주할 사람의 취향을 충분히 반



사진제공_ 하심원양



김승직
하심한옥 대표

영해 설계 번복이나 부자재 교체 등의 번거로움을 예방할 수 있어 노동력과 시공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표준화된 부자재, 한옥 가상 건축물 설계도, 아파트형 한옥 등 3건의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공비를 20% 가량 낮췄다.

회사 이름 하심(下心)은 김 대표의 호이기도 하다. 일찍 인정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항상 겸손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그는 집 한 채를 시공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세 채를 짓는다. 주인의 마음에 드는 한 채, 동네에 어울리는 한

채, 본인의 자존심을 걸어도 떳떳한 한 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하심을 놓지 않고 열심히 정진해 훗날 '장인'으로 불리고 싶은 게 김 대표의 소망이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 일답.

Q_ 첨단 건축공법이 쏟아지는 시대에 한옥에 인생을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

A_ 한옥을 가리켜 '천 년의 건축물'이라고 한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사찰들이 웅변으로 증명하듯이 '천 년을 가는 건

축'이자 '큰 변화 없이 천 년을 이어온 공법'이라는 두 가지 뜻이 함축돼 있는 말이다. 한옥은 기둥과 바닥은 나무, 벽은 흙, 창은 한지 등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짓는다. 그럼에도 한옥은 천 년을 갈 정도로 견고하고 천 년 역사의 한옥 공법에 서는 그 어느 첨단공법에서도 느낄 수 없는 깊은 매력이 뿜어져 나온다. 고교 시절 목공수업을 듣다가 한옥의 매력에 빠진 뒤 내 인생을 걸어하겠다고 결심했다.

Q_ 목수 명인들을 찾아 전국을 누볐다던데.

A_ 전통 건축에서는 나무를 다루는 치목(治木), 즉 대목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대목수가 되려면 자르고 깎고 맞추고 다듬는 데에 필요한 연장을 갖추는 게 제일 먼저이지만 그것도 내 손에 딱 맞아야 한다.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 끝을 만드는 대구 칠성시장의 대장간을 찾아가 어르신께서 내게 맞는 여러 끝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소소한 일을 거들며 끈기 있게 기다렸다.

“옛 방식으로 연장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전국을 누빈 끝에 톱과 대패 등 연장을 모두 구했다. 그렇게 구비한 연장통을 둘러메고 사찰 전문 대목수를 찾아 나서기도 했고 어렵사리 전라도의 숨은 고수를 찾아가 고유의 목공 기술을 전수받기도 했다.

Q_ 대목수가 되기까지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나?

A_ 30여 년간 건축업에 종사한 아버지가 숨은 대목수 명인들을 찾아주기도 하셨지만 배움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오롯이 나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불쑥 찾아온 어린 아이를 선뜻 제자로 받아들이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없었지만 진정성이 통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문화재 수리기능자 시험을 앞두고는 숲 속 작은 움막에 거처를 마련했다. 아침에 깨어나 보면 작업장에 그대로 드러누운 채 가슴에 나무를 끌어안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손바닥이 소나무껍질처럼 변하고 손톱 8개가 부서지고 빠지는 등 한마디로 목공 일에 미쳐 있었다.

Q_ 덕분에 최연소 문화재 수리기능자로 기록을 남겼다.

A_ 24살 때 문화재 수리기능자(대목 4888호) 자격을 획득했다. 문화재 수리기능자는 창호를 짜는 소목수, 돌을 다루



김승직 대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공사는 하심한옥의 간판을 내걸고 처음 맡은 한남대학교 본관 지붕 공사다. 한옥 목조 구조에 구리 기와로 지붕을 올려 건물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들었다. 사진제공_ 하심한옥

는 석공, 단청을 그리는 화공, 기와를 얹는 와공 등 22개 종목이 있고 이 가운데 제1종목이 대목수다. 조립과 해체를 비롯해 한옥의 목재를 다루는 일은 70% 이상이 대목수 손에 달려 있다. 특별한 응시요건은 없지만 시험은 무척 까다롭고 힘들다. 특히 실기는 아침부터 밤까지 전쟁하듯 치러지며 응시자 대부분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40~50대 기술자들인데도 중도 포기자가 속출한다. 편리한 전동 공구 대신 톱이나 대패 같은 전통 공구만 써야 하므로 웬만한 기술 수준은 명함도 내밀기 힘들거니와 시간과 체력 싸움도 이겨내야 한다. 천 명이 시험 쳐서 많아야 서른 명 남짓 합격하는 게 고작이다.

Q_ 평소 조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데.

A_ 전통 건축이든 현대 건축이든 전체 공정에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크다. 특히 한옥은 공정의 20% 이상이 조경이다. 좀 늦었지만 대학에 진학해 조경을 전공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옥은 아니나 아버지와 함께 금강산에서 골짜기를 시공하면서 현장을 처음 체험했다. 군대에서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돼 비행장 공사 등에 주력 기술자로 참여했다. 금강산의 살을 에는 추위와 아프가니스탄의 타는 더위 속에서 경험한 현장은 매우 고됐지만 직접 목재를 맞추고 기왓장을 하나하나 내 손으로 점검하는 꼼꼼함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였다.



김승직 대표는 한옥의 대중화를 위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독립영화나 연극을 하는 이들에게 한옥 세트장을 무료로 지어 주고 있다. 사진제공_하심한옥

Q_ 가장 보람 있었던 공사는?

A 목수 일이 벌써 11년째다. 골프장과 서울시 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공사를 술하게 맡아 봤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을 느낀 공사는 하심한옥의 간판을 내걸고 처음으로 수주한 한남대학교 본관 지붕 공사라고 할 수 있다. 설계도면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던 것을 독자적인 판단으로 한옥 구조로 바꾸고 구리 기와로 지붕을 올렸다. 내심 불안한 구석도 없지 않았지만 완공 후 건물의 우아함과 품격을 배가시킨 결정이었다는 주변의 평가를 듣고 정말 기뻐다.

Q_ 한옥을 짓고 싶어도 건축비가 비싸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A 한옥은 전통적으로 도면도 없고 목수마다 나름의 공법을 고집하기 때문에 정해진 규격도 없다. 그러나 한옥의 대중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부자재의 표준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 부자재가 표준화되면 다른 건축처럼 1차 가공을 기계로 손쉽게 할 수 있어 단가가 내려가고 공기도 단축된다.

나아가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부자재를 주문할 수도 있다. 한옥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지려면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하심한옥은 설계도면을 단면이 아닌 입체로 제작한다. 가상의 건축물을 보여 주면 이해가 빠르고 시공 전에 실제로 거주할 사람의 취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설계 번복, 부자재 교체 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노동력과 시공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신축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공사비도 크게 절감된다. 아파트 거주자라면 '아파트형 한옥'을 권하고 싶다. 쉽게 말해 아파트에 한옥의 실내장식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또 오래된 고택을 생활에 편리하게 개축해 '이야기를 품은 나만의 집'을 가질 수도 있다. 하심한옥은 표준화된 부자재, 한옥가상 건축물 설계도, 아파트형 한옥에 대한 3건의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공비를 20%가량 낮췄다.

Q_ 직업 철학은 무엇인가?

A 회사 이름 하심(下心)은 나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일찍 인정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항상 겸손하자는 뜻이다. 집 한 채를 시공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세 채를 짓는다. 주인의 마음에 드는 한 채, 동네에 어울리는 한 채, 내 자존심을 걸어도 몇몇한 한 채가 바로 그것이다. 마음속의 한옥을 꾸준히 지어 먼 훗날 나만의 기술과 철학을 가진 '장인'으로 불리고 싶다.

Q_ 한옥 건축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A 한옥 건축가라기보다는 대목수나 대목장이라 불러야 맞을 것 같다. 이 일은 고전과 현대가 만나는 분야를 개척한다는 자부심과 자기 만족감이 크므로 젊은이들이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다. 대목수의 일은 사무실과 현장 양쪽에서 진행된다. 시공 기술은 기본이고 고객의 취향을 즉각 반영할 컴퓨터 지원 설계(CAD)와 입체설계도 등도 다룰 줄 알아야 하므로 강한 신체와 전문지식이 동시에 요구된다.

Q_ 한옥의 대중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 나에게 한옥은 과거가 아닌 현재다. 과거에 머물러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에게 한옥을 알리기 위해 레고 블록 놀이처럼 모형 한옥을 직접 짓는 한옥 체험 교구를 개발하고 있다. 어릴 때 한옥 블록을 갖고 놀다가 어른이 돼 실제로 한옥을 짓는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독립영화나 연극을 하는 이들을 위해 한옥 세트장을 무료로 지어 주는 일도 꾸준히 하고 있다. 한옥의 아름다움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에 조금은 보탬이 되리라고 본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

주5일 넘어 하루 6시간 근무제로

도서출판 보리, 임금 삭감 없이 국내 처음 시행

낮선 이의 전화를 받는 직원들 목소리가 하나같이 밝다. 긍정적인 성격 덕분이겠지만 얼마 전부터 시작한 하루 6시간 근무제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얼핏 스쳐 지나간다. 시간의 여유는 곧 생활의 여유, 그리고 마음의 여유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사정이 편치 못하다.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긴 2천193시간이다. OECD 국가의 평균 1천749시간보다 444시간이나 많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주40시간 노동제가 확립돼 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지키는 회사는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피할 수 없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32명 전원에게 하루 6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회사가 국내 최초로 탄생했다는 소식에 눈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 줄었어도 임금 삭감은 단 한 푼도 없다니 경이롭기까지 하다.



6시간 근무제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잡고 지역사회 활동에 앞장서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게 보리출판사(대표 윤규병·사진의 목표다. 사진제공_보리

주40시간제 이어 30시간제도 선구적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도서출판 보리. 1991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노동, 농민, 친환경 관련 책들을 꾸준히 펴내고 있다. ‘전공’이 그런 만큼 자신들이 먼저 나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며 1년여 전부터 근무시간 줄이기를 화두로 내세우고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올 3월1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6시간 근무제다. 보리 관계자는 “삶터와 일터가 나뉘지 않고 사람마다 자기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기 위해 6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다행히도 주주들이 출판사의 가치와 경영 방침을 오랫동안

안 존중해 온 터라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직원들 역시 “기껏해야 3천 부 팔리고 말 책을 10권 만드느라 무의미한 노동에 장시간 시달리기보다는 꼼꼼하게 공들여 3만 부 팔릴 책 1권을 만들자”며 전의를 불태웠다. 주주와 경영진, 직원 모두가 노동이 단순한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반기를 든 셈이다.

산업사회에서 노동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대가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해서는 곤란하다는 이론도 없지 않다. 아직도 가족보다는 일과 회사를 더 중시하는 ‘회사형 인간’이 미덕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하루 6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간 근무 시간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 줄었는데도 임금 삭감은 단 한 푼도 없다니 경이롭기까지 하다.

으로 치부되는 조직이 술한 게 사실이다. 보리는 그러나 “잡은 연장근로는 필연적으로 자기 가족을 포함한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로 이어진다”고 반박한다. 6시간 근무제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만 강조하다 보면 유해한 노동도 마다하지 않게 되고 인간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염려도 한몫했다. 꼭 필요한 노동 이외에는 하지 않는 게 인간과 전체 생태계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여겼다니 심오한 철학적 내공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에 공감해도 막상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리 역시 작년 5월부터 전 직원이 관련 서적들을 읽어 가며 8시간 근무와 6시간 근무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을 여러 차례 벌이는 준비기간을 거쳐야 했다. 마침내 전체 임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올 1월 각 부서가 고루 참여한

전담 조직이 꾸려지고 나서야 6시간 근무제 도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보리는 노동시간에 관한 한 선구적 행보로 일관해 왔다. 정부가 2004년부터 직원 1천 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고 2011년에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 주5일제를 이미 2001년에 도입했다. 남보다 앞서 주40시간 근무를 실천한 저력이 이제 주30시간 근무에 도전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이다. 아직 초기라 시행착오도 예상되지만 6시간 근무제가 작은 씨앗, 또는 숨구멍 역할을 떠맡아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한 노동, 의미 있는 노동, 인간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노동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게 보리의 바람이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도서출판 보리 전경. 6시간 근무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할 때에 비해 추가로 생겨난 2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제공_보리





도서출판 보리는 1991년 설립 이래 노동, 농민, 친환경 관련 책들을 꾸준히 펴왔다. 사진은 조선족 아이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담은 최근 작품, 사진제공_보리

9시 출근-4시 퇴근, 남은 시간엔 뭐할까?

9시에 출근하면 오후 4시에는 어김없이 ‘칼퇴근’이다. 출판사의 특성상 마감일에 맞추다 보면 때로는 야근이나 철야도 불가피하다. 보리는 그러나 연장근로를 한 달 18시간 이내로 묶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대신 근무시간만큼 차곡차곡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휴가로 쓰는 ‘시간적립제’가 적용된다.

단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요즘 유행하는 투잡(two jobs)은 안 된다. 돈을 벌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노동 시간 줄여 인간다운 삶을 되찾고 불필요한 자원 소모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겠다는 원래 취지가 변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덤으로 생긴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하면 근무시간을 기껏 줄인 의미가 무색해진다. 퇴근 후의 시간은 개인만을 위해 쓰기보다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시행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써부터 크고 작은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늦게까지 일하는 거래처들과의 업무 조율이다. 취지를 설명하고 최대한 이해를 얻어내 근무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밖에 달리 뾰족한 수는 없다. 부서별 및 개인별 업무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4시 퇴근을 불안해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업무를 단축된 근무시간에 끝내려니 근무 강도가 너무 높다는 불만도 새어 나온다. 자칫하다 한 달에 18시간으로 제한한 연장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조혜원 편집부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그때그때 업무의 본질에 대해 성찰한 후 업무량과 방식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그래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있다”고 밝힌다. 더 체계적으로 일하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면 일자리를 늘리자는 게 원래 취지라는 얘기다.

그런가 하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집에 일찍 돌아가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일찌감치 마음먹었던 진학을 결행하고 공부에 몰두하는 이도 있다. 전례 없는 일기기에 어안이 병병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렇더라도 좋은 점이 훨씬 더 많다는 중론이다. 회사에서는 바쁘게 일해야 하나 하루 전체를 놓고 보면 자기만의 시간이 늘어나 몸과 마음에 한결 여유가 돌기 때문이다. 기혼자, 특히 아이가 있는 직원들은 단순한 호응 그 이상이다. 직원의 퇴근이 빨라지면서 가족들까지 덩달아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잘만 활용하면 이른 퇴근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부장은 “직원들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몫”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꾸준한 자기계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어려운 이웃들 돕기 등 의미 있게 보내기 바란다”고 덧붙인다.

외국에서는?

6시간 근무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8시간씩 일할 때에 비해 추가로 생긴 2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생긴 하루 2시간의 여유는 일주일이면 10시간, 한 달이면 4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결코 짧지 않은 이 여유 시간을 흥청망청 낭비한다면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사회적 의미도 반감된다. 따지고 보면 연장근로를 한 달 18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도, 연장근로의 대가를 돈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늘어난 시간을 또 다른 일거리로 채우는 대신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리가 본보기로 삼은 회사는 세계 최대의 시리얼제조사인 미국의 켈로그다. 곡물로 만든 시리얼을 우유에 타서 식사 대신 간편하게 먹는 콘플레이크가 이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져 있다.

켈로그는 무려 80여 년 전인 1930년에 공장 근무를 기존



찾은 연장근로는 필연적으로 자기 가족을 포함한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로 이어진다. 사진은 바쁜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거리로 나선 직장인들. 사진. 김주성 기자

의 8시간 3교대제에서 6시간 4교대제로 바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직원들의 노동이 통제되지 않아 경영진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늘어난 자기만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심지어 근무시간을 늘려 임금을 더 받고 싶어 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 결과 켈로그의 6시간 근무제는 50여 년 만인 1985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독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세계적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은 2006년 주당 28.8시간이던 노동시간을 임금 변동 없이 25~33시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간만 늘어나고 임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아 실패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도 6시간 근무제나 이에 준하는 제도를 시도한 회사들이 몇몇 있지만 성공적인 사례는 아직 보고돼 있지 않으며 대부분 삶의 질보다 고용 보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보리의 6시간 근무제와는 지향점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6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정착하고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보리 스스로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보리는 모처럼 도입한 6시간 근무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여가 선포의 다양한 사례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안 찾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족마저 잇은 채 죽어라 일해 돈 벌고 그 돈으로 비생산적 소비에 그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다수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밥과 같은 책', 나무 한 그루를 베어 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책', 아이들과 자연, 나아가 겨레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살리는 책'을 펴내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보리의 6시간 근무제 시행규칙

1. 하루 6시간(09:00~16:00), 주 30시간을 기본 노동시간으로 주5일을 근무한다. 토요일은 휴무한다.
2.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감소는 없다.
3.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연장근로시간만큼 적립한 뒤 필요할 때에 휴가로 쓰는 '시간적립제'를 적용한다.
4. 적립한 시간은 대체휴가로만 쓸 수 있고 수당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보일러의 기준을 바꾼다

귀뚜라미보일러, 국가 브랜드 경쟁력지수 5년 연속 1위

귀뚜라미보일러가 5년 내리 국가 브랜드 경쟁력지수 1위에 꼽혔다. 한국식 주택에 적합한 독자 기술 개발과 소비자를 최우선에 놓는 경영 등이 높이 평가됐다. 보일러업계 선도 역할을 자임하는 귀뚜라미는 사업 다각화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다.

귀뚜라미는 정부의 에너지 다변화정책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일러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한편으로 에어컨 사업에 진출해 냉난방 전문 기업으로서 입지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_ 귀뚜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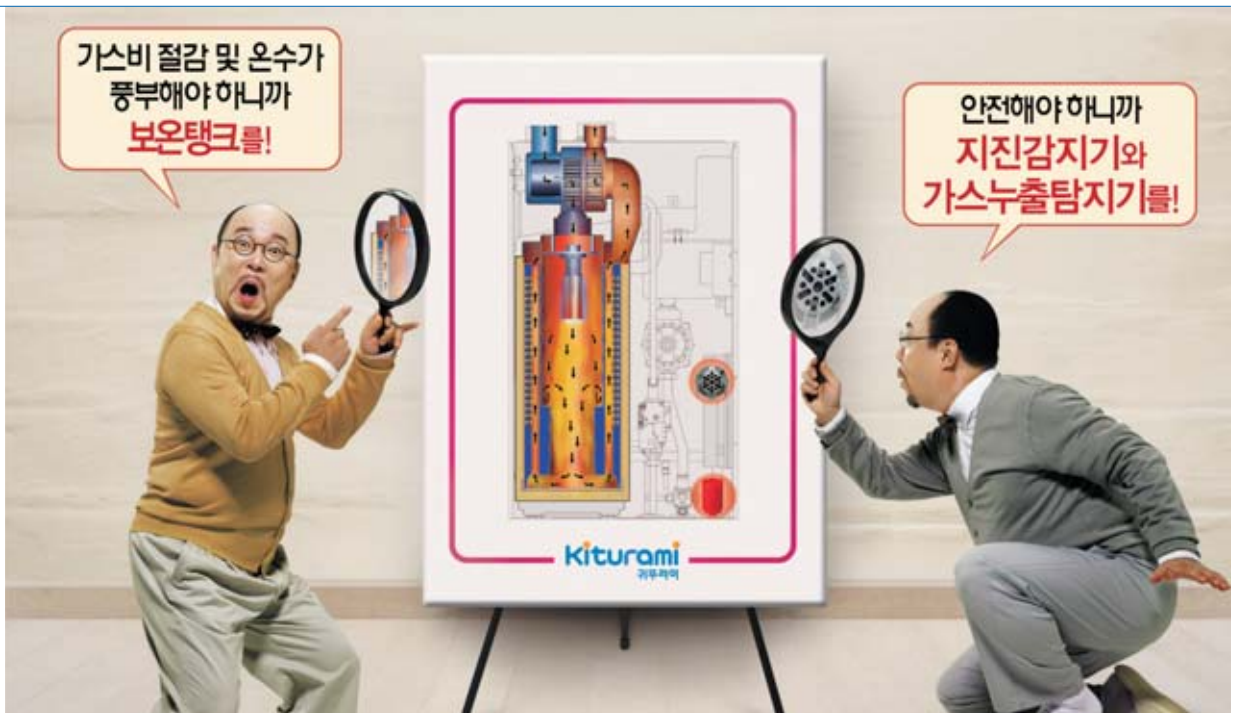
귀뚜라미보일러가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2012 국가 브랜드 경쟁력지수' 1위에 선정됐다. 가스보일러 부문이 신설된 2008년부터 5년 내리 수위다. 업계를 대표하는 최강의 브랜드로서 명실공히 가치를 입증한 셈이다. 평가는 33개 제품군, 117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한 뒤 마케팅,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와의 관계, 구매 의도, 브랜드 충성도 등 총 6개 요소별로 이뤄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귀뚜라미의 화려한 수상 경력은 일일이 늘어놓기가 어려울 정도다. 지난해만 해도 국민생활 안전 우수기업, 한국 산업 브랜드 파워 1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등에 선정됐고 대표 제품의 하나인 '4번 타는 보일러'는 매경 히트 상품에 뽑혔다.

이처럼 높은 성과의 밑바탕에는 한국식 주택에 적합한 독자적인 보일러 기술 개발,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경영, 적극적인 마케팅 등이 깔려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가스요금 절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는 회사 관계자의 설명에는 설득력이 충분해 보인다.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게 귀뚜라미의 각오다.

올해로 꼭 반백 살이 되는 귀뚜라미는 정부의 에너지 다변화정책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표 상품인 가스보일러 이외에도 기름, 전기, 화목





(火木), 갈탄 보일러 등으로 난방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최근에는 홈네트 워크와 수소연료전지 분야 등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연구로 경쟁력을 다방면으로 높이는 한편으로 에어컨 사업에도 진출해 냉난방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제조기술

난방과 온수는 보일러의 성능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여기에 덧붙여 사고가 나면 크고 작은 재산 손실은 물론이고 사람의 살상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뛰어난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귀뚜라미의 경쟁력은 보온탱크와 안전장치에서 단연 두드러진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보일러 가운데 보온탱크 용량이 가장 크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일러는 대부분 가스보일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유럽형을 본떠 만들었다. 입식문화에 적합하게 설계된 이른바 ‘순간 보일러’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귀뚜라미는 그러나 한국 특유의 온돌문화에 눈을 돌렸다. 바닥 난방과 목욕 용도를 동시에 충족시킬 많은 양의 온수를 확보하기 위해 6L짜리 보온탱크를 자체 개발했다. 아무리 급해도 1분~1분30초는 기다려야 가열되고 물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불편하기 그지없었던 기존 보일러의 단점들을 단번에 극복한 특허 기술이다. 보일러를 가동하자마자 온수가 탱크 안에 충분히 저장되므로 난방과 목욕을 동시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가스누출탐지기는 가스가 소량만 누출돼도 보일러 가동을 즉시 중단시키며 이미 누출된 가스는 외부로 신속히 배출한다. 이와 함께 방안에 부착된 실내온도조절기로도 가스

난방과 온수는 보일러의 성능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또 사고가 나면 크고 작은 재산 손실은 물론이고 사람의 살상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뛰어난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돼야 한다. 사진제공_ 귀뚜라미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을 담그는 봉사회원들. 보일러를 통해 전국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는 일 못지않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랑의 온도를 1℃씩 높여 가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진제공_귀뚜라미

누출 여부를 알려주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택했다. 지진감지기는 지진이나 공사 등으로 진동이 심할 때 요긴하다. 보일러 가동을 중단시켜 폭발, 화재 등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사전에 막아 주기 때문이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에어백 장착 여부가 자동차의 안전과 가치를 높여주듯이 가스누출탐지기와 지진감지기는 보일러의 안전과 가치를 높여 준다”고 비유한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는데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진감지기까지 장착한 것은 소비자를 배려하는 귀뚜라미만의 고집이자 소신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더 가깝게, 더 친근하게

1962년 창립 이후 가파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귀뚜라미가 첫손에 꼽는 것은 소비자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렇게 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 보일러의 수준을 한 단계씩 끌어올리고 관련 산업을 선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도 소비자 덕분이라는 게 귀뚜라미의 경영철학이다.

소비자에게 더 가깝고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결집된 제품이 ‘거꾸로 타는 보일러’와 ‘4번 타는 보일러’다. 보일러는 원래 아래에서 위로 연소되는 게 정석이지만 ‘거꾸로 타는 보일러’는 이를 거꾸로 뒤집어 먼저 위에서 아래로 태우고 나서 다시 아래에서 위로 한 번 더 연소시켜 보일러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한두 번 타고 마는 기존의 보일러와 달리 ‘4번 타는 보일러’는 연소된 가스가 4단계를 거쳐 이동하며 열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열을 전달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지고 열이



머무는 시간도 길어져 많은 양의 물을 빨리 데울 수 있으므로 가스요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한마디로 온수와 난방 능력은 높이고 비용은 줄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제품이다.

어렵고 복잡한 보일러 기술을 한글로 쉽게 풀이해 제품명으로 채택한 것도 신선하다. 제품의 이름을 한 번만 들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대단한 경쟁력이 아닐 수 없다. 귀뚜라미의 우수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알려 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최상의 브랜드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게 회사의 자체 평가다.

국내 보일러업계 최초로 2010년 모바일 홈페이지를 공식 개설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스마트폰 가입자 2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이를 스마트폰에 최적화하는 등 디지털 기기 활용에도 적극적이다. 행사 안내나 홈페이지 연결 수단 정도에 그쳤던 QR코드를 보일러와 실내온도조절기 표면에 부착해 제품 정보를 빠르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돋보인다. 예를 들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예약, 외출, 목욕 등의 다양한 기능을 안내받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에 이상 현상이 나타났을 때 집에서 간단히 대처할 수 있는 요령도 알 수 있다.

따뜻한 이웃, 따뜻한 기업으로

귀뚜라미는 전국의 가정을 따뜻하게 돌보는 일 못지않게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랑의 온도를 1℃씩 높여 가는 데에도 일찍부터 앞장서 왔다. ‘나눔 경영’이란 용어조차 생소했던 1984년에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지금 2천 200억 원 규모의 든실한 재단으로 발전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소년, 저소득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국내 국공립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학술 연구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대리급 이상 직원의 부인들이 모여 1993년 발족한 귀뚜라미주부봉사단은 회사의 사업 영역이 보일러에서 에어컨으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봉사활동 범위를 더욱 넓히고자 창업자 최진민 회장이 2003년 사재 500억 원을 출연하면서 귀뚜라미복지재단으로 확대 개편됐다. 기존의 주부봉사단에 젊은 직원과 임직원 자녀로 구성된 청년봉사단이 가세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오지와 벽지에서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월 1~4회씩 연간 총 372회의 맞춤형 봉사를 펼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단순히 돈벌이에만 나서는 기업이 아니라 따뜻한 이웃, 나아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눔경영을 실천해 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부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까지 일부러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야말로 귀뚜라미식 나눔경영의 정수인 셈이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창립 후 반세기 동안 가파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귀뚜라미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국내 보일러의 수준을 한 단계씩 끌어올린 것을 꼽는다. 이러한 노력이 결집된 제품으로 ‘거꾸로 타는 보일러’ (위)와 ‘4번 타는 보일러’ (아래)를 들 수 있다. 사진제공_ 귀뚜라미

바르지 않고 먹기만 해도 예뻐진다!

‘먹는’ 화장품시장 급성장



미백, 보습, 주름 방지, 피부색 개선, 탄력 향상... 화장품의 기능이 한층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제는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장품 사용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태까지는 화장품이라면 피부에 바르는 게 정석이었지만 앞으로는 바르지 않고 먹기만 해도 예쁘고 건강해지는 ‘먹는 화장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태세다.

얼굴에 바르던 화장품을 1세대로 분류한다면 먹는 화장품은 2세대인 셈이다. 일일이 피부에 바르거나 팩을 붙이던 번거로운 화장법에서 벗어나 먹거나 마시면서 피부를 가꾸는 제품들이다. 바르는 화장품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그대로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한 영양분이 몸속에 직접 흡수돼 피부 고유의 힘을 되찾고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 소비자들이 주목하면서 향후 큰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먹기만 해도 예뻐진다?

먹는 화장품이란 히알루론산, 콜라겐, 글로코실세라마이드 등 피부에 좋은 성분을 알약이나 음료 등의 형태로 간편하게 만들어 복용함으로써 피부를 근본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제품을 가리킨다. 일본은 이미 1조5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국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 등 유명 화장품회사들이 앞장서서 시장을 키워 가는 중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0년 500억~600억 원에서 지난해 1천500억 원으로 3배가량 성장한 데 이어 올해에는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먹는 화장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효능과 안전성을 놓고 반신반의하는 이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간편하게 먹기만 해도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의 이목



먹는 화장품이란 피부에 좋은 성분을 알약이나 음료 등으로 간편하게 복용함으로써 피부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제품을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이미 시장 규모가 1조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국내에서도 유명 화장품회사는 물론 제약회사들까지 가세해 시장을 빠른 속도로 키워 가고 있다.

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피부 고유의 힘을 근본적으로 되찾게 도울 뿐만 아니라 기존 화장품을 더욱 잘 받게 해 준다는 입소문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이 꿈틀거리자 화장품업계는 물론이고 제약업계까지 앞다퉈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준비하는 등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먹는 화장품 앞다퉈 출시

국내 화장품업계 선두주자인 아모레퍼시픽은 먹는 화장품시장에도 발 빠르게 뛰어들었다. 피부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콜라겐 생성과 보충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일찌감치 내놓고 영역 구축에 나선 것이다. 청정 바다에서 추출한 '마린 콜라겐'이 주원료이며 몸속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콜라겐의 흡수율을 크게 높인 게 강점이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캡슐 형태의 먹는 화장품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에는 콜라겐 제품으로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먹는 화장품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두 회사에 도전장을 내민 게 2009년부터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맹추격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이다. 자기 무게의 1천 배가 넘는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이 주성분인 CJ제일제당의 제품은 하루에 단 2알만 먹어도 피부의 수분 저장 능력이 대폭 향상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식약청의 기능성 인정에 힘입어 2010년 5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을 지난해 200억 원대로 끌어올렸고 올해에는 다시 400억 원으로 목표를 높였다.

히알루론산은 고가의 보습제로 알려진 화장품에도 아주 극소량만 들어 있지만 CJ제일제당의 제품 2알에는 순도 100%의 히알루론산이 120mg이나 함유돼 있다는 게 회사 측 자랑이다. 정현웅 CJ제일제당 건강식품사업본부장은



화장품이라고 하면 피부에 바르는 게 정석으로 여겨졌으나 앞으로는 먹기만 해도 예쁘고 건강해지는 '먹는 화장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태세다. 사진 연합뉴스 DB

“최근 20~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미용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고 전하고 “피부가 지닌 힘을 복원해 주는 먹는 화장품이 지속적으로 확산돼 우리나라에서도 머지 않아 일본과 마찬가지로 1조 원대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들 화장품회사는 TV 광고 등을 통해 먹는 화장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체험 행사와 입소문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는 등 소비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시장을 공격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제약회사들 “우리도 뒤질 수 없다”

먹는 화장품시장이 꿈틀거리자 제약회사들도 속속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10월 피부 속 건강까지 챙김으로써 촉촉한 피부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CJ제일제당은 하루 2알 섭취로 피부의 보습력을 한결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데 힘입어 2010년 50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을 올해에는 400억 원으로 높인다는 목표다. 사진제공_ CJ제일제당

의 시판에 돌입했다. 피부 보습 성분에 광동제약의 48년 기술력을 접목시켜 건강과 아름다움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국제약품은 히알루론산, 콜라겐, 비타민 등이 함유된 캡슐을 들고 나왔다.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피부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하루에 한 번씩 캡슐 2알을 복용하면 그만이다. 지난해 7월 먹는 화장품시장에 발을 들인 대상웰라이프는 소비자가 각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갖췄으며 수많은 인체 대상 시험을 통해 피부의 건조 정도와 수분 보유량 등을 개선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인 비타민하우스도 몸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아름다움을 꾀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으로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피부에 이로운 각종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만큼 피부 보습 효과가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피부와 점막 형성에 필요한 비타민A,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주는 비타민C 등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

밖에 현대약품도 피부 건강을 돕는 제품을 내놓았다.

대체상품에서 당당한 주역으로

먹는 화장품시장은 초기에는 바르는 화장품의 대체상품 정도로만 여겨졌다. 땀이 많이 나서 화장을 덜하기 때문에 판매가 줄어드는 여름철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수적인 제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기능성을 인정받으면서 화장품시장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인체 대상 시험을 통해 피부 표면에서 수분 증발량이 감소하고 피부 결이 한층 매끄럽고 촉촉하게 변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치나 희소성, 웰빙 등에 대한 투자가 부쩍 늘어나는 최근의 경향에 비춰 볼 때 먹는 화장품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지훈 기자 ibuddy@hanmail.net

소자본 · 소점포 창업이 뜬다

주5일 수업 확대로 가족 단위 소비자 주목

주5일 수업제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자 창업시장도 덩달아 분주한 모습이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 단위 소비의 특성을 파악해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사업에 한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부스에서 자신의 제품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는 청년 창업자들. 올해에는 직원 없이 일하는 1인 창업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대학가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소점포 창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임현정 기자

이런저런 이유로 창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진입하기도 쉽지 않지만 성공하기란 더욱 어려운 게 창업시장이다. 자신감만 믿고 털커덕 일을 벌이고 나서기보다는 소자본, 소규모로 시작해 안정감을 높이면서 충분한 경험을 쌓는 것이 창업의 기본 원칙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달라진 사회상은 창업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에 성공하려면 좋은 섹터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주5일 수업 확대로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확대되는 만큼 가족 단위 소비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 들어 부쩍 늘어나면서 창업시장의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은퇴 후 창업과 1인 창업, 여성 창업 등도 이 점을 간과해서는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점포 거래 전문기업인 점포라인이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사한 결과, 창업자금을 자신의 힘으로 조달했다는 자영업자는 10명 중 겨우 3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은행이나 아는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정부 등의 지원금을 받아 어렵게 창업에 나선 경우들이다. 자영업자가 꾸준히 늘면서 점포 권리금은 물론 보증금과 월세도 오르는 추세여서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창업 현장에 나가 보면 준비 과정에서 기대치가 높아져 애초에 세운 예산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로 인해 대출 부담이 커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고 전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때 대출금의 비중은 30% 이내가 적당하며 많어도 40%는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적은 비용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자 품목’을 골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으며 창업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전에는 외식업 등에 치우쳤던 여성들의 창업이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진_이은정 기자

야 한다는 조연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가족 단위 소비자에 주목하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전국의 1만1천500여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약 97%가 일주일에 5일만 수업한다. 지난해까지 토요일에는 격주로 학교에 나가 수업했지만 올해부터 이른바 '놀토'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별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자 창업시장도 덩달아 분주한 모습이다.

창업물 경제연구소(CERI)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가족 단위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구체적으로는 여행, 아웃도어용품, 외식업, 교육시장 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에는 시간이 없어 시도하지 못했던 취미·여가산업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봐야 한다.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들 시장을 눈

여겨보고 가족 단위 소비자의 특성에 맞춰 공략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실속형·효자 품목 골라야

3월15~17일까지 3일에 걸쳐 서울무역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창업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올해의 인기 업종을 예상해 보고 시장 흐름도 엿볼 수 있어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창업시장을 선도해 온 크고 작은 브랜드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쟁력을 가늠하고 올해 창업시장을 새롭게 전망해 보는 자리가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최근 몇 년 새 창업시장이 무르익으면서 생겨난 다양한 신생 브랜드도 대거 등장해 예비창업자와 업종 변경을 생각하고 있는 기존 자영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품목들에 눈길이 많이 쏠렸다.



주5일제 수업 확대에 여행, 아웃도어용품, 외식업, 교육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창업에 열두에 두고 있다면 관련 시장을 눈여겨보고 가족 단위 소비자의 특성부터 파악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진_이은중 기자

직원 없이 일할 수 있는 1인 창업에 적당한 품목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대학가에서 소점포로 창업할 수 있는 품목이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최근 들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어느 프랜차이즈의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용이 적어 자본금 부담이 크지 않으며 경력이나 직원 등도 필요하지 않아 초보자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소개로 무경험자들의 높은 반응을 끌어내기도 했다. 창업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은퇴와 계속되는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인해 올해 역시 창업시장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특히 실속형 품목에서의 창업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성 고객 상대하는 W2W 창업

우리나라의 창업인구는 약 300만 명에 이르며, 이중 여성이 120만 명가량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지만 창업시장 역시 예외가 아닌 셈이다. 품목도 전에는 외식업 등에 치우쳤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여성 창업의 특징이다. 전에는 생계를 떠맡아 창업전선에 나서는 중·장년층이 대

부분이었다면 요즘은 직장생활을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한 30대에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 경험 없이 곧바로 뛰어드는 20대에 이르기까지 폭이 한결 넓어졌다. 집에서 살림과 자녀 교육에만 전념하다 뒤늦게 여사장으로 변신해 돈도 벌고 자기계발에도 성공한 당찬 주부도 적지 않다.

여성들의 활약은 남성 중심이던 기존의 창업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최소한의 노동으로 체력적인 열세를 만회할 수 있거나 복잡한 인력 관리 등이 필요 없는 품목 위주로 창업시장이 재편된다는 얘기도.

여성만의 장점을 십분 살린 창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교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살리는 한편으로 세심하고 꼼꼼한 서비스와 고객 관리 등이 가능하며 주로 여성 고객을 상대하는 ‘W2W(Woman to Woman)’ 창업이 바로 그것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패션·헬스·미용 분야가 대표적이다.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데다 꾸준히 인기를 끄는 업종이라 위험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주 고객이 여성이다 보니 같은 여성으로서 고객의 심리와 요구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어 남성 창업자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장점이다. 

서지훈 기자 ibuddy@hanmail.net

모바일메신저시장의 대혈투

카카오톡 독주에 틱톡, 라인, 마이피플 도전장
RCS는 과연 '폭풍의 핵'이 될 것인가



스마트폰의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겨지는 모바일메신저시장을 놓고 벤처업계, 포털사이트,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 메신저 앱'으로 불리는 선두주자 카카오톡의 독주 체제가 아직까지는 강고하나 빠른 속도를 내세운 '틱톡'의 추격이 매섭다. 3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버가 저마다 내놓은 '라인' '마이피플' '네이트온톡'은 포털의 강점을 바탕으로 잇따라 부가 서비스를 내놓으며 가입자를 꾸준히 불리고 있다.

정작 '폭풍의 핵'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통 3사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한 차세대 모바일메신저 'RCS(Rich Communication Suite)'다. 오는 7월께 등장할 것으로 점쳐지는 RCS는 소프트웨어(SW) 기반 모바일메신저로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여러 기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RCS가 올 여름 모바일메신저시장을 뒤흔들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속도왕' 틱톡, SK플래닛 품에 안기나

지난해 7월 벤처회사 매드스마트가 내놓은 틱톡은 3개월 만에 누적 내려받기 300만 건, 6개월 만에 1천300만 건을 각각 돌파했다. 카카오톡의 종전 기록을 각각 5개월과 6개월이나 단축한 것으로 3월 초 현재 내려받기는 약 1천400만 건을 헤아린다. 사용자 수로는 여전히 카카오톡과 큰 격차가 있고 라인이나 마이피플에도 조금씩 뒤지지만 실제 사용률로는 이미 2위에 올라섰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틱톡의 폭발적 성장세는 '속도'가 비결이다. 카카오톡이 가입자 폭증에 따른 메시지 전송 속도 저하로 시달리는 사이에 별다른 홍보 없이 그저 '메시지 전송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입소문만으로 사용자를 급격히 불린 것이다. 틱톡은 자체 개발한 압축 기술 덕분에 메시지당 데이터 전송량이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 속도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그래서인지 스마트폰제조사들 못지않게 모바일 메신저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하기 그지없다. 시장을 창출하고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카카오톡을 따라잡기 위해 벤처회사, 포털사이트, 이동통신사가 저마다 차별화된 무기를 장착한 모바일메신저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어느 메신저보다도 적고 3세대(3G) 통신에 최적화된 송수신 알고리즘을 구현해 전송 속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틱톡이라는 이름도 '틱하고 보내면 톡하고 받는다'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틱톡은 젊은층에서 특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안드로이드 앱 관련 통계를 분석하는 앱인 '앱순이' 이용자 250만 명을 조사한 결과 올 2월 기준으로 틱톡은 10~20대의 비중이 60.5%인 반면 카카오톡은 43.9%에 그쳤다. 30~40대는 각각 33.1%와 49.9%로 카카오톡이 많았다. 앱순이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자 대

부분이 내려받은 카카오톡은 사용자층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부모, 선생님, 상사 등을 피해 자신들만의 소통 공간을 원하는 10~20대가 틱톡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규모 인터넷 카페 '모임'과 메신저 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구름'의 인기몰이도 대단하다. 구름의 페이지 조회(PV)는 하루 평균 3천만 회로 월 10억 회에 육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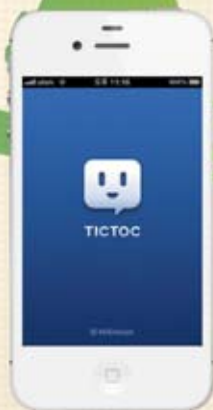
하지만 아직 틱톡이 시장에 안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진 보기 기능 장애와 늦은 서비스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뚜렷한 수익모델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네이트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이 최근 매드스마트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매드스마트 인수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포털은 물론 모바일메신저 경쟁에서도 네이버와 다음에 밀리는 SK플래닛은 지난해 SK텔레콤에서 분사하면서 경쟁력 있는 벤처회사 인수·합병(M&A)을 시사한 바 있다. 매드스마트 관계자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히고 "머잖아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쟁업체들은 M&A 성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탄한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력이 만나면 강력한 상승효과를 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먼저 돌풍 일으킨 '라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내놓은 라인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일본, 대만, 태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등 16개국에서 애플 앱스토어 무료 부문 1위를 차지했고 특히 일본에서는 800만 내려받기를 기록하며 확고부동한 선두 모바일메신저로 자리매김했다. 라인은





스마트폰의 필수 앱으로 여겨지는 모바일메신저시장을 놓고 경쟁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어르신들이 IT와 함께하는 행복한 실버세상' 행사에서 모바일메신저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 홍기원 기자

3월 초 내려받기 2천만 건을 넘어섰다. 국가별 라인 사용자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40%이고 나머지 국가들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계 시장 비중이 높은 것은 NHN의 의도된 전략에 따른 것이다. NHN은 작년 2월 시장에 내놓은 '네이버톡'이 국내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신속하게 전략을 수정해 해외로 고개를 돌렸다. 작년 5월에는 창업자인 이해진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직접 일본에 건너가 라인 개발을 진두지휘했고 불과 한 달 만에 일본어 기반이 나왔다.

NHN은 인기 탤런트 '백기'가 출연하는 TV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감정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스티커와 이모티콘 등을 제공한 것이 라인의 일본 내 성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의 성향과 잘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또 앞서 진출한 카카오톡과 달리 처음부터 피쳐폰(일반 휴대전화)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한몫 단단히 했다. 일본에서는 스마트폰보다 피쳐폰 사용자가 훨씬 많다.

가장 돋보이는 기능은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친구로

등록되는 'Shake IT(셰이크잇)'이다. 서로 셰이크잇 버튼을 누른 뒤 가까운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흔들면 전화번호나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친구로 추가된다. 카카오톡에 없는 무료 음성통화도 강점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끼리는 통화요금 걱정이 전혀 없고 통화 품질도 초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그날의 날씨를 알려주는 'LINE 날씨 친구'나 한국어와 일본어를 상호 번역해 주는 'LINE 일본어 통역'도 이채롭다. NHN 관계자는 "250종에 이르는 스티커와 풍부한 이모티콘, 무료 음성통화 등의 인기가 높다"고 전하고 "조만간 영상통화와 다자간 음성통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피플, PC와 연동으로 경쟁력 확보

카카오톡의 뒤를 이어 내려받기 1천800만 건을 달성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다.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작은 화면과 불편한 입력기 탓에 오타가 잦고 속도도 느려 불편하다. 마이피플은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라면 기존의 PC용 메신저를 쓰듯이 넓은 화면과 자판으로 쾌적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PC 버전 마이피플을 사용하는 동안은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지 않다가 자리를 비우면 자동으로 오는 등 끊임없는 연동을 지원하는 점도 이용자들에게 후한 점수를 따고 있다. PC와 스마트폰을 연계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시도가 생각보다 반향이 좋아 네이트온톡과 톡톡, 라인에서도 잇따라 PC 버전을 내놓고 있다. 다만 카카오톡은 PC 버전 출시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마이피플은 라인과 마찬가지로 무료 음성통화와 함께 100여 종의 스티커를 무료로 제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다음은 또 포털의 장점을 심본 발휘해 '다음 지도'와 스마트폰의 부족한 저장 공간을 보완하는 '다음 클라우드' 등으로 마이피플을 측면 지원하고 있으며 카페와 영화, 소셜 쇼핑 등 포털 내 인기 서비스를 마이피플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카카오톡 "올해 1억 명 고지 넘는다"

카카오톡은 출시 2주년인 3월19일을 10여 일 앞두고 가입자 4천200만 명과 내려받기 8천400만 건을 넘어섰다. 가입

자는 카카오톡을 내려받은 뒤 가입인증을 하고 1번이라도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들이다. 가입자는 작년 4월 1천만 명, 7월 2천만 명, 11월 3천만 명을 각각 돌파했다. '국민 메신저 앱'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치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7천만~8천만 명 달성은 무난하고 해외에서 더욱 힘을 낸다면 1억 명 고지도 가능하다는 업계의 중론이다. '1억 명'은 카카오톡이 궁극적인 경쟁자로 삼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한 걸음 다가선다는 의미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가입자는 각각 8억여 명과 5억여 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톡 접속자는 하루에 2천만 명이 넘고 매일 13억 건의 메시지를 작성한다. 1년 전 1억7천만 건의 8배가 넘는다. 가입자들이 수신하는 메시지는 하루 26억 건이다. 작성 메시지와 수신 메시지 건수가 서로 다른 것은 그룹채팅 기능을 이용하면 한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를 여러 사람이 수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발주자들이 새로운 기능과 빠른 속도 등으로 맹추격하는 듯해도 카카오톡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메시지의 양 때문이다. 시장점유율을 정확히 보려면 가입자나 내려받기 건수보다는 실제 메시지 전송 건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내려받고 쓰지 않는 허수가 꽤 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그러나 구체적인 전송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틱톡만이 가입자 1천만 명을 돌파한 작년 11월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건수가 약 1억 건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당시 카카오톡의 전송건수는 약 6억 건이었다. 시장 선점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초기의 고민거리였던 수익모델도 어느 정도 해결돼 가는 모양새다. 요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게 첫 번째 변화이고,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플러스 친구'로 추가되는 기업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변화다.

유료화 선언한 RCS, 과연 지각변동 일으킬까?

3월1일 폐막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2'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RCS 공동 브랜드 '조인(Joyn)'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모바일 메신저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GSMA에는 국



마이피플은 스마트폰과 PC를 연동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다. 마이피플의 시도가 생각보다 반향이 좋다. 네이트온톡과 틱톡, 라인에서도 잇따라 PC 버전을 내놓고 있다. 사진제공_ 다음커뮤니케이션



오는 7월께 등장할 것으로 점쳐지는 차세대 모바일메신저 RCS는 폭풍의 핵으로 여겨지고 있다. RCS는 기존 모바일메신저로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여러 기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P_ 연합뉴스

내 이통 3사가 모두 가입해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RCS 추진단 창립 멤버이며 아시아권 국가로는 유일하게 추진단 최상위 조직인 '리더십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통 3사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RCS는 PC메신저처럼 주소록만 봐도 상대방이 통화 중인지, 전화를 꺼냈는지 꺼냈는지, 부재중인지, 회의 중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상대방 상태에 따라 실시간 대화나 메시지 전송, 음성통화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화 중간에라도 동영상이나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해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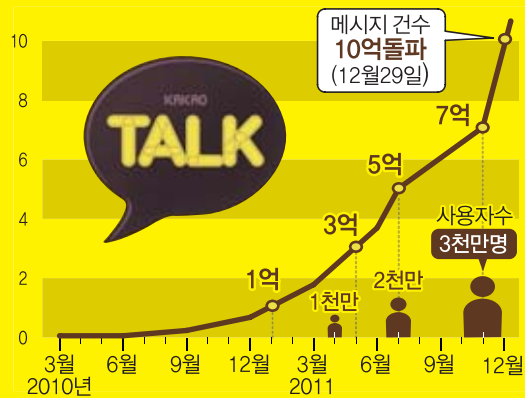
히 단말기 종류나 통신사업자, 유·무선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동할 수 있다는 게 기존 모바일메신저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대로 가면 카카오톡 등이 긴장할 만도 하나 이통 3사가 최근 유료화로 급선회하는 바람에 파괴력은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발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3G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시행에 따른 주파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RCS마저 무료화된다면 데이터 양은 더 늘고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에 유료화로 기울었다는 관측이다.

요금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이통 3사 사이에 논의가 한창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RCS가 기존 메신저와 완전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단순히 문자메시지 한 건의 가격보다 싸거나 비싸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RCS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통사들이 연간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문자메시지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RCS 요금이 정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승희 기자 qqutti@hanmail.net

카카오톡 성장 추세



자료제공_ 카카오톡

그래픽_ 김예원 인턴기자



일자리, 이제 동네에서 찾는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호응 높아

고용부가 시행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구인구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효과를 내고 있다.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가 심사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는 지자체들의 참여 경쟁이 뜨겁다.



서울 동대문시장의 고용 창출력은 연간 10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중추 역할을 하는 봉제공장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미래가 불투명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봉제공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_연합DB

서울 동대문시장은 밤이 낮보다 더 눈부시다. 대형 패션물은 물론이고 원단, 의류와 각종 부자재, 혼수품, 신발, 잡화 등의 도소매시장이 밀집해 있어 물건을 한 푼이라도 싸게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제는 외국인 고객들도 곧잘 눈에 띄는 정도로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인 도매상들이 '큰손'으로 급부상하며 동대문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단의 80%가 동대문시장을 거친다. 이곳에는 크고 작은 2만3천여 가게와 공장, 관련 사업체 등이 몰려 있다. 여기를 터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은 어림잡아 6만여 명.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다. 인근의 봉제공장까지 치면 동대문시장의 고용 창출력은 10

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동대문시장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의류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봉제공장들의 심각한 인력난 때문이다. 한국의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봉제공장 종사자의 85.3%가 40~50대다. 30대는 7.5%이고 20대는 겨우 1.8% 뿐이다. 숙련기술자들이 후진을 양성하지 못하고 하나둘은 퇴해 버리면 동대문시장의 생산기반은 10~20년 내에 완전히 붕괴하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이 설득력을 얻는 이 유다.

동대문시장에 '젊은 피' 수혈된다

암울한 미래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겨났다. 동대문 시장에 정통한 사단법인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와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이 손잡고 지난해부터 취업 취약계층에 무료로 봉제 교육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간에는 점심 값도 준다.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상담실과 봉제 전문 인력은행, 봉제인력 구인구직 사이트 '수다 잡 네트워크'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취업 지원 조직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는 첫 졸업생 180명을 배출했다. 그 중 심화과정을 이수한 30명은 전문기술자로 대접받으며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20~30대 졸업생이 65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동대문 봉제공장에 젊은 피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수업은 경력 35년 이상의 전문 강사들이 철저하게 실무 중심으로 진행한다. 충실한 교육과 꼼꼼한 취업 알선 과정이 알려지면서 가나,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페루 등 13개 나

라의 공무원이 여성 직업훈련 기법을 배우려고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00명이 늘어난 280명의 봉제 전문 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누가 감당할까?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덕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책임진다. 고용부가 3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2억 원을 보탰다.

정부와 지자체 합심해 일자리 만든다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고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허덕인다. 이 같은 구인구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양자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역 특성에도 맞고 내실도 갖춘 건실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부가 구인구직난 해결책의 하나로 2006년 시작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관내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가 심사를 거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은 총 사업비의 5~30%다.

구인구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보탬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74개 사업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서울시 봉제 전문 인력 교육사업을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의 농촌체험 전문 강사 양성사업, 경북 김천시의 도·농 순환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우수 사례로 뽑혔다.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그 다음해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박정웅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과 서기관은 “지난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총 5천80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고 밝혔다.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

우수 사례 중에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과정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덕이지구 등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 지역과 전국 최대 규모의 덕양구 고양화훼단지 등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형 도시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덕택에 농촌체험 희망자 유치에 유리한 편이다. 그러나 농촌체험관광을 농장주나 농업 종사자들이 진행하고 있어 전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매년 50여 명의 전문 농촌체험지도사를 배출한다. 졸업생들은 농촌체험지도사, 방과 후 특기적성 강사 등으로 취업하거나 체험농원을 창업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_연합DB



전남 강진을 대표하는 특산품은 청자다. 지난해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강진청자축제를 찾았다. 그러나 공방이 26개에 불과해 막대한 수요를 맞추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강진도예학교에서 수업 중인 예비 청자 장인들. 사진 연합뉴스DB

문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이 어려웠다.

이때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이 해법으로 등장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30~59세 여성은 지난해 3월 현재 23만7천488명으로 약 40%인 9만3천963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었고 대졸 이상 고학력자도 28.3%나 차지했다. 전업주부인 이들 가운데 희망자를 모집해 농촌체험관광 전문가로 육성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매년 50여 명의 농촌체험지도사를 배출한다. 교육은 농촌체험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는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압화(꽃과 잎을 눌러서 말린 그림) 제작, 천연비누 만들기, 실내정원 조성 등 다양한 실습도 병행된다. 졸업생들은 파주와 고양에서 농촌체험지도사, 방과 후 특기적성 강사 등으로 취업하거나 체험농원을 직접 창업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도·농 복합형 도시인 경북 김천은 그동안 인적, 물적 자원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도시 지역에서는 취업이 힘든 근로빈곤층이 늘고, 농촌 지역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비싼 수수료를 내고 외지 인력을 데려오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김천시는 이에 맞서 농업인 자녀 청년인턴 채용, 결혼이주

여성 취업 교육, 장애인과 고령자 취업 지원 등 다채로운 대책을 펼쳤다. 시행 첫 해임에도 교육이수자 23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명이 일자리를 얻는 성과를 내면서 인근 지자체들도 잇따라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산품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특산품과 일자리를 연결시킨 사업도 다수 채택됐다. 전남 강진을 대표하는 특산품은 청자다. 강진 고려청자 도요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지로 등록돼 있고 지난해 해에만 100만 명의 인파가 찾은 강진청자축제는 8년 연속 국가 지정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다. 그러나 공방은 고작 26개에 불과해 막대한 수요를 맞추기가 버거웠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한 강진군은 도예과 교수와 청자 장인을 강사로 초빙해 8개월 과정의 강진도예학교를 개교했다. 지난해 말 졸업한 1기 30명은 관내 공방이나 도예기업에 취업해 예비 청자 장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 도예학교 졸업생의 취업과 창업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청자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전북 순창 하면 무엇보다도 된장과 고추장이 먼저 떠오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결혼이주 여성의 취업뿐만 아니라 한국 적응에도 도움을 준다. 전남 영광의 사회적 기업 '산머루마을'에서 영광의 특산물 모싯잎 송편과 굴비를 보관할 수 있는 아이스 팩을 만들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사진, 장덕중 기자

다. 순창은 장류 발효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예전부터 장류를 왕에게 진상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다. 지금도 장류는 순창군 총생산액의 46.5%를 차지하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다. 순창은 85개 장류제조업체가 성업하며 전국 장류시장 매출액의 44%를 점유(2009년 현재)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인구가 전체의 22.5%에 이르러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게 문제다.

순창군은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계해 장류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4개월의 실무 위주 교육을 마친 1기 졸업생의 70%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다. 특히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인구 고령화도 막고 장류산업 활성화에도 보탬을 주려는 순창군이 어렵사리 찾아낸 묘수인 셈이다.

지역 일자리 올해 9천 개 생긴다

고용부는 올해에도 공모 절차를 거쳐 236개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3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작년보다 35%나 늘어난 것으로 덕분에 일자리 9천 개가 더 생길 전망이다. 대

구는 폐원단 재활용 부문에서 일자리 100개를 만든다. 대구 섬유기업들에서 배출되는 폐원단을 독창적인 재활용 상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에 직업훈련을 거친 중·장년층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남 장흥군은 편백 숲에 세워질 '아토피 없는 마을' 운영 인력 50명을 결혼이민자와 고령자 가운데에서 뽑기로 했다.

또 충북 단양군은 관광휴양도시의 매력을 살려 경력 단절 여성 30여 명에게 의료관광 안내나 노인 건강 관리 분야 등의 취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정보기술(IT)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성장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인력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시행한다.

이재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이 발굴된 점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풀이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유도하고 청년이나 취약계층이 직업능력을 키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희 기자 qquitti@hanmail.net



1

1. 위용 드러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로 주목받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2013년 7월 완공된다. 옛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들어서는 DDP는 이라크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으며 컨벤션홀과 전시관, 디자인정보센터, 지하연결 광장 등으로 구성된다. 사진_임헌정 기자

2. “이것이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2012 에너지 미래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모형을 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총장,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 라젠드라 파차우리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의장, 빌 필킹턴 캐나다 캔두 에너지 부사장. 사진_이지은 기자

3. LPG 값 최고, 시름 깊어지는 택시업계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주로 가정 난방용이나 택시 등 차량 연료에 쓰이는 LPG 가격이 국제 유가 강세에 따라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사진_이상학 기자

4. “봄맞이 나무 한 그루 심어볼까?”

본격적인 식목철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산림조합중앙회의 나무전시판매장에서 시민들이 봄에 심을만한 묘목을 살펴보고 있다. 묘목 가격은 지난해보다 20~60% 올랐다. 한파와 잦은 비로 어린 묘목이 얼어 죽거나 습해(濕害)를 입었기 때문이다. 사진_신영근 기자



2



3



4



1

1. 쿠바, “시가 제조의 달인은 바로 나”

쿠바 수도 아바나의 한 시가 공장에서 직원들이 시가를 제조하고 있다. 쿠바 국영기업 코포라시옹 하바노스에 따르면 지난해 아바나산 고급 시가의 판매량은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권역에서의 매출 증대에 힘입어 9% 성장했다. EPA_ 연합뉴스

2. 스코틀랜드, 244년 역사 브리टे니커 사전 ‘종이책’과 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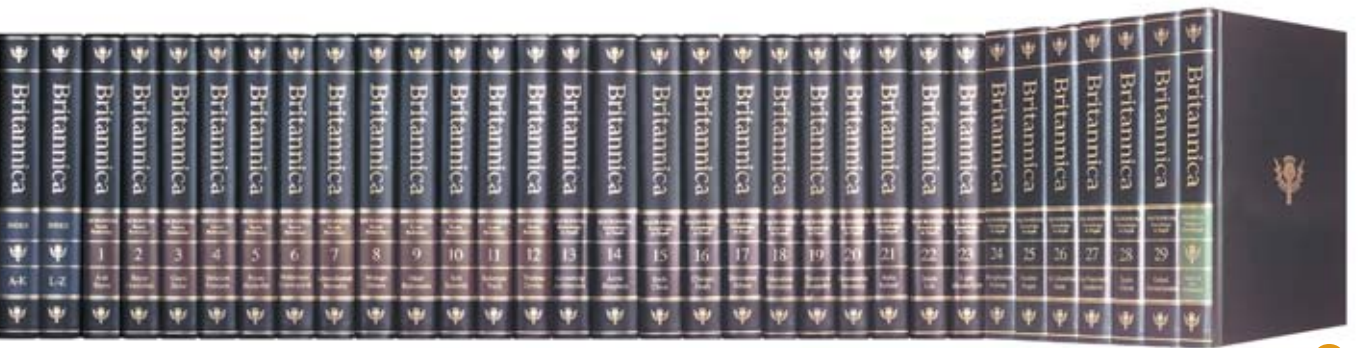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1768년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문 백과사전 브리टे니커가 육중한 무게의 ‘종이책’과 영원한 결별을 선언했다. 온라인판 브리टे니커 백과사전의 1년 구독료는 70달러로 종이 백과사전의 1천400달러보다 훨씬 저렴하다. AP_ 연합뉴스

3. 영국, “올림픽 준비 잘 돼가요”

오는 7월 개막하는 런던 하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높이 11m, 폭 25m의 초대형 오륜 마크가 바지선에 실린 채 템즈강에 모습을 드러냈다. 주 경기장이 위치한 런던 북동부 리 밸리(Lea Valley)의 올림픽공원 조성 작업은 거의 마무리됐고 교통 및 경비 대책 등을 완성하기 위한 도상 연습이 한창이다. AP_ 연합뉴스

4. 나이지리아, “저걸 뜯어서 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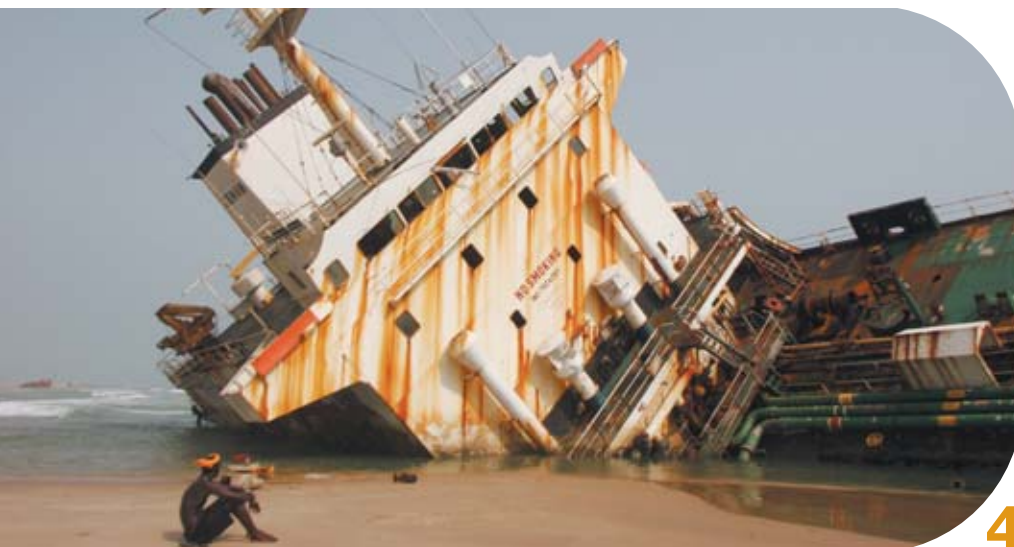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타크와만(灣) 인근 해변에 버려진 폐선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다. 이 해안 일대에는 폐기된 선박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으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AP_ 연합뉴스



2



3



4



일본 정부는 도쿄만 북쪽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최대 1만천 명이 숨지고 건물 약 85만 채가 소실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1일 쓰나미가 덮치고 있는 미야기현 나토리시의 해변 마을. 교도_연합뉴스

대지진 1년 후에도 공포에 떠는 일본

도쿄 도심, 직하형 대지진 임박설로 뒤숭숭

정치 혼란으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

오사카 등 위기관리용 副首都 지정 논의도

전 대미문의 피해를 안겨준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이 지났건만 일본은 지금도 지진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열도 자체가 지진대에 올라앉아 있기는 하나 작년 3월11일 역대 최악인 규모 9.0의 거대 지진 이후 여진이 하루도 멈추는 날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당시 대지진이 일본 중북부 태평양 연안 도호쿠(東北)의 지층을 뒤흔들면서 인근 지진대에 충격을 준 데 따른 것으

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에는 도호쿠 지역에서 빈발하던 지진이 수도권으로 남하해 도쿄를 아연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3월14일에도 오후 6시를 조금 넘어 도호쿠 앞바다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일어났고 홋카이도 동부와 아오모리(靑森)·이와테(岩手)현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 5 안팎이 측정됐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아오모리현과 이와테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의 2011년 3월28일의 모습(위)과 약 1년이 지난 2012년 2월23일의 모습. 주택가는 웬만큼 정리됐으나 선박은 그대로 남아 있다. AP_ 연합뉴스

만, 진도가 7급으로 올라가면 30% 정도가 붕괴한다. 피해가 5~6배 정도로 확 늘어난다는 얘기다.

1년간 지진 1만119차례

일본 기상청에 의하면 동일본대지진 이후 1년 동안 일본에서 일어난 진도 1 이상의 유감(有感) 지진은 1만119회에 달했다. 2001~2010년에는 연간 1천253~2천257회였지만 지난 1년은 1만 회를 넘어선 것이다. 기상청이 동일본대지진의 여진 권역으로 설정한 아오모리현에서 지바현 보소(房総)반도에 이르는 남북 600km, 동서 350km의 직사각형 구역에서는 진도 1 이상의 여진이 7천224회나 발생했다.

최대 진도는 4 이상이 231회, 5약(弱) 이상이 47회였다. 월별로는 지난해 3월이 2천320회로 가장 많고 4월 1천450회, 5월 682회 등으로 줄어들 1월과 2월에는 244회와 182회를 각각 기록했다. 기상청은 “여진 발생횟수는 점점 줄고 규모 7 이상의 큰 여진이 발생할 확률도 낮아졌지만 앞으로도 강한 여진이 일어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도쿄대학 지진연구소의 사토 히로시(佐藤比呂志) 교수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열도의 지하를 구성하는 지각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암반의 상태가 불안정해 지진이 빈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작년 3월 1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한신(阪神)대지진의 발생 확률은 30년 이내 0.02~8%였고 작년 동일본대지진은 10년 내 4~8%였지만 예상을 뒤엎고 초기에 발생했던 만큼 거대 지진은 일본 어디에서든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Japan

동일본 대지진 이후 1년 동안 일본에서 일어난 진도 1 이상의 지진은 1만119회에 달했다. 문제는 가공할 피해가 예상되는 수도권의 대지진 가능성이다. 도쿄대 지진연구소는 수도권에서 4년 내 최대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70%로 예측했다.

현 연안 등지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고 해안 주민에게는 대피령도 발동됐다. 이로부터 약 3시간 후인 오후 9시 넘어서는 수도권인 지바(千葉)현 북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일어났다. 당시 지바현 북동쪽은 규모 5~6, 이바라키(茨城)현은 4~5, 도쿄 중심가에서는 3~4의 충격이 각각 전해졌다.

규모 3이면 일반인이 잠을 자다 깨어날 정도의 흔들림이 감지된다. 규모 4면 집안 가구나 창문이 심하게 진동하고 5면 선반의 물건이 떨어지고 집기가 쓰러질 수 있으며 건물이 흔들려 심한 공포감을 느끼는 수준이다. 작년 동일본대지진 때 도쿄에 전해진 충격이 규모 5 정도였다. 지진은 규모 1의 차이가 엄청나다. 일반적으로 진도(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강도) 6강(強)이면 건물의 5% 정도가 무너지지

숫자로 보는 동일본 대지진

**2011.3.11** 지진 발생일**9.0** 지진 규모**232** 진도 4 이상 여진(회)**40.0** 쓰나미 최고 높이(m)
이와테현 오후나토**561만** 침수 면적(km²)**15,854** 사망자(명), 3월10일 현재
익사 91%**3,155** 행방불명(명)
3월10일 현재**26,992** 부상자(명)**343,935** 피난민(명)
3월10일 현재**1,168,453** 피해 건물(채)
이중 전파 129,107채**17조4천억** 재산 피해(엔)**2,253만** 쓰레기(t)
최종 처분된 양 143만(6%)**7등급**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등급
국제평가척도상 최악**77만** 방사성 물질 방출량
(테라 베크렐, 테라=조)**1,500만
~2,800만** 토양오염 범위(m²)**3,493억** 의연금 모금액(엔)
약 4조7천억 원**63** 지원국(개국)

그래픽_ 이재윤 기자

도쿄 도심서 규모 7 이상 지진 예고

문제는 가공할 피해가 예상되는 수도권의 대지진 가능성이다. 도쿄도의 인구는 1천300만 명이고 주변 지역까지 합친 수도권은 3천500만 명이다. 만약 수도권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경제적으로 회복 불능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수도권 지진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쿄대와 교토대를 중심으로 한 문부과학성 프로젝트팀은 3월7일 도쿄만 북부 지하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지상에서 계측되는 진도가 최고 7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구팀은 수도권에 설치한 약 300개의 지진계 자료에 근거해 지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의 예상처럼 지하 30~40km가 아니라 20km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진원의 위치가 얕을수록 진도는 세진다. 도쿄 도심 지진의 최고 진도가 6강(強)에서 7로 상향 조정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도는 정부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별 진도 예상치를 표시한 지도를 수정하기로 했다. '도쿄만 북부 지진'은 진원이 도심부의 지하에 있는 직하형(直下型) 지진이다. 직하형 지진은 충격이 좌우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전달되므로 일반 지진에 비해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의 한신대지진도 직하형 지진으로 규모 7.3에 사망자가 6천400여 명이나 발생했다.

도쿄만 북부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미나토(港)구 등 도심과 가까운 만큼 대표적인 수도 직하형 지진에 해당한다. 이 부근에서는 에도(江戸) 말기나 근대 초기에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이 있을 뿐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수도권 직하형 지진과는 별개로 이바라키현 남부를 포함한 간토(關東) 남쪽에서 근대 초기 이후 120여 년 동안 규모 7.0 전후의 대형 지진이 5회 일어났다는 데 근거해 앞으로 30년 안에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예측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수도권에서 4년 내 최대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70%로 예측한 것이다. 정부의 추정치에 비해 훨씬 긴박하다. 도쿄대 지진연구소는 작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지각 활동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수도권 지진 대책 총력

일본 정부는 도쿄만 북쪽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최대 1만1천 명이 숨지고 건물 약 85만 채가 무너지거나 불에 타며 재산 피해 규모가 112조 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신주쿠(新宿) 등 도쿄 서부라면 피해는 훨씬 더 커진다. 시마무라 히데키(島村英紀) 무사시노학원대학 특임교수(지진학)는 도쿄 도심 서부에서 규모 7 정도의 직하형

지진이 일어나면 1만3천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도쿄도 인구 1천300만 명 중 700만 명이 일시에 피난하고 이중 약 460만 명은 피난소 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피난처의 수용인력은 210만 명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진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이 멈출 경우 약 450만 명 이상의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쿄도는 자연재해 시 직장인이 회사에서 머물 수 있도록 비상식량과 물, 담요 등을 비축하라고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롯폰기 힐스 같은 빌딩은 10만 명분 비상식량을 비축해 두고 있다. 그래도 관광객이나 쇼핑객 등을 위해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머물 피난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최근 부각된 과제다.

주민들도 쌀과 물을 사들이는 등 바빠 움직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빚어질 정도다. 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꼭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미리 비상 시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연재해가 워낙 빈번하다 보니 평소에 대책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필요한 물자를 확보해 둔다는 것이다.

부수도(副首都)로 떠오르는 오사카

도쿄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임시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집권 민주당의 '수도 중추기능 백업 작업팀'은 최근 도쿄에서 직하형 지진이 일어날 경우 오사카(大阪)가 수도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중간 보고서를 냈다. 작업팀은 총리관저가 피해를 볼 경우의 정부 임시 거점으로 지정된 다치카와(立川) 광역방재기지(도쿄도 다치카와시 소재)에 대해 "통신 체계에 문제가 있어 대체 시설로 기능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지진과 원전 사고로 도쿄와 동시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검토했다.

작업팀이 간사이(關西) 지역의 오사카를 대안으로 제시한 이유는 각 부처의 산하 기관과 민간 기업 본사가 많이 몰려 있고 교통망이 정비돼 있어 긴급사태에 대해 초기부터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업팀은 도쿄가 지진으로 피해를 볼 경우 오사카가 보완해야 할 기능으로 자위대와 소방 지원 태세 정비, 수송 수단을 포함한 구조물자 조달, 각 부처 공무원 동원 등을 예시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이 지났건만 일본은 지진의 공포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있다.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에 임시로 설치된 상가 앞에서 한 어린이가 대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양초에 불을 붙이고 있다. AP_ 연합뉴스

하지만 실제로 수도권에 대지진이 발생해 도쿄의 수도 기능이 마비된다면 엄청난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 전달 체계나 국정의 지휘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통신·의료·주거·전력 등 사회 인프라 체계 전반이 동시에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가의 핵심 기능이 모두 도쿄에 집중돼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 남부의 거점인 오사카를 '부수도(副首都)'로 삼아 수도의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초당파 의원으로 구성된 '위기관리도시 추진 의원연맹'의 회장인 이시이 하지메(石井一) 민주당 부대표도 "위기관리를 위한 부수도 건설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유사시 도쿄를 대체할 백업 도시의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위기관리도시 후보지로 오사카국제공항(이타미공항) 일대와 아이치(愛知)현 지구박람회기념공원 일대 등을 거론하고 있다. 위기관리도시는 면적 500ha, 택지 260ha, 거주인구 5만 명, 취업인구 20만 명 정도를 각각 상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오사카의 부수도 지정이나 백업 도시 건설 등은 논란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내각이 자주 바뀌면서 정치가 혼란스러운 데다 현재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피해 수습, 소비세 인상 등 현안에 발목이 잡혀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처지다. 

김종현 도쿄 특파원 kimjh@yna.co.kr



유엔총회는 시리아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아랍연맹 제출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결로 채택했다. 하지만 시리아의 든든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 의견을 냈다. AP_ 연합뉴스

시리아 사태 1년

유혈 진압 지속... 내전 양상
국제사회 엇갈린 해법

‘아랍의 봄’ 영향으로 지난해 3월15일 시리아 남부의 소도시 다라에서 민주화 시위가 처음 발생했다. 작은 반란은 시리아 정부의 탄압 속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무장 항쟁으로 커졌다.

이에 맞선 아사드 대통령은 1년 가까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유혈 진압을 펼쳐 사망자가 무려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아사드의 퇴진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형국이다. 그러나 아사드 대통령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반정부 시위는 테러리스트들이 외국의 음모를 수행하려는 것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반정부 세력을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사드 정권과 ‘자유 시리아군’을 주축으로 한 반군의 대치 상황이 언제 종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국제사회가 아사드(사진)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그는 반정부 시위는 테러리스트들이 외국의 음모를 수행하려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AP_ 연합뉴스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시위 진압이 계속되면서 시리아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군과 반군인 자유 시리아군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어 내전 양상마저 보인다. 아사드 대통령은 군부와 집권당인 바트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어 정부군과 시위대 간 전투가 오래 지속되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리아의 권력구조가 이집트나 튀니지 등 다른 아랍국가와 달라 아사드 정권의 몰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시리아 반정부 인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유를 얻을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중동 전문가들도 아사드 대통령이 정치적인 기반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적인 반란에 직면해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Syria

소도시에서 시작된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무장 항쟁으로 확대되며 1년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1만 명가량이 사망했으나 당사자인 아사드 대통령은 사퇴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혈 사태는 파국을 향해 치달는 형국이다.

이어지는 피란 행렬

유엔은 지난해 3월 중순 이후 계속된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지금까지 7천5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 인권단체와 야권은 최소 1만 명이 정부군에 희생됐다고 주장한다. 또 수만 명이 집을 잃고 피란길에 올랐으며 1만 명 이상이 시리아 당국에 체포됐다고 인권단체는 밝혔다. 하지만 시리아 당국이 민주화 시위 이후 국외의 재산과 인권단체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군의 탄압이 끊이지 않자 시리아 난민이 인접국 레바논으로 탈출하고 있다. 3월 초에는 최대 2천 명의 시리아 주민이 유혈 사태를 피해 국경 너머 레바논 북부로 탈출을 시도했다. 피란 행렬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이에 정부군은 레바논 국경 부근의 시리아 쿠사이르시(市) 지역에

국제사회 행보 도움 안돼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행보가 분주하다. 유엔과 아랍연맹,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 특사들이 잇따라 시리아를 방문해 시리아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아사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배경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특히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시리아 반군은 절대적으로 무기가 부족해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기엔 힘이 부족하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력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의 시리아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부터 친(親)시리아 정책을 유지해 왔다. 시리아 항구도시 타르투스에 유일한 외국 해군기지를 두는 등 시리아를 전략적 요충지로 여기고 있다. 러시아는

타르투스를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응해 왔다.

소련 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는 베트남 등에 있던 해군기지를 모두 폐쇄했지만 타르투스 기지만은 끝까지 지켜 왔다. 시리아에 무기를 판매해 50억 달러(약 5조6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득도 얻고 있어 아사드 정권이 퇴진하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최근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진출을 꾀하고 있는 중국 역시 시리아 편을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자국 인권 문제에 서방의 개입을 사전에 막으려고 시리아 인권 문제에도 반대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경제적 제재로 아사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EU 27개국 외무장관은 아사드 정권의 유혈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해 시리아에 강력한 추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U 27개국 내에 있는 시리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금을 비롯한 시리아산 귀금속의 거래를 금지시킨 것이다. 시리아 화물기의 EU 역내 운항을 불허하는 등 시리아의 대외 경제활동을 막기 위한 고삐도 한층 조였다.

미국은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되 조심스럽게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시리아 국민을 보호하고 폭력 사태를 끝내 역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군사적 대안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유엔-아랍연맹 공동 특사인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3월10~11일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아사드 대통령과 폭력 사태 종식 방안을 모색했다.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OHA) 국장도 시리아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반정부 거점 홈스를 방문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박도 시리아의 유혈 사태 종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양상이다.

아랍 독재자들, 비참한 운명

아사드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발발한 지 1년 가까이 꽃꽂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군경을 동원한 시위대와 민간인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지만 권력 집착



시리아의 반정부 거점인 홈스에서 중심지인 바바아무로 지역을 관통하는 송유관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위성사진. 이에 대해 반체제 인사로 구성된 시리아지역조정위원회 등은 12일간 정부군의 포격을 받았다고 전했으나 관영 사나통신은 책임을 무장 테러분자들에게 돌렸다. AP_ 연합뉴스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아난 특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테러 단체들이 시리아를 위협하는 한 정치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동생 마헤르가 이끄는 정예부대 제4사단과 공화국수비대는 아사드 정권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레바논 등 시리아 정부에 우호적인 일부 국가의 존재도 든든한 원군이다.

그러나 정부군의 유혈 진압으로 시리아 민간인 희생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국내 저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아사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양상이다. 영국 런던에 사는 그의 장인도 최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소름이 끼친다”며 딸의 안전을 걱정했다.

일각에서는 ‘아랍의 봄’에 휩쓸린 다른 중동국가 장기 독재자들의 말로에서 아사드 대통령의 미래를 기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튀니지 ‘아랍의 봄’으로 제일 처음 권좌에서 물러난 벤 알리



정부군의 탄압이 끊이지 않자 시리아 난민들은 인접국인 레바논으로 탈출하고 있다. 3월 초에는 최대 2천 명의 시리아 주민이 유혈사태를 피해 국경을 넘어 갔다. EPA_ 연합뉴스

튀니지 대통령은 지난해 1월14일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한 이래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미 궤석 재판에서 부패 등의 혐의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벤 알리는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올 1월 또 다른 궤석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제헌의회에서 선출된 몬세프 마르주키 튀니지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사드 대통령에게 망명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사드 정권의 민간인 유혈 진압에 항의해 자국 대사를 처음으로 소환한 튀니지는 2월24일 국제 연대회의인 '시리아의 친구들'을 주최하기도 했다.

이집트 '현대판 파라오'로 군림했던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역시 비참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25일 이집트에서 사상 초유의 시민혁명이 시작된 이래 18일 만에 30년 넘게 지켜온 권좌에서 물러난 그에게 검찰은 최근 사형을 구형했다. 시민혁명 기간에 시위대에 실탄과 최루탄 등을 쏘며 강경 진압하도록 지시해 846명을 숨지게 하고 부정 축재한 혐의가 적용됐다.

물론 무바라크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과도정부를 이끄는 군부도 무바라크 처형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무바라크의 두 아들 가말과 알라도 정치범수용소로 유명한 카이로의 토라교도소에 수감돼 독재자 가문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 주고 있다.

리비아 '42년간 최장수 독재'라는 기록을 남긴 무아마르 카다피의 최후는 더욱 처참했다. 반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던 그는 지난해 10월20일 고향 시르테 인근에서 반군에 붙잡혀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그의 시신은 한동안 미스라타의 정육점 냉동창고에서 전시되다 사하라사막의 비밀 장소에 매장됐다.

4남 무타심은 카다피와 함께 생포됐다가 숨졌다. 후계자로 유력했던 차남 사이프 알 이슬람 역시 지난해 11월19일 체포되면서 카다피 일가는 대부분 숨지거나 체포됐다. 카다피의 아내 사피야를 비롯해 아직 체포되지 않은 가족 일부는 고국을 떠나 알제리와 니제르 등지에 흩어져 망명 중이다.

예멘 33년 넘게 장기 집권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아랍의 봄으로 물러난 독재자 4명 가운데 유일하게 합의된 절차에 따라 정권을 이양한 인물이다. 지난해 11월 말 자신과 가족은 물론 측근의 면책까지 보장받고 걸프협력이사회(GCC)가 중재한 권력 이양안에 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2월21일 치러진 대선에서는 단독 후보로 나선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부통령이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살레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뉴욕에서 신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망명설이 돌기는 했지만 대선 직후 귀국,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 국내에서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아직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살레는 국민의회당의 대표로 현실 정치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사드 대통령으로서는 예멘의 살레 방식으로 물러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아랍연맹이 아사드에게 제안한 권력이양안도 GCC의 예멘 중재안을 모델로 한 것이다. **m**

한상용 카이로 특파원 gogo213@yna.co.kr

유현민 두바이 특파원 hyunmin623@yna.co.kr



한국 증시의 새로운 위험, 엔화 약세



김학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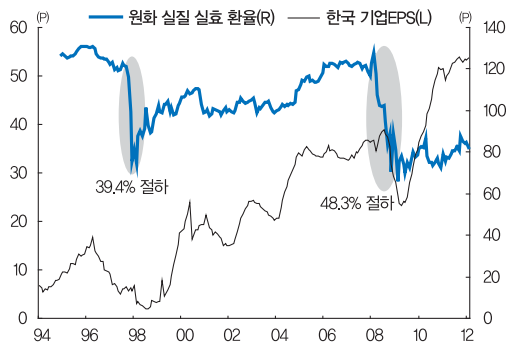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2010년~)
SK증권 투자전략팀장(09년)
조선일보 · 매일경제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08년)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연구위원(06~09년)
국토농신한증권 투자분석부(99~05년)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sigot1@naver.com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엔/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1년 10월 한때 75엔대까지 떨어졌던 엔/달러 환율이 올 3월에는 84엔대까지 높아졌다. 엔화의 움직임은 늘 한국 증시의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경합하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엔화의 움직임은 한국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엔화 가치가 원화 가치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엔고(高) 국면에서 한국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고 그 반대 상황에서는 약세를 보이곤 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적 메이저 기업으로 부각된 시기는 두 차례 정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원화 약세, 엔화 강세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때였다. IMF 직후의 원화 초약세 국면에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이저로 나설 수 있었다. 당시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다른 나라와의 무역가중치를 감안한 통화의 종합적인 가치)은 39.4%나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에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44.7%나 치솟았다.

다른 한 번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의 세계 금융 위기 국면으로 원화 가치가 48.3% 절하되는 동안 엔화 가치는 43.9% 절상됐다. 이때에는 현대자동차가 기회를 잘 살려 글로벌 메이저로 부상할 수 있었다. 한국 기업들의 질적 경쟁력 향상도 기여했겠지만 우호적인 환율 조건이 한국 기업들에 큰 도움이

원화 실질 실효 환율과 한국 기업이익



자료: JP Morgan, Thomson Reuters

엔화 실질 실효 환율과 일본 기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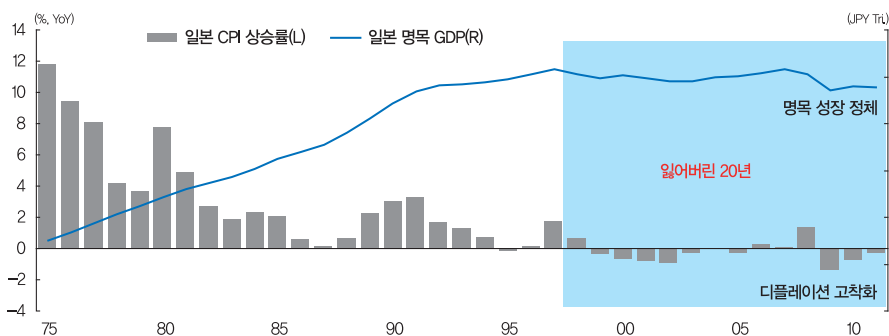


자료: JP Morgan, Thomson Reuters

됐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엔화 약세는 한국 증시에 결코 호재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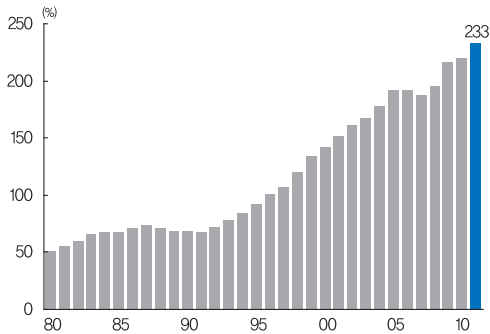
향후 엔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필자는 엔화 가치의 추가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는 엔화 가치의 약세 없이는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려운 국면까지 내몰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만성적인 저성장과 그 결과물인 디플레이션으로 신음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제 주체들이 추가적인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를 갖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일본의 명목 GDP와 물가상승률 (CPI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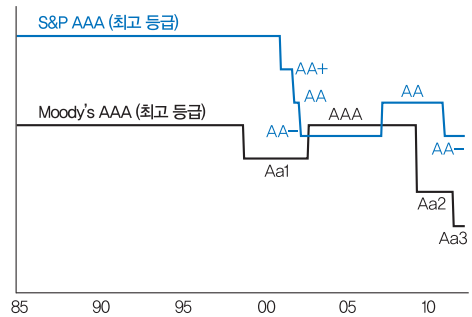
자료: OECD, Consensus Economic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



자료: Bloomberg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변화



자료: S&P, Moody's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율은 230%를 넘어섰다. 과도한 부채 문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완전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건값이 오르고,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부채는 대부분 화폐로 표시되므로 인플레이션 환경이 조성되면 빚을 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채무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일본의 과도한 국가부채에 대해 벌써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거대 채무자인 일본 정부로서는 인플레이션 환경 조장이 절실한 입장이다.

인플레이션을 만들려면 두 가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실물경제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간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면 물건 가격(물가)은 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실물경제의 수요 증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일본 경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노령화의 속도가 빠른 국가이기 때문이다.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쉽게 주머니를 열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디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존재하는 것도 내수 진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람들이 굳이 당장 소비하려고 하지 않는다. 소비는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소비 증대를 위해서라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장해야 한다. 물건값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소비가 조금이라도 늘 것이기 때문이다. 실물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기 어렵다면 돈을 찍어내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통화를 팽창시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상대적 가치는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환경이 조성된다.

그런데 일본은행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 2월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



1%를 목표로 통화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라며 10조 엔 규모의 추가 양적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환경 타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디플레이션은 경제의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일본은행이 이제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정해 놓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엔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 대지진의 트라우마도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작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도 지진의 추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도쿄대 지진 연구소는 3월5일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향후 4년 안에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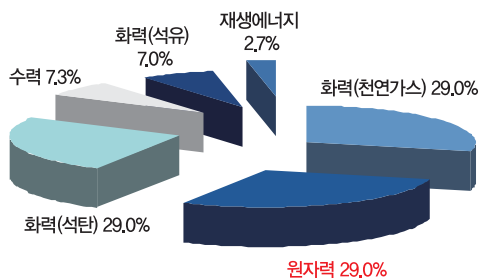
이와 함께 동일본대지진에 뒤이어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여파로 일본 정부가 탈(脫)원전을 선언하면서 올 4월부터 전기료가 17% 인상된 것도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이 전체 발전량의 29%를 차지하는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면 전기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진 우려가 지속되고 생산비가 높아지는 등 핸디캡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면 자본은 대거 나라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 역시 엔화 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일본은행의 태도가 인플레이션 조장으로 바뀌고 대지진의 트라우마가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면 엔화는 약세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증시에도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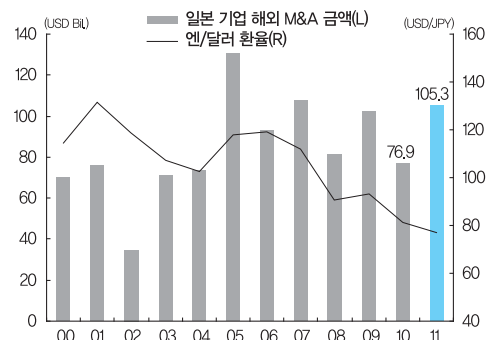


일본의 발전량 비율



자료: Bloomberg

엔/달러 환율과 일본 기업의 해외 M&A 추이



자료: S&P, Moody's

고유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유가 추가 상승 시 유가 ETF 유력



정철진의 도전! 재테크

매일경제신문에서 10년간 재테크 전문가로 활동하다 재테크 컨설팅 및 스토리텔링 사업가로 제2의 인생 시작. 저서로는 국내에서 80만 부 팔린 재테크 서적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를 비롯해 <투자, 음모를 읽어라> <주식투자, 이기려면 즐겨라> 등과 작전주 이야기를 다룬 장편소설 <작전>이 있음. 현재 SBS CNBC '생방송 경제투데이' 앵커 및 SBS 라디오 러브FM에서 '정철진의 스마트 경제'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다.

유가와 경기의 관계는 참 묘하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는 항상 유가가 오르곤 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공장이 잘 돌아가면 기름도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가 상승이 곧바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 유가가 오르면 제조원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가계는 소비 여력이 떨어져 경기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유가 상승은 '속도'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유가가 점진적으로 오르면 괜찮지만 단기간에 급등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유가 급등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형국이다. 국제유가는 올 2월부터 15%가 넘는 숨 가쁜 속도로 뛰어올랐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110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고 두바이유는 12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전국 평균 L당 2천 원대에 올라섰다. 그나마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린 덕분에 이 정도 선에서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은 전적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두고 펼쳐진 이란-이스라엘의 관계 악화에서 촉발됐다. 다행스럽게 미국이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란 공습에 나선다 해도 전혀 놀랄 게 없는 분위기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과 긴축 완화 기대감이 가세하면서 투기 자본이 원유선물시장에 뛰어들자 고유가의 불길도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결국 중동에서 전격적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유가는 계속 오른다고 봐야 한다.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도 뭔가 대비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고유가 포트폴리오'다. 기름값 때문에 커지는 가계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자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도 있다.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는 3가지 방법

우선 유가 상승을 내다보고 여기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있다. 국제유가가 5%, 10% 등으로 오를 때 그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단 원유선물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국제원유선물시장에 뛰어들기는 힘들다.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도 꽤 된다지만 일반인이 선택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럴 때에 권할 만한 상품이 '유가 상장지수펀드(ETF)'다. 현재 국내 거래소에는 'TIGER원유선물' 등 2개의 유가 ETF가 상장돼 있다. 수익률이 정확하게 유가(WTI 기준) 상승률만큼 나는 구조이며 환율에 대한 헤지도 돼 있어 원화가 강세를 보여도 수익률을 깎아 먹지는 않는다.

두 번째로는 유가 상승 수혜주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



유가 상승은 '속도'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유가가 점진적으로 오르면 괜찮지만 단기간에 급등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유가가 오르면 제조원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가게는 소비 여력이 떨어져 경기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사진_배정현 기자

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오를 경우 정유주와 화학주 등이 좋고 항공주, 해운주 등 연료비 부담이 큰 종목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 틀에서는 맞는 말이다. 다만 정유주와 화학주는 투자에 앞서 고민해 봐야 한다. 유가 상승이 이들 종목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 빨리 폭등하거나 배럴당 120달러 이상(WTI 기준)으로 치솟으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아예 차를 몰고 다니지 않거나 냉난방시설 가동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마련이므로 수요가 감소하고 정유회사들의 이윤 역시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화학업종 또한 마찬가지다. 보통 유가가 오르면 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화학주 주가도 상승세를 타기 마련이지만 유가 상승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화학 제품 수요도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가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유가는 전

혀 반갑지 않은 재료일 수 있다.

필자는 오히려 태양광이나 2차전지 같은 대체에너지 관련주, 건설주, 조선주, 종합상사주 등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하고 싶다. 태양광업종의 경우 지금은 폴리 실리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가가 부진하지만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설주는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 지역 오일 머니 유입이나 플랜트 발주 확대 등의 긍정적인 재료가 발생한다. 조선업종은 천연 가스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해양 플랜트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종합상사 역시 유가 상승으로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다.

셋째는 생활 속에서 기름값을 절감하려는 태도다. 승용차에 들어가는 휘발유값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줄이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요즘 버스(Bus)나 지하철(Metro), 도보(Walking)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BMW족'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유가 상승기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절약도 병행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국내 부동산의 유형별 변천사 ③ 단독주택편



김서은의 부동산 이야기

- (주)오션앤랜드 개발사업부 이사
- 부산동부산관광단지 골프&리조트 사업 담당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우리나라의 전통 주택은 작은 마당이 안에 들어 있는 일자형 내지 ‘ㄱ’자형 한옥이 대부분이다. 집집마다 동네 어귀에서 뛰놀다 들어온 아이들 때문에 대청마루가 뽀얀 흙먼지로 뒤덮여 아낙네들의 일손을 바쁘게 만들곤 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도시가 크게 파괴됨에 따라 1950년대에는 ‘구호주택’ 공급이 최우선시됐으나 그래도 주택난이 해소되지 않자 도시 곳곳에 이른바 ‘판자촌’이 들어서기도 했다.

주택 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근대화에 따라 도시인구가 팽창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다. 수도권은 1975년까지만 해도 87.6%에 달했던 단독주택의 비중이 1985년 이후 크게 감소하면서 2005년에는 18.8%까지 떨어졌다. 불과 30년 만에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중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이처럼 급격한 주거



일본에서 발달한 뒤 최근 우리나라에도 본격 도입된 모듈러 주택은 향후 중· 소형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_ sekusuiheim

형태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미래 주거 형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가장 이상적인 주거 형태’로 단독주택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당장은 아니겠으나 미래의 다양한 생활 유형을 감당할 수 있는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독주택으로의 회귀 현상이 점차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주택을 바라보는 현재의 시선

작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서 살기를 막연하게 꿈꾸는 도시민이 많다. 그러면서도 선뜻 이사할 엄두를 내지는 못한다. 주거에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중·저소득층은 단독주택을 기피하는 이유로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관리비 부담, 부족한 주차시설, 취약한 방법 등을 꼽는다. 고소득층은 그러나 투자가치가 낮고 자본이득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물리적 요인은 최신 공법 채택이나 사회공동체 형성 등으로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도 시세차익을 거두지 못하는 요즈음의 현실을 감안하면 투자가치 측면의 취약점도 크게 해소되는 만큼 아파트와의 비교에서 반드시 열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단독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을 5~10년 후쯤으로 옮겨 본다면 색다른 구도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다.

도심과 도시 근교에 입지하는 단독주택의 특성

도심 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주로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신소재와 신공법 채택에 따라 물리적 기능이 강화된 에너지 절감형 주택이 선호된다는 특성을 띠고 있다. 도심의 낡은 주택들은 20~50세대 정도의 소규



패시브 하우스란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해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주택을 가리킨다. 사진제공_ germanhomes

모 단지로 개발하는 방식이 경제성이나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전면 재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점진적 재생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도시 근교에 입지하는 단독주택들은 주로 고소득층이 찾으며 넓은 대지에 쾌적함과 더불어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이 확보되는 구조가 강점이다. 이와 함께 비슷한 사회계층이 블록을 형성하면서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향, 모듈러 주택과 패시브 하우스

최근 눈에 띄는 주택 건축 방식으로 모듈러(modular) 주택을 꼽을 수 있다. 모듈러 주택이란 골조, 벽체, 문틀, 화장실 등 3차원적인 상자형 공간 단위별로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건축 현장에서 단순 합체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기존의 조립식 주택은 낱개의 자재를 현장까지 옮긴 후 일일이 조립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듈러 주택의 내구성은 100년 이상이며 내진 설계가 가능하고 나무 소재의 한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모듈러 주택은 일본에서 먼저 발달한 뒤 최근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향후 중·소형 단독주택과 타

운하우스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란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주택을 가리킨다. 마치 보온병 같은 이치로 열이 바깥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는 ‘수동적인 집’이라는 뜻으로 에너지를 외부에서 능동적으로 끌어다 쓰는 액티브 하우스(active house)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모듈러 주택 공법과 패시브 하우스 기술을 접목시켜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아파트에 편중돼 있었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노후 주택들이 반드시 아파트로만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최근 들어 새로 짓는 단독주택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주택 유형의 다양성을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로운 건축공법으로 경제성이 확보되고 세제와 금융 지원까지 가세한다면 단독주택의 시장점유율이 20~30%까지는 금세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창한 봄날, 시간이 허락된다면 단독주택 시범단지들을 둘러보는 것도 미래 주택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험과 세금의 묘한 관계

상속 · 증여 · 소득세 등 절세 여지 많아



김태형의 보험 이야기

- 롯데홈쇼핑 금융사업부 MD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SERI부자연구회 재테크 교수위원
- 자산관리사 자격시험 강사
- 저서 <지금 당장 재무설계 공부하라>
<재테크 절대로 하지 마라>
- 트위터: twitter.com/samariain

보험은 기본적으로 만에 하나 있을 불의의 사고를 상정한 대표적인 위험대비용 상품이다. 사람들은 그러나 위험 대비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도 보험을 활용한다.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이나 풍족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보험 등이 그런 사례다. 심지어 위험 대비용 보험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용도로 가입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그 배경에는 세금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에는 보험과 세금의 묘한 관계를 공부해 보자.

상속에 보험을 활용하라!

보험을 잘만 이용하면 세금 안 내고도 상속이 가능하다. 선진국에서는 상속의 1순위로 종신보험 활용을 꼽는 것도 그래서다. 보험을 통한 상속은 국세청도 권장한다. 통상적으로 보험금을 탈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하나 보험 가입 방식에 따라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비결은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의 구조적 특징에 있다. 가입자가 곧 계약 당사자이자 수익자인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은 가입할 때 계약자(가입자), 피보험자(보장 대상자), 수익자(보험금 수령인)를 각각 명시한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을 각각

가리킨다.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수익자가 보험금을 탈 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간혹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할 경우가 있다. 예컨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계약기간에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을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므로 보험금은 계약자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이 피보험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모두 배우자 또는 자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라면 상속세는 있을 수 없고 증여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 과세의 원칙을 따르므로 자녀가 본인을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로 부모를 내세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료 납부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가 대신 낸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인 부모의 유산으로 분류되므로 상속세 납부의 무가 발생한다.

저축보험은 멀리 보고 가입해야

3년 차 직장인 김나래(가명 · 30세) 씨는 재테크를 잘하는 편이라고 해서 주변에서는 ‘뚝순이’로 통한다. 하지만 김 씨에게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다.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는 말에 덜컥 가입했으나 만기까지는 아직 7년도 더 남아 있다는 게 문제다. 조금 있으면 결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험료로 매월 50만 원씩이나 납입해 놓고 막상 목돈이 필요할 때 쓸 수 없다니 답답할 뿐이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목돈 마련의 대안으로 저

축성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저축성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의 위험 보장 기능에 저축 기능을 추가한 상품이다. 저축성보험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그것이다. 실제로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하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15.4%)이 면제된다. 따라서 수익률로 보면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석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혜택들만 보고 무작정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위의 사례처럼 저축성보험은 기본 전제가 장기 투자다. 그러나 저축성보험 역시 보험이므로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다. 또 가입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만기가 돌아오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일반 예·적금과 동일하게 취급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연금보험

통계청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60%가량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매우 심각한 편에 속한다. 젊은층 사이에서도 스스로 노후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정부도 젊은층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보험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보험으로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해 준다. 현행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38.5%)을 적용하면 26만4천~154만 원의 세금 환급 효과가 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재테크 상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연금보험 역시 장점만 보고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유의할 점도 많기 때문이다.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미 받은 소득공제 혜택의 일부는 되돌려줘야 한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하면 2.2%의 중도해지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중 60%가량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젊은층에서 스스로 노후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사진 노승혁 기자

혜택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으로는 일반 연금보험이 있다. 대개 보험기간을 둘로 나눠 연금 지급 개시일 이전까지의 제1보험기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저축하며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받고 이후의 제2보험기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 쌓아 두었던 적립금을 돌려받는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총 적립금에서 원금을 뺀 금액)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노후에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같은 비과세 수익이 매우 유용한 절세 요령이다. 

역량을 갖춘 인재 경쟁력 있는 인재



최효진

- HR코리아 대표이사
- PAYOPEN 대표이사
- SK그룹 회장실 비서실장 역임
- SK Telecom 해외사업 본부장 및 글로벌 사업추진실장 역임
- 저서 : <다이나믹 시커> <살을 움직이는 힘 - 코칭 핵심 70>
<그들은 어떻게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되었을까> 등 다수

직장 경력에 관해 상담하다 보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직장을 떠나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고민을 거듭하다 해답을 찾지 못해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자신을 살아남은 직원들과 비교해 봐도 특별한 차이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인은 잘해 왔고 앞으로 잘할 자신이 있는데도 기업의 잘못된 평가로 인해 퇴사하게 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들의 이력서에서 특이 사항을 찾아내기는 힘들다. 비슷한 학교들을 나왔고 큰 문제 없이 업무를 처리했으며 근무태도가 눈에 띄게 나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기업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인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에서 인정받으려면 눈에 띄는 성과를 내라고들 하지만 사실 팔목할 만한 성과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경쟁사도 부러워할 첨단기술 발명이나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매출 달성 등의 성과를 매년 기대할 수도 없고 모든 직무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직장에서는 매년 직급이 오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조직에서 밀려나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는 탈락자가 생긴다. 이들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생길까? 기업은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 것일까?

열정이란 그릇에 성격·지식·역량 담아라

기업주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처럼 일할 사람'이다. 즉, 주인의식이 뚜렷하며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능력





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각 기업은 수많은 지원자 속에서 이런 인재들을 찾아내려고 자체 인·적성검사를 비롯해 MBTI나 Disc 검사, 360° 평가, 평판 조회 등 다양한색의 방법을 동원하나 입맛에 딱 맞는 인재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구직자와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취업이나 전직하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성과를 낼 인재임을 과시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이력서를 그럴듯하게 쓰고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챙겨 보지만 결국 기업이 자신의 진가를 몰라준다며 실망하는 사례가 수도무다. 기업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과 직장인과 구직자가 내세우는 '자신의 진가'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격과 전문지식, 역량에 열정까지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성격은 직업 적성에 곧바로 연결되지만 기업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격 유형이 존재한다. MBTI, Disc 등을 통해 후보자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가를 가려내려고 애쓴다. 하지만 성격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직장인의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소위 말하는 활발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이들의 영업 실적이 좋거나 꼼꼼하고 사물을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재무나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근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전문지식이 더해져야 한다. 직장인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에는 학력, 업무 처리 요령,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외국어 등이 포함된다. 직장인들이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학력 물타기'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도 전문지식을 넓혀 몸값을 높이려는 시도인 셈이다. 하지만 성격에 맞는 직무를 택하고 전문지식을 열심히 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역량이 필요하다. 역량이란 전문지식과 결합돼 조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뜻한다. 기획력, 분석력, 리더십 등 종류도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열정이란 그릇에 담겨야 한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직업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리키는 열정이란 그릇 자체가 작으면 능력이 작을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스스로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다만 기업과 직장인이 성과 창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역량은 수치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해 순위를 매기기 힘들고 구직자나 직장인도 자신의 역량을 입증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해한다.

지금까지는 타고난 성격과 지식 수준으로 몸값을 매기는데 대해 기업과 직장인 사이에 암묵적 동의가 이뤄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력을 통해 역량의 정도를 추정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 역량의 종류와 질에 대한 기업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직장인이라면 역량을 보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시된다고 하겠다.

경쟁력은 포장 기술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한다. 필자에게 경력을 상담하러 찾아오는 직장인 대부분이 자신의 좋은 면만 홍보하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겉모습만 잘 포장해 많이 알려지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처음에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좋지 않은 향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풍기기 마련이다. 사람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나아가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음식점이 단적인 예다. 음식점을 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전하면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손님도 몰리겠지만 음식 맛이 형편없거나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실력과 경쟁력은 포장 기술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실재보다 과대평가돼 좋게 알려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의 가치보다 높이 평가되면 단기적으로는 많은 것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추락하고 만다. 오히려 자신을 실제 가치 이하로 알리고 낮춰야 시간이 지나면서 진가가 드러나 기업이나 동료들이 좋아하게 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달의 추천 앱

스마트폰으로 쏙은 취업문 뚫어 보자

해 외 어학연수로도 모자라 안 해도 되는 휴학까지 해 가며 취업문을 간절히 두드리지만
 번번이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취업준비생이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어도 일이 바빠 취업 정보 검색조차 힘든 직장인이라면 이제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아 보
 자. 어학 공부에서 취업 정보 검색, 공모전 참가, 면접 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분야도 다양하
 다. 유·무선 포털 앱비스타가 추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취업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잡코리아 돈텔보스

아이폰-무료

안드로이드-무료

모든 기업의 취업 정보는 필요 없다! 돈텔보스는 삼성, LG, 네이버 등 매출 상위 1천대 기
 업과 업계 1위 기업, 주요 상장사 등의 고급 채용 정보만 집중적으로 알려 준다. 돈텔보스라
 는 이름에 걸맞게 암호를 걸 수 있어 상사 몰래 이직을 준비할 때 유용하며 나의 지원서를 해
 당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열어 봤는지를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원하는 기업을 등록해 두
 면 채용공고가 뜨는 즉시 알려 주고 마감 전날에는 다시 한 번 메시지가 날아오므로 날짜를
 깜박 놓칠 염려가 없다.



모질게 듣기만 해도 느끼는 일본어

아이폰-\$4.99

안드로이드-5천 원

1천2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블로그 '당그니의 일본표류기'를 운영하는 김현근 씨의 인기
 저서 <일본어 회화 표현 BEST 100> <일본어 회화 패턴 BEST 100>이 앱으로 묶여 나왔다.
 문장 700개와 대화 100개를 토대로 기본 문장 완성 → 정확한 설명 → 자연스러운 말하기 →
 유창한 대화 등 단계별 청취 훈련으로 실력이 배가되도록 구성됐다. 또 아는 단어는 올리고
 모르는 단어는 내리며 게임하듯이 공부하는 '업-다운'으로 즐기다 보면 일상에서 자주 나오
 는 필수 암기 어휘 900개와 구문 100개가 저절로 외워진다.



취업스터디

아이폰-무료

안드로이드-무료

어학점수 올리거나 학점 관리도 부담스럽지만 매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뉴스와 시사
 상식 등을 챙기는 게 큰 부담인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 실제 구직자가 만든 취
 업스터디는 매일 '뉴스 브리핑'으로 그날의 기사를 요약하고 최신 시사상식과 삼성경제연구
 소의 보고서, 간추린 증권가 소식 등도 제공하는 기특한 앱이다. 각 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
 와 면접 후기를 모은 '면접족보'와 자신의 이력서를 평가받거나 취업 준비 모임을 공개 모집
 할 수 있는 게시판 '스터디룸'도 유용하다.



▶▶ 면접 트레이닝

안드로이드-무료(티스토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2차 면접만 남겨둔 상황. 하지만 지나친 긴장 탓에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탈락의 쓴잔을 마시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 이들을 위한 면접 훈련 앱이 개발됐다. 무료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체계적인 구성과 충실한 내용이 돋보인다. 단골로 등장하는 면접 질문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눠 제시했으며 질문을 받고 대답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실전처럼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짜여졌다. 이 밖에도 지원 분야별 추천 복장과 호감을 주는 표정 관리법, 해서는 안 될 말 등을 담은 '성공하는 면접 Tip'과 면접에 앞서 긴장을 풀어 주는 지압법,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원도 함께 제공한다.



스피킹 자신감 패키지

아이폰-\$4.99 안드로이드-5천900원

영어 말하기 훈련에 특화된 앱으로 종전에는 따로 판매하던 스피킹 자신감-Basic, 스피킹 자신감-Advanced, 스피킹 자신감-발음 등을 한데 모았다. 원어민이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을 영상으로 보여 주며 정확한 발음 교정을 돕는다.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 교재와 비교하는 기능도 있어 객관적인 문제 분석이 가능하다. 훈련편에서 제공하는 30개 영어 어순을 체득 하면 480문장을 말할 수 있으며, 실전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묻고 답하는 실전 질문 100개와 그에 따른 300개의 답변을 익힌다.



스펙 업

아이폰-무료 안드로이드-무료

학점도 잘 관리했고 어학점수도 잘 받았지만 웬지 이력서가 허전하다면? 각종 공모전을 두드려 입상하는 것도 일책이다. 나의 장점을 보여 줄 또 하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앱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신규 등록, 마감 임박, 인기 공모전 등으로 나눠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논문/리포트, 디자인, 광고/마케팅, 영상/UCC/사진, 게임/소프트웨어 등 관심 분야별로 세분화해 볼 수도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친구들과 즉각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해 편리하다.



엠씨스퀘어 스테디 · 학습력 향상

아이폰-\$8.99 안드로이드-9천900원

집중력 향상을 돕고 긴장감, 피로감 해소에 탁월한 학습보조기구로 20년간 160만 대가 판매된 엠씨스퀘어가 앱으로 나왔다. 일반적인 학습 앱과 비교해도 다소 비싼 가격이지만 최적의 학습 환경이 필요한 취업준비생들과 산만하고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이라면 한 번 권할 만하다. '집중력향상도우미' 15분 과정과 '집중력유지도우미' 60분 과정, '기억력향상도우미' 60분 과정, 자연의 소리 등으로 구성됐고 '휴식프로그램'은 숙면을 취하는 데에 보탬이 된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

미국 차의 공습 시작됐다



FTA 덕분에 가격 경쟁력 제고... 공격적 신차 출시

한미 FTA라는 든든한 후원군을 등에 업은 미국 자동차의 공세가 매섭다. 일찌감치 값도 내리고 판매망 확대에도 적극적이다. ‘기름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비롯기라도 하듯이 미국산 신차들은 공인 연비를 크게 개선하며 경제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조만간 디트로이트, 토레도, 시카고에서 수출된 미국의 신차들이 서울 거리를 달릴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미 의회 국정연설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확대를 지목하며 한 말이다. 디트로이트, 토레도, 시카고는 이른바 미국의 ‘빅3’인 GM, 크라이슬러, 포드의 공장이 들어서 있는 도시다.

오바마 대통령의 자신감은 그가 최대 치적으로 여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힘입은 바 크다.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차의 국내 판매량은 6천 800여 대로 전체 수입차시장의 7.8%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포드코리아와 크라이슬러코리아, GM코리아는 금년에 약 1만2천 대를 팔아 시장점유율을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당장 4% 가격 인하 여유 생겨

현재 8%인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3월15일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4%로 인하된 데 이어 4년 후에는 완전히 철폐된다. 전기차 역시 8%에서 즉시 4%로 내렸고 나머지는 4년에 걸쳐 균등 인하된다. 더구나 화물차는 10%의 관세가 바로 없어져 당장에 4%의 가격 인하 여유가 생겼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일찌감치 미국에서 생산되는 2012년식 지프의 가격을 2~3%씩 내렸다. 대형 세단인 뉴 300C의 판매가는 종전 차종보다 최대 690만 원이 내린 5천570만~5천890만 원으로 책정됐다. 포드코리아는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익스플로러 2.0 에코부스트를 840만 원

이나 낮췄고 이미 판매 중인 차량은 최고 5.1% 내리기로 했다. GM코리아는 중대형 세단 캐딜락을 100만~400만 원 인하했다. 가장 잘 팔리는 CTS 3.0 럭셔리는 종전보다 100만 원 할인된 4천680만 원,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 에디션은 400만 원이 싼 1억2천500만 원에 각각 살 수 있게 됐다.

판매망 넓히고 서비스 강화한다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판매망 확대와 서비스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포드코리아는 기존의 판매협력업체인 선인 모터스에 금융·자동차 서비스 전문기업 CNH를 추가시켰다. CNH는 올 상반기에 서비스센터와 함께 전시장 7개를 신설하고 2014년까지 15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2012년형 차종 전부에 대해 일반 부품 무상 보증을 3년 혹은 6만km에서 5년 혹은 10만km로 확대했다. 무상 보증 5년 혹은 10만km를 한시적으로 적용한 곳은 있었지만 전 차종에 적용한 것은 포드가 처음이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포장도로 주행 체험공간인 ‘짚 캠프’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다가선다는 구상이다. 분당과 울산에 전시장을 새로 내고 원주에는 공식 서비스센터를 개설했다. GM코리아는 차량가격의 절반만 내고 캐딜락을 탈 수 있는 ‘스마트 가치 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고객은 차량가격의 30%를 보증금으로 내고 50%는 임대료로 36개월 동안 나눠 납부한다. 임대기간 3년이 끝난 뒤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준다. 현재 전시장 10개를 운영하고 있는 GM은 연내에 호남과 수도권에 전시장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김영대 기자 Lonaíree@yna.co.kr

미국 빅3의 야심작들



포드 익스플로러 2.0 에코부스트

익스플로러는 600만 대가 넘게 팔린 포드 SUV의 대표선수다. 이전의 3.5L 가솔린 엔진 대신 고성능과 친환경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것으로 평가되는 2.0L 에코부스트 엔진을 얹은 신형 익스플로러는 연료 소모량과 매연 배출량을 각각 20%와 15% 절감했다. 2이 넘는 중량과 동급 최고 수준의 전장 및 전폭으로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팡창형 2열 좌석 벨트와 고강도 측면 충돌 튜브 등으로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4천610만 원.

크라이슬러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 디젤

지프의 최상위급 차종인 그랜드 체로키 오버랜드 디젤은 동급 최고 수준인 11.9km/L의 연비와 L당 226g 밖에 안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시에 달성했다. 큰 차체가 부담스러운 운전자에 대한 배려로 주차센서를 10개나 달았으며 외부 차량 통행량에 따라 전조 등 높이가 자동 조절된다. 돌과 모래, 눈 등 지면에 따라 차량 높이와 바퀴의 구동력을 달리하는 5단 주행장치에는 지프가 그동안 쌓아 온 사륜구동 기술 역량이 모두 집약됐다. 가격은 7천170만 원



GM 캐딜락 ATS

GM은 국내 수입차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BMW 3시리즈와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를 겨냥해 캐딜락 ATS를 준비했다. 캐딜락 차종 가운데 가장 작고 가벼운 ATS는 캐딜락 특유의 중후한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경쾌한 주행 성능을 놓치지 않았다. 음성 인식과 13종에 이르는 모바일 기기 연결을 지원하는 CUE 정보장치, 전방 충돌 경고장치 등 첨단 사양을 갖췄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

노트북의 새로운 대세 **울트라북**

성능과 휴대성 모두 낫! 가격도 내림세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휴대성이 돋보이는 모바일 기기에 밀려 갈 곳을 잃은 PC시장에 울트라북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기존의 노트북보다 훨씬 얇고 가벼운 데다 성능도 뛰어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

“2012년 말이면 노트북시장의 40%를 울트라북(Ultrabook)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PC가 점유하게 될 것이다.”

중앙처리장치(CPU)시장을 주름 잡는 인텔의 선 말로니 수석 부사장이 지난해 5월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박람회 컴퓨텍스의 개막 기조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의 호언대로 울트라북이 국내 노트북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전자제품 유통업체 하 이마트에 따르면 올 1월만 해도 울트라북 판매량은 전체 노트북의 4~5%에 불과했으나 2월에는 15%로 급증했다.

울트라북은 특정 제품의 이름이 아니라 인텔이 정한 노트북의 새로운 규격이다. 제조사들이 노트북에 울트라북이라는 명

칭을 붙이려면 13인치형 기준으로 ▲두께 18mm 이하 ▲배터리 5시간 이상 연속 사용 ▲절전 상태에서 작동까지 7초 이내 ▲인텔 코어-i급 CPU 사용 ▲개인정보 보호 기술(IPT)과 도난 방지(Anti-Theft) 기술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는 울트라북이 전체 노트북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3%에서 2015년에는 43%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고 다른 시장조사기관들도 울트라북이 대세라는 데에 이견을 달지 않는다.

노트북의 단점 일거에 해결

성능을 택하자니 너무 무거워 휴대하기에 불편하고 휴대성을 우선순위에 두자니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덩치 큰 데스크톱 대신 노트북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고민이다. 그렇다고 태블릿PC도 대안이 못 된다. 호환성이 떨어지고 자판도 없어 업무를 처리할 때 불편한 점이 걸리기 때문이다.

울트라북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고민을 일거에 해결했다. 태블릿PC의 휴대성과 빠른 반응속도는 물론이고 노트북의



울트라북은 기존의 노트북보다 훨씬 얇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리한 데다 성능도 뛰어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 사진 제공_ 삼성전자

높은 호환성과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도 겸비한 것이다. 다만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휴대성을 극대화한 넷북의 30만~60만 원에 비해 울트라북은 110만~150만 원으로 훨씬 비싸고 고급형은 2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다행인 것은 주요 부품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가격이 최근 20% 가까이 떨어지며 울트라북 가격도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2분기에 인텔의 새로운 CPU '아이브릿지'가 출시되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아이브릿지는 배터리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산속도를 1.5배 향상시키고도 출고가가 현재의 샌디브릿지보다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울트라북의 대세는 13인치

전자업체들은 앞다퉈 울트라북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에이서, 아수스, 레노버, 도시바, HP, 델 등은 울트라북을 올해의 전략 상품으로 내세웠다. 울트라북의 화면 크기는 11~14인치이지만 13인치짜리가 종류도 제일 많고 인기가 높다. 온라인쇼핑몰 롯데닷컴이 올 들어 2월까지 판매한 13인치 노트북의 약 90%가 울트라북이고 전체 울트라북 판매량의 95%가 13인치형이었다.

13인치짜리의 판매 호조는 화면 크기가 지나치게 작지 않으면서 휴대에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손재동 롯데닷컴 가전팀 수석MD는 "11~12인치짜리는 화면이 너무 작아 만족도가 낮고 14인치 이상은 아직 수요가 많지 않다"고 전하고 "13인치짜리가 뜨는 이유는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고려한 소비자의 선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울트라북

삼성전자 센스 시리즈5는 미국 디스크키퍼사(社)의 신기

술 '익스프레스 캐시'를 울트라북 최초로 채택해 절전 상태에서 7초 이내에 윈도 화면으로 되돌아올 수 있고 부팅, 프로그램 실행, 웹브라우저 등의 속도도 크게 향상됐다. 또 야외에서도 화면 반사로 인한 불편 없이 영상 감상과 문서 읽기가 가능하도록 비반사(Anti-Reflective) 디스플레이를 달았다. 인터넷 최저가 124만 원.

에이서 아스파이어 S3는 SSD와 하드디스크(HDD)를 모두 내장하고 있어 빠른 속도와 함께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태블릿PC를 사용하듯 축소·확대·스크롤 등이 가능한 멀티 제스처 패드도 편리하다. 96만 원.

도시바의 포테제 Z380은 고화질 영상단자(HDMI)와 3개의 USB 포트, RGB 포트, SD카드 슬롯 등을 갖춰 호환성이 뛰어나다. 음료 등이 제품에 쏟아져도 중요한 자료를 보호할 시간을 벌어 주는 누수 지연 기능이 있어 안심이다. 145만 원.

LG전자의 엑스노트 Z330-GE55K는 동급 울트라북 가운데서 가장 작고 얇다. 화면을 제외한 테두리(베젤) 크기를 최소화하는 신기술 덕분에 13인치 화면이면서도 본체 크기를 12인치 급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LG전자의 독자 기술인 '슈퍼 스피드 테크'를 통해 전원을 켜고 9.9초 만에 윈도를 부팅시킬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태블릿과 비교해도 3배가량 빠르며 대가나 절전 상태가 아닌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의 부팅 속도로는 최고 수준이다. 233만 원. 

정승희 기자 qqutti@hanmail.net



LG전자의 엑스노트 Z330-GE55K는 동급 울트라북 가운데 가장 작고 얇다. 13인치 화면인데도 본체 크기는 12인치급이다. 사진제공 LG전자



천국 같은 해변
낭만적인 휴식

말레이시아

천국보다 아름다운 나라, 말레이시아!

문명의 때가 덜 묻은 이 나라에서는 다른 어디에서도 기대하기 힘든 **편안하고 이국적인 휴식**을 누릴 수 있다.
하얀 구름을 끼마들한 발아래에 둔 트레킹과 수백 년을 전해져 내려오며 **흥미롭고 신비한 사연을**
들쭉 간직한 갖가지 골동품도 말레이시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쌓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말레이반도 남단과 보루네오섬 일부에 걸쳐 있는 말레이시아. 1786년부터 17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57년 독립했다. 동남아시아 고유의 문화에 중국, 인도, 이슬람권과 식민지풍 문화까지 어우러져 다양한 종교와 문화, 인종, 언어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크게 말레이반도 쪽의 서말레이시아와 보루네오섬 쪽의 동말레이시아로 나뉘지만 어디를 가나 오랜 역사와 전통,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말라카, 쿠알라룸푸르, 페낭으로 이어지는 말레이반도의 서부 능선을 따라 가면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 반대쪽인 동부 능선에는 열대 우림 트레킹을 즐길 수 있고 외딴 해변에서는 달콤하고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동말레이시아에서는 소수민족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하얀 구름을 까마득한 발아래에 둔 키나발루산 트레킹을 비롯해 해변에서의 낭만적인 휴양이 여행객들을 손짓하며 부른다.

미래 도시를 떠올리게 하는 트윈 타워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어로 ‘휴탕물이 만나는 곳’이란 뜻이다. 시내를 흐르는 켈랑강과 곱박강이 합류하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애초에는 수많은 정글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으나 주석 광맥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후 열강들의 침략기에 많은 자본이 유입돼 오늘날의 거대 도시로 탈바꿈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에서 많은 노동자가 유입된 영향으로 현재 쿠알라룸푸르 거주민의 약 70%가 중국인이다.

오늘날 쿠알라룸푸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아마도 트윈 타워일 것이다. 쿠알라룸푸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전체를 상징하는 건물로도 유명하다. 우

리나라와 일본이 합작해 만든 것이어서 한국인에게는 더 각별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착공은 일본에 비해 한 달 정도 늦었지만 최종 완공은 오히려 일주일가량 앞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기술력을 뽐냈다. 건축물 대부분이 2층을 넘지 않는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무려 452m 높이의 타워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어 낮이건 밤이건 지도 없이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외관은 여행객들의 발길을 쉬이 놓아 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타워 위쪽을 사진에 담으려고 머리를 있는 대로 뒤로 젖힌 채 카메라 셔터를 눌러 댄다. 그런가 하면 타워 전망대까지 올라가 내려다보는 시내의 모습도 압권이다.

타워 주변에서는 다양한 쇼핑과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 말레이시아 여행객이라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살아 있는 박물관, 말라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말라카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1405년부터 명나라 사신들에 의해 무역항으로서 이름을 서서히 알리기 시작한 후 인도, 아랍, 유럽 상인들이 몰려들며 상업중심지로 발전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금, 은, 비단, 도자기 등 다양한 물품과 함께 불교, 도교, 유교 등 여러 종교가 유입됐고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전파돼 종교중심지로도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지역답게 도시 전체가 고스란히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유적을 간직하고 있다. 300년도 더 된 골동품을 소장한 가게들이 거리마다 넘쳐날 정도다. 게다가 골동품마다 흥미롭고 신비로운 사연들을 듬뿍 간직하고 있어 보는 재미 못지않게 듣는 재미도 쏠쏠하다. 가격

랑카위에서 여행객들이 맨 처음에 만나는 독수리광장. 이곳에 세워져 있는 독수리 동상의 이름이 다름 아닌 랑카위다. 이곳 사람들은 이 독수리가 랑카위섬을 지켜 주는 수호 동물이라며 각별히 여긴다.





1	
2	
3	4

1.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수많은 정글의 하나였으나 주석 광맥이 발견된 이후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자본이 유입되면서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했다.
2. 건물 대부분이 2층을 넘지 않는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452m나 치솟은 트윈 타워는 어느 곳에서나 돋보이기 때문에 지도 없이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3.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말라카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오랜 역사를 지닌 덕분에 도시 전체가 고스란히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유적이 존재한다.
4. 코타키나바루는 동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항구도시다. 석양 무렵의 풍경이 아름다워 '황홀한 석양의 섬'이라고 불리며 '말레이시아의 보석'으로 꼽히기도 한다.





1

1. 천국보다 아름답다는 랑카위. 104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설의 섬'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2. 원주민들이 이용하는 뗏목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캘리베이 해변에 도착한다. 이곳에서는 각양각색의 말레이시아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다.



2

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어서 전 세계의 골동품 애호가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

시내 곳곳에는 식민지 시대의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스타디스박물관에 가면 고대의 왕국 시절부터 식민 통치기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관통해 온 역사적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네덜란드의 침략에 맞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세웠다는 파모사 요새를 비롯해 지금은 벽체만 남고 폐허로 변한 세인트폴 교회 등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역사와 전통의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지은 지 250년이 넘었다는 진분홍 빛깔의 네덜란드 양식 교회 안에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보관돼 있는 건축 당시의 의자나 그림 등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섬, 랑카위

천국보다 아름답다는 랑카위. '전설의 섬'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104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빼어난 자연경관은 보는 이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휴식을 취하려는 여행객들

이 랑카위에서 유난히 편안하고 아늑한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자연 보호 정책 덕분이다. 랑카위 해변에서는 호텔을 비롯한 각종 건물을 야자수보다 높게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해 문명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했다.

랑카위가 여행객들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곳은 독수리광장이다. 이곳에 세워져 있는 독수리 동상의 이름이 다른 아닌 랑카위다. 주민들은 이 독수리가 랑카위섬을 지켜 주는 수호 동물이라며 각별히 여기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보석, 코타키나바루

코타키나바루는 동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항구도시다. 특히 해가 질 무렵의 석양 풍경이 아름다워 '황홀한 석양의 섬'이라고 불리며 '말레이시아의 보석'으로 꼽히기도 한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말레이시아의 휴양지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코타키나바루다. 휴양지에 걸맞은 고급 리조트가 준비하며 관광객들을 유혹하는 다채로운 활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툰구암둘라만 해양국립공원에 있는 마무틱섬이나 사피섬



3

3.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술과 돼지고기를 삼가야 한다. 또 왼손은 부정하게 생각하므로 악수하거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는 오른손을 이용해야 한다.
4. 하얀 구름을 발아래에 둔 키나발루산 국립공원에서의 트레킹. 해발 4천m가 넘는 정상까지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갈래의 돌레길에 늘어져 있는 다양한 식물군 감상으로 만족하는 이들도 있다.



4

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구경하기 힘든 각양각색의 열대어를 만날 수 있으며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제트스키 등 온갖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원주민이 이용하는 뗏목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캘리베이 해변에 도착한다. 이곳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전통문화가 관광객을 기다린다. 파라핀과 왁스 등을 이용해 그리는 바틱 페인팅과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줄남시 등의 체험이 그것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키나발루산 국립공원에서의 트레킹도 좋은 추억거리다. 해발 4천m가 넘는 키나발루산 정상까지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갈래의 돌레길을 걸으며 열대식물에서 침엽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군을 감상하는 이들도 있다. 문명에서 한 걸음 벗어난 맑고 조용한 산에서는 이름 모를 다양한 새들의 맑은 지저귀, 그리고 청량한 바람 소리만이 들려와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즐겁게 만든다. 

서지훈 기자 ibuddy@hanmail.net

사진제공_ 하나투어(www.hanatour.com)

Tip



1.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여서 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 늦은 밤까지 문을 여는 술집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도 당연한 일이다.
2.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즐기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왼손은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하거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써야 한다. 머리를 신성하게 여기므로 어린아이라고 해서 머리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행동은 삼가는 게 좋다.
3. 말레이시아의 기온은 연간 21~32℃로 1년 내내 우리나라의 여름과 비슷하다. 기온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강우량은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깝다. 특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말레이시아의 동해안과 동말레이시아는 11~2월, 서말레이시아의 서해안은 8~9월이 우기이므로 이때에 방문할 생각이라면 우산과 비옷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컨디션 나쁠 땐 피해 최소화하는 플레이해야

오늘 해 PGA 투어 혼다클래식은 신-구 골프 황제의 대결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져 많은 골프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승자는 23세의 로이 매길로이. 새 황제는 대회 우승과 함께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서는 겹경사를 누렸다. 매길로이보다 14세 연상인 '원조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비록 2타 차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4라운드에서만 무려 8타나 줄여 경기를 화끈하게 달아오르게 했다.

혼다클래식이 열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는 연못과 병커로 잔뜩 무장한 골프장이다. 플로리다 지역 습지에 조성된 코스 곳곳에 워터 해저드가 깔려 있어 아차 하면 공은 물속으로 사라진다. 난도가 꽤 높은 PGA내셔널 챔피언스 코스의 간판은 뭐니 뭐니 해도 '베어 트랩'으로 불리는 15번(파3, 179야드), 16번(파4, 434야드), 17번(파3, 190야드) 홀이다.

이곳은 '사냥꾼이 곰을 잡으려고 설치한 덫'처럼 워터 해저드와 병커가 선수들 발목을 잡는다. 바람이 많이 부는 15번 홀에서는 왼쪽 병커와 오른쪽 워터 해저드를 피해 티샷

로이 매길로이의 영리함은 '샷이 잘못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주말 골퍼도 종종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 어떤 선택이 최악의 경우에도 타수를 가장 적게 잃는 길인지 따져야 한다. AFP_ 연합뉴스

을 날려야 하고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도그레그 홀인 16번 홀 역시 오른쪽의 벙커와 워터 해저드가 부담스럽다. 17번 홀도 짧으면 물이고 길면 벙커다. 좌우로 벗어나도 물 아니면 벙커 신세라 프로들도 티잉그라운드에서 오르면 어디로 쳐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한다.

베어 트랩의 평균 타수는 10.8타. 3개 홀의 규정 타수를 모두 합해도 10타밖에 안 되니 프로들도 이곳에서는 1타 가까이 잃는 게 평균이라는 얘기가. 14번 홀까지 신나는 버디 행진을 벌이던 선수가 베어 트랩에서 눈물을 뿌리며 리더보드 상단에서 밀려나는 일이 허다하다.

이날 승부도 사실상 베어 트랩에서 결정 났다. 준우승은 우즈가 차지했지만 사실 매길로이와 막판까지 우승 경쟁을 벌인 선수는 저스틴 로즈였다. 매길로이에 2타 차이까지 따라붙은 로즈는 그러나 15번 홀에서 티샷한 볼이 짧아 워터 해저드로 빠지면서 2타를 한꺼번에 잃었고 17번 홀에서는 티샷을 너무 길게 치는 바람에 1타를 더 까먹었다.

매길로이를 따라잡을 동력을 상실한 로즈는 준우승마저 우즈에 내주고 말았다. 추격자의 차지였던 로즈는 그린 앞쪽에 핀이 꽂힌 15번 홀에서 버디를 꼭 잡겠다는 다급한 마음에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으로 추격전은 끝이었다.

4라운드에서 아이언 거리감이 살아나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한 매길로이에게도 베어 트랩은 우승 길목에서 꼭 풀고 넘어가야 할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매길로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특했다. 방심했다가는 보기는커녕 더블보기까지 감수해야 하는 15번과 17번 홀에서 파 세이브를 목표로 하되 정 안되면 보기로 돌아와야 하고 걱정된 것이다.

매길로이는 두 홀에서 모두 티샷을 조금 길다 싶게 쳤다. 볼은 그린을 지나 벙커에 들어갔다. 하지만 매길로이는 벙

커샷으로 두 번 모두 홀 1m 이내에 붙여 무난하게 파를 잡아냈다. 매길로이는 벙커샷을 비롯해 그린 주변에서의 플레이가 이 대회에서 유난히 좋았다. 그린을 놓치고도 파나 버디를 잡아낸 경우가 83.3%로 출전선수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기자 회견에서도 “쇼트게임이 엄청 잘 됐다”고 자화자찬할 정도였다.

요행 기대지 말고 최악 피하는 길 찾아야

워터 해저드에 공이 빠지면 잘해야 보기이고 대부분 더블보기가 나온다. 벙커에 볼이 빠져도 프로라면 60% 이상은 파를 잡아낸다. 못해도 보기이고 더블보기는 극히 드물다. 쇼트게임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아이언 거리감이 들쭉날쭉해 고민이던 매길로이는 워터 해저드보다는 벙커가 낫다는 전략으로 15번과 17번 홀 티샷을 길게 친 것이다.

매길로이의 작전은 대성공으로 마무리됐다. 파4인 16번 홀을 포함해 베어 트랩 3개 홀에서 모두 파를 세이브한 매길로이는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편안하게 파를 지키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매길로이의 영리함은 ‘샷이 잘못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주말 골퍼도 종종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어떤 선택이 최악의 경우에도 타수를 가장 적게 잃는 길인지 따져 보라. 잘하면 버디나 파를 잡을 수도 있지만 아차 해서 양파가 나올지도 모른다면 결단코 피할 일이다. 잘 쳤을 때 따르는 보상은 고작 1타를 줄이는 것뿐이지만 잘못 해서 징벌이 더블보기 이상이라면 그런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 

권훈 LA 특파원 khoon@yna.co.kr



연상녀-연하남 커플, 드라마 점령

연상녀-연하남 커플의 로맨스가 스크린에 이어 안방극장에도 잇따라 파고들고 있다. ‘오싹한 연애’ ‘티끌 모아 로맨스’ ‘너는 펫’ 등 지난해 스크린에서부터 일기 시작한 ‘누나와의 로맨스’는 올봄 안방극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남자 배우가 실제로도 누나인 여배우와의 로맨스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은 영화와 달리 드라마에서는 남녀 배우의 나이 차이를 철저하게 ‘덮고’ 간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남녀 주인공이 연상녀-연하남의 조합이지만 극 중에서는 동갑이거나 오히려 그 반대로 설정하는 식이다.



연상녀-연하남 조합이 잦아진 것은 현재 20대 초반의 여배우와 30대 초반의 남자배우 중 주연급이 부족한 탓이다. MBC 수목극 ‘해를 품은 달’의 한가인은 김수현보다 여섯 살 많다. 사진제공_ 팬 엔터테인먼트

아홉 살 차이도 거뜬... 여배우들 “행복해요~”

올봄 최고의 화제작으로 얼마 전 막을 내린 MBC 수목극 ‘해를 품은 달’의 한가인(30)은 김수현(24)보다 여섯 살이나 많다. 하지만 극 중에서는 한가인이 연기하는 연우가 김수현이 맡은 이훤보다 두 살 아래로 설정됐다. 한마디로 한가인은 드라마에서 실제 나이보다 8살이나 어려 보여야 했다는 얘기다. 이 작품에서 한가인이 상대한 또 한 명의 남자배우 정일우(25)도 김수현보다 고작 한 살 더 많았을 뿐이다.

한가인은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두 사람(김수현·정일우)과 나이 차이가 꽤 있다”고 말하고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한가인은 그러나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어려 보이는 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 같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한가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우라는 극 중 인물로 나오는 만큼 극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연우로 봐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며 ‘나이보다 어리게 봐 줬으면...’ 하는 속내를 은근히 내비쳤다.

후속작인 ‘더킹 투 하츠’는 한술 더 뜬다. 하지원(34)이 무려 아홉 살 어린 이승기(25)와 호흡을 맞춘 것. 하지원은 “다른 작품에서도 저보다 어린 배우들과 연기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지원이 아니라 서로 배역 이름을 부르면서 연기했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었다”고 밝히고 “현장에서는 이승기 씨가 생각보다 어리지 않아 보인다”고 애써 강조했다. 심지어 오빠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해서 전혀 나이 차이를 느끼지 못한 채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SBS ‘옥탑방 왕세자’의 한지민(30)도 박유천(26)보다 네 살 연상이다. 하지만 이들도 극 중에서는 나이가 역전된다. 직전 작품인 ‘빠담빠담...’에서 자신보다 아홉 살 많은 정우성과 호흡을 맞췄던 한지민은 “처음으로 연하의 남자배우를 상대로 연기할 기회가 와서 선택하게 됐다”고 말하고 “처음에는 상대 배우가 저보다 어린 친구라고 해서 설레기도 했다”는 ‘고백’ 까지도 했다.



연상의 여배우가 연기 면에서 의지할 수 있어 편하다는 게 남자배우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더킹 투 하츠'에 하지원과 출연 예정인 이승기는 "하지원 선배가 연기하는 걸 보면 소름이 돋을 때도 있다. 많이 배우려 한다"고 밝혔다. 사진. 김연정 기자

“나이 차 못느껴요~”... 남자배우들 “오히려 편해”

이승기 역시 아홉 살 연상의 하지원에 대해 “연기할 때 나이 차이는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지민과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박유천도 “지민 누나를 처음 보고 ‘어떻게 저 분이 저 나이일까?’ 하고 생각했다”고 첫 대면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고 “저보다 네 살 누나라는 느낌을 전혀 안 받을 정도로 나이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들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그저 단순한 입발림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요즘 여배우들 가운데 동안이 많고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 나이를 잊기 마련이라는 게 남자배우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들은 또 연상의 여배우가 연기하는 데 더 편하다고도 말한다. 대부분 선배이기 때문에 연기 면에서 의지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것. 이승기는 연기파인 하지원의 상대역으로 결정된 뒤 “이 작품을 정말 하고 싶었다.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한다는 게 설렌다”고 말하고 “하지원 선배가 연기하는 것을 보면 소름이 돋을 때도 있다. 많이 배우려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후배 남자배우로서는 어려서부터 동경해 오던 선배 여배우와의 호흡에 대한 환상도 있음 직하다. ‘해를 품은 달’의

김수현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때부터 한가인 선배의 팬이었는데 한 작품에서 만나게 돼 영광”이라고 말하고 “내가 (지금 위치까지) 많이 올라온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배우 기근이 만들어 낸 현상

이러한 남녀 배우 나이의 역전은 기본적으로 배우 기근이 만들어 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20대 초반의 여배우와 30대 초반의 남자배우 가운데 주연급으로 쓸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연예계의 중론이다. 자신 있게 주인공으로 내세울 그 나이대의 배우가 없어 남녀 배우의 조합을 짜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여기에 연하남과의 연애에 대한 여성들의 판타지를 공략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영섭 SBS 드라마특별기획총괄은 “현실에서 연상녀-연하남이 대세이기도 하고 기존의 연상남-연하녀 커플 조합을 뒤집는 캐스팅의 파격이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윤고는 문화부 기자 pretty@yna.co.kr

로맨스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이집트는 로마의 밀밭이었다”



정갑식

- Fashion Food 21 대표
- 영국 Oxford Brookes대학 박사과정 수료
- 런던에서 Dining/Eating out trend 분석 컨설턴트로 활동 중

이집트는 먹을거리 확보에 관한 한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나일강에서 생산되는 곡물, 밀이 그 주인공이다. 사진: 연합DB

사람들은 가정을 곧잘 한다. 주로 “만약 이러이러했다라면...”이라는 표현으로. 영어로는 ‘if’로 시작되는 가정에는 대부분 특정한 때와 특정한 사람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클레오파트라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세계사를 공부할 때 적어도 한두 번씩은 듣는 얘기고 절세의 미인을 일컬을 때에도 자주 인용되곤 한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미모가 실제로도 그렇게 빼어나았는가는 의문이다. 그녀의 미모가 후대 사람들이 전하는 대로 경국지색(傾國之色)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고고학적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지 않은가? 그렇다 하더라도 당대의 권력자들을 자신의 품 안에 끌어들이 정도의 미모를 지녔던 것만은 틀림없으리라.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사가 정말 바뀌었을까? 다시 말해 그녀가 미인이 아니었다면 로마의 권력자들을 품 안에 넣고 휘두르지 못했을 것이므로 역사가 실제로 전개된 것과는 많이 달라졌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도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맞다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역사를 가정할 때에도 그 중심에는 먹을거리가 있다는 필자 나름의 역사관이 이러한 판단의 배경이다.

나일강의 밀, 로마인의 빵

고대사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먹을거리다. 먹을거리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야 군락이 형성되는 법이다. 이집트는 바로 이 먹을거리 확보에 관한 한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나일강에서 생산되는 곡물, 밀이 그 주인공이다.

밀은 쌀, 옥수수와 더불어 3대 문명 작물의 하나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갈파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집트 문명이 로마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해 온 과정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헤로도토스로서는 당연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집트가 후대 사회와 서양문명에 끼친 영향까지 감안해 평가하자면 나일강은 신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내린 ‘지상 최대의 선물’이라고 정의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생각해 보라. 장장 6천650km에 이르는 나일강은 가히 세

계적인 강이라고 할 만하다. 이 길고 긴 강은 매년 범람했고 그때마다 최고 품질의 흙더미들을 하류로 옮겨 놓는 일을 충실하게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자연이 만들어 낸 이 장엄한 작업은 비료가 없던 고대사회에서 말 그대로 옥토를 일구려는 하늘의 노력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하늘의 축복 덕분에 이집트 사람들은 BC 2000년경부터 나일강 유역에서 밀을 재배하며 찬란한 세계 4대 문명의 하나를 꽃피울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구약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리스 시대부터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내다 팔 정도로 품질 좋은 밀을 나일강 유역에서 길렀다. 나일강이 이미 그리스 시대부터 유럽 사람들에게 밀을 생산하는 곡창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는 얘기도. 누구나 나일강 곡창지대를 찬탈의 대상에 올려놓고 탐욕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주변으로 영토를 계속 넓히며 제국의 건설을 추구했던 로마의 야심 찬 정치철학은 도시국가 형태의 공화정으로 나라를 모범생처럼 운영하던 그리스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제국의 그 넓은 영역을 탈 없이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먹을거리 확보가 최우선이었다. 그리하여 로마제국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이 북부 아프리카의 땅이고 그중에서 이집트는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목표였다. 비옥한 황금의 곡창을 당대의 초강대국 로마가 그냥 내버려 둘 리 만무했던 것이다. 시저는 이 목표를 향해 정확히 진군한 명석한 권력자였다.

권력자는 사랑보다 빵을 좋아한다?

시저가 이집트까지 대군을 몰고 간 표면적인 이유는 정적 폼페이우스를 붙잡아 제거하려는 것이었지만 이집트 자체를 놓고 그가 생각한 것은 아주 단순했다. 나일강의 밀, 그리고 이 밀이 로마 사람들에게 제공할 빵이었다. 그의 정치적 야심을 채워 줄 도구로써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었던 셈이다. 이집트의 밀이 로마제국에서 차지하는 정치적인 무게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도 된다.

시저와 세기의 여걸 클레오파트라와의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필자는 그러나 ‘과연 그 사랑이 그저 순수한 사랑이기만 했을까?’라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에게 대승을 거둔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를 점령한 후 보여준 행동에서 훌륭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안토니우스를 꺾고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에 오른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를 황제의 직속령으로 공포했다. 이집트를 자신의 개인 밀밭으로 만들어 나일강에서 생산되는 밀을 제국 통치의 든든한 무기로 활용하려는 속셈에 다른 아니었다. 제정 로마시대를 연 옥타비아누스의 정치력과 힘의 밀바탕에는 나일강의 밀이 자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더구나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서 수확되는 밀은 이탈리아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빵의 3분의 1을 충당할 정도로 막대한 양이었다. ‘빵의 옐도라도!’ 아마존 강가에 있었다는 상상 속의 황금의 나라에 빗대어 나일강 유역을 표현한 말이다. 시저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같은 권력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로맨스를 좋아한다. 그리고 로맨스에 푹 빠져들어 아름다운 얘기를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그러나 후세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대부분 실제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포장되기 일쑤다. 남편의 사랑 얘기는, 로맨스는 아름다워야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대중은 누구나 이러한 장치에 걸려들어 열광한다.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먹을거리가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는 우리의 눈이 좀 더 이성적이라면, 그리하여 평생 전쟁터를 누빈 명장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최고의 권력을 거머쥔 시저의 커다란 야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클레오파트라와의 로맨스 뒤에 가려져 있는 나

일강의 밀은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도 아주 크고 선명하게.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드러낸 마지막 집착도 나일강의 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나일강의 밀을 확보하는 것은 곧 로마 사람들의 밥줄을 움켜쥐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최고의 우군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통하기 때문이다. 결국 나일강의 밀은 클레오파트라의 미모가 시저와 안토니우스에 어필하는 데 최고의 조력자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음식을 통해 당대의 정황을 뒤집어 보기를 시도하는 색다른 역사관이 라고나 할까?

필자는 나일강이 이집트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계의 역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더 낮았더라도 세계의 역사는 별로 변하지 않았으리라. 클레오파트라가 없어도 나일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옥토에서는 매년 엄청난 양의 밀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클레오파트라가 없었더라도 나일강의 밀은 수많은 권력자를 이집트로 끌어들이었을 것이다. 고대 서구사회에서 빵이 먹을거리의 중심에서 밀려 변방으로 쫓겨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음식은 항상 역사의 중심에서 주연이든 조연이든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을 뿐이다. 



나일강의 비옥한 땅에서 수확되는 밀은 이탈리아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빵의 3분의 1을 충당할 정도로 막대한 양이었다. 사진_연합DB

휴일 뒤에 더 피곤하다?

월요일 걸리지 않으려면 일찍 자라

모처럼 폭 쉬고 난 월요일, 뽕뽕하리라 기대했던 몸은 직장에 출근해 책상 앞에 앉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모처럼 한가했던 토요일에는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기는 했으나 일요일 아침 느지막이 일어난 데다 두어 시간 낮잠까지 즐겼건만 온몸이 찌뿌둥하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야근한 다음 날보다 오히려 더 피곤한 이른바 ‘월요일병’이다. 점심시간에 잠을 내 잠시 눈을 붙여 보지만 오후에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은 채 하루를 멍한 상태로 보내기 일쑤다.

늦잠 자면 더 피곤하다

휴일이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늦게 자고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꿈나라를 헤매는 이가 적지 않다. 이른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려 대던 자명종까지 꺼 놓고 폭 잤으니 평소에 부족한 잠을 실컷 보충했다며 흡족해하기 쉽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어쩌면 늦게 잠들었기 때문에 실제 수면시간은 평소와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주5일제로 인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연달아 쉬게 되면서 이를 내내 늦잠을 잤다가는 월요일에 몸도 마음도 부대끼기 마련이다. 억지로 일찍 일어나 개운하지 않은 몸으로 출근하면 온종일 월요일병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평소와 비슷한 수면시간을 유지했더라도 자고 깨는 시간이 갑자기 달라지면 인간의 몸이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면 배고파지고, 일정 시간 업무에 몰두하면 피로를 느끼며, 늘 잠들던 시각이 다가오면 졸음이 쏟아지는 것도 인간의 몸이 일정한 생활습관에 맞춰 움직이는 탓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생체시계’가 꽤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생체시계를 무시하고 갑자기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면 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하지만 자야 할 시간이 지났거나 몸은 피곤해도 머리가 말뚱말뚱해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거나 깨야 할 시간을 훨씬 넘겨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한 식이다.



일찍 자는 게 늦잠보다 좋다

휴일에 주중에 밀린 잠을 보충해야 한다며 늦잠을 자기보다는 한두 시간쯤 일찍 잠자리에 들기를 권한다. 밤 12시 전에 자는 잠이 12시가 넘어 자는 잠보다 훨씬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라면 성장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잠을 자는 게 바람직하다.

성인도 이 시간에는 수면을 취하는 게 좋다. 다른 시간대에 비해 양질의 수면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똑같이 하루 8시간을 자더라도 밤 12시가 넘어 자는 것보다는 밤 10시부터 자는 게 숙면에는 한결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다음 날 아침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도 한결 개운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라

불면증을 비롯해 각종 수면 장애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자미원한의원 허정원 원장은 “한의 학에서는 인체를 방어하는 ‘위기(衛氣)’의 순환을 따라 잠이 이뤄진다”고 말한다. 위기란 사람의 몸을 지키는 기운으로 면역력이나 활동력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위기는 아침이 되면 몸의 표면으로 몰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 내며 몸이 깨어 활동하게 돕는다. 반대로 밤이 되면 신체의 안쪽으로 스며들어 수면을 취하게 한다. 잠이 들 무렵 체온이 약간 내려가는 것은 위기가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문제는 휴일에 늦잠 등으로 수면 주기가 흐트러지면 위기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마치 아침이면 출근해 활기차게 일하고 밤이면 퇴근해 집으로 돌아와야 할 남편이 밤이 돼도 귀가하지 않아 분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허 원장은 위기를 살려 주는 손쉬운 방법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꼽고 그중에서도 일정한 수면 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휴일이건 평일이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라는 조언이다. 그밖에 밝은 햇빛을 많이 쬐고 밤에는 실내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는 것도 위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과로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위기의 흐름이 깨지면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고 잠을 자도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럴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단다.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충고다.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10~20분 동안 낮잠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기를 회복할 수 있다. 집에서도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는 한두 시간가량 편하게 앉거나 누운 채 눈만 감고 있어도 다음 날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운을 비축할 수 있다. 

서지훈 기자 ibuddy@hanmail.net

휴일이면 평소 밀린 잠을 보충하는 이들이 많다. 그럴 때에는 늦잠보다 한두 시간쯤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이 훨씬 좋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아이든 어른이든 수면을 취해야 한다. 다른 시간대에 비해 양질의 수면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최고령 초딩 학교에 가다

퍼스트 그레이더



개봉 : 2012. 4.

감독 : 저스틴 채드워

출연 : 올리버 리톤도, 나오미 해리스

상영시간 : 103분

관람등급 : 12세 관람 가

홈페이지 :

<http://www.thefirstgrader-themovie.com/>



아역 배우들은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건강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사진제공_ 루믹스미디어



아프리카 케냐의 한 시골 길. 천진난만하게 학교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 틈에 덩치 큰 노인 한 명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발걸음을 떼고 있다. 정부에서 무상 초등교육을 시행한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학교에 찾아간 84세의 키마니 낭아 마루게 할아버지. 워낙 고령이기도 하거니와 과거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을 하다가 겪은 고초 탓에 잘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글을 배워서 꼭 읽어 보고 싶은 편지가 있다며 학구열을 불태운다. 주변에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기회가 낭비된다며 반대가 끊이지 않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퍼스트 그레이더'는 1953년의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한다. 케냐의 여러 부족 가운데 끝까지 영국에 저항한 마우마우족 대부분이 학살당하고 만 것이다. 마루게는 그중 몇 안 되는 생존자였다. 그는 식민지 시절에는 영국에 대항해 싸웠고 이제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위해 다시 한 번 세상의 편견과 맞섰다.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령 초등학생 마루게에 대한 기사가 LA타임즈에 실렸으니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나니아 연대기'를 각색한 유명 작가 앤 피콕이 시나리오를 쓰고 '천일의 스캔들'로 연출 역량을 입증한 저스틴 채드워이 감독을 맡아 촬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주연을 맡은 올리버 리톤도는 케냐 출신으로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누구보다 실존인물을 잘 연기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아역 배우들도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생생하고 건강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관객상을 받았고 세계 사운드트랙 영화상 '올해의 발견'에 선정됐으며 세도나 국제영화제와 엠텐 국제영화제에서는 관객상과 작품상을 모두 거머쥐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함께 인정받았다.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간기남

간통 전문 형사이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 간통 때문에 정직 상태에 있는 선우(박희순 분)는 주특기를 살려 흥신소를 운영한다. 그러나 복직을 사할 앞둔 날 왠지 예감이 좋지 않은 의뢰가 들어온다. 역시 그랬다. 간통 현장을 덮치러 갔다가 살인 용의자가 돼 버리고 만 것이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죽은 남자의 아내 수진(박시연 분)뿐이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도발적 매력을 지닌 수진과 위험한 관계로 빠져들며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치달는데... 선우는 결백을 증명하고 사랑도 얻을 수 있을까?

영화 '간기남'은 '스릴러는 어둡고 무섭다'는 고정 관념을 깨고 시종일관 유쾌하게 즐기는 신개념 스릴러다. '살인사건이 된 간통사건'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긴장감 넘치는 전개, 허를 찌르는 웃음 요소, 이슬이슬한 사랑 이야기가 모두 버무려졌다. 누명을 벗기 위해 결사적으로 진범을 찾는 선우와 그를 쫓는 동료 형사들 사이의 치열한 두뇌 게임도 박진감이 있지만 선우와 진범일지도 모르는 수진이 벌이는 미묘한 감정의 줄다리기도 역시 결말을 예측하기 어렵다.

명품 조연들의 코믹 연기도 영화의 감칠맛을 더한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주상욱은 아무리 다급해도 공중도덕은 반드시 지키는 융통성 없는 '허당' 형사로 분했고, 최근 '예능 기대주'로 떠오른 김정태는 선우의 친구로 등장해 대본에도 없는 즉석 연기로 관객들을 폭소의 도가니에 빠뜨린다.

감초 연기의 대명사 이한위는 시체도 반으로 나누려는 협상의 달인이자 카리스마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형사반장으로 변신해 깨알 같은 재미를 보낸다. 충무로의 차세대 조연으로 꼽히는 이광수는 많이 모자라지만 전국 모텔의 주소나 바람난 사람, 동물 등을 기막히게 찾아내는 재주로 선우를 위기에 서 구해 내는 흥신소 직원 기풍 역을 맛깔나게 소화했다. 

정승희 기자 qqutti@hanmail.net



개봉 : 2012. 4. 11.
 감독 : 김형준
 출연 : 박희순, 박시연, 김정태, 이한위
 상영시간 : 117분
 관람등급 : 청소년 관람 불가
 홈페이지 : <http://ganginam2012.co.kr/>



김정태, 이한위 등 명품 조연들의 코믹 연기도 영화의 감칠맛을 더한다. 사진제공_더홀릭컴퍼니



세상 모든 CEO가 묻고 싶은 질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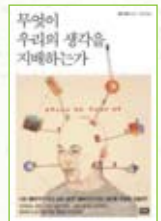
최근 한 외식업체에서 손님과 종업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 인터넷을 타고 일파만파 번져 나갔다. 회사 측의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기업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졌고 수백여 개에 이르는 전국 가맹점은 엄청난 영업 손실을 봤다. 내가 만약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라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영업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CEO의 고민은 이러한 위기관리 말고도 많다. 특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들, 보기에는 비슷한데도 대박을 터트리는 경쟁사 제품, 게으른 직원을 똑 부러지게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 문제는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도 마땅찮고 경영서적을 들춰 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해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니 속이 시원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CEO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만한 문제들을 100가지로 추려내 원인을 찾고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 제시했다. 게다가 위로까지 곁들였다. CEO의 질문 속에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회사가 성장한다는 이유에서다.

IGM세계경영연구원 지음 / 위즈덤하우스 / 480쪽 / 20,000원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

나는 정말로 햄버거가 먹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햄버거를 먹고 싶어 하도록 조종당한 것일까? 금연, 다이어트 등을 결심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하고, 소형 TV를 사러 갔다가 대형 에어컨을 들고 나오며, 없어도 될 물건을 끊임없이 사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십 년간 마음의 힘을 연구해 온 저자는 사람의 무의식에 잠재된 정보가 소비습관, 태도, 욕망, 계획, 자아상, 신념, 가치관 등까지 조종할 수 있다는 섬뜩한 주장을 내놓는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보면 책상 위에 각진 서류가방이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더 경쟁적으로 행동하며, 도서관 벽에 그림이 걸려 있을 때 더 작게 얘기하고, 청소용품 냄새가 날 때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마케팅 담당자, 광고인, 방송 제작자, 심지어는 사회운동가나 정치인, 종교단체, 국가까지도 사람들의 생각과 욕구를 조종하려 든다. 하지만 이래서는 더 나은 삶도, 진정한 자신도 발견할 수 없다. 저자는 잃어버린 마음의 통제력을 되찾고 내적 평안함을 얻기 위해 TV를 끄고 광고를 보지 않는 등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권고한다.

엘트 테일러 지음 / 이문영 옮김 / RHK / 284쪽 / 13,800원



1인분 인생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저자는 C급 학자다. 경제학자이지만 사회, 문화, 생태 등의 영역을 고루 넘나들며 민감한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 논쟁을 지펴 올리고 대안을 모색하게 하는 일에 앞서 왔다. 이번에는 일상에 주목했다.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달려왔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따진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데 왜 자꾸 가난해지는지 묻는다. 성공은 돈과 직결되고, 경쟁에서 낙오하면 실패한다는 경제근본주의의 폐해 때문이라며 사회가 만든 획일적 삶을 비판한 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1인분 인생을 살자고 주장한다.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며 살자는 얘기다. 잘 산다는 것과 진짜 행복의 의미, 성숙과 성장을 위한 방법 등 정말로 필요한 질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도 충고한다.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으면 그만 욕심내고, 누군가를 울리기보다 웃기며 살아가라고 성토했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것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처벌을 내리거나 안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만의 답을 궁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1인분 인생이기 때문이라한다.

우석훈 지음 / 상상너머 / 376쪽 /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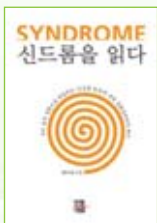


회계를 알면 성과가 보인다

저자는 오랜 경력의 공인회계사다.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와 기업 구조조정, 가치 평가, 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런 그가 직장에서 일등 사원이 되려면 회계를 모르고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니 홀려들을 수만도 없다. 어렵다고, 내 분야가 아니라고 나 몰라라 했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한다. 실제로 직장인이란 어떤 순간 회계 지식의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창업을 비롯해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책은 누구나 알아야 할 회계의 기본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재미있게 설명한다. 회계의 목적과 주요 재무제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뒤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 읽는 법을 비롯해 포괄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에서 배운 회계 이론을 활용해 재무제표를 터득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지정일 지음 / RHK / 290쪽 / 13,000원





신드롬을 읽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이란 게 있다. 물체가 실제보다 크거나 작아 보이고 때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왜곡돼 보이는 증상으로 TV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남자 주인공이 언급한 후 널리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다른 사람의 벨소리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거나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도 진동을 느끼는 '벨소리 증후군'도 있다. 자식들이 독립한 후의 허전함을 뜻하는 '빈 둥지 증후군'은 핵가족의 단면을 드러내는 증상이다. 주목할 점은 사회에 존재하는 현상만큼 수많은 증후군이 다양한 영역에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원래 신드롬, 또는 증후군이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현상이나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전문용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반화되고 종류도 늘었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며 특이한 현상도 많아졌다는 증거다. 신드롬을 알면 세상의 변화상과 이면을 더욱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드롬을 통해 사회를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를 반추해 보는 책이다.

배우리 지음 / 미래를 소유했던 사람들 / 298쪽 / 12,000원

만 가지 행동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유명한 저자의 네 번째 심리 에세이. 독자로 하여금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도록 한 전작들에 이어 이번 책에서는 통찰에 대한 훈습 과정을 담았다. 불교 용어인 훈습은 정신분석 과정의 철저한 이행을 의미한다. 4장으로 구성된 책은 우선 하던 일 하지 않기를 권한다. 유아기에 형성된 낡은 생존법을 과감히 버리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하지 않던 일 하기. 회피해 왔던 영역에 발을 내디뎌야만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작가 또한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든 하기'를 되뇌며 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다수 시도했다. 세 번째는 타인과 경험 나누기. 이를 통해 전이, 역전이, 투사, 동일시 등의 자기실현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 건강을 지키는 과정이다. 저자는 한때 타인에게 자기 삶의 나뭇가지 하나도 기대지 않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자신의 힘으로만 일어서고 모두에게 친절하며 이성적이지만 풍부한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어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신분석을 받고 훈습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때에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김형경 지음 / 사람풍경 / 312쪽 / 13,800원

죽기 전에 답해야 할 101가지 질문

나는 오늘 죽어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출간 즉시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 책은 이러한 질문으로 출발한다. 저자들은 이미 <마음을 열어 주는 101가지 이야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등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된 책을 통해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켰던 저술가이자 강연자, 상담가다. 이번 책에서는 인생의 답을 찾아낸 사람들의 땀과 열정, 감동을 소개한다. 공통점이라면 삶을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는 지혜와 성찰을 담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책 속의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야말로 진정한 저자들이라고 추켜세운다. 행복을 찾아, 성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답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의심과 부정에 맞섰다는 것이다. 이들이 알려주는 결론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오답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오직 '자신의 답'만 존재하므로 생의 한복판을 나름의 방식으로 뜨겁게 걸어가라는 조언이다.



책 캔필드·마크 빅터 한센 지음 / 류지원 옮김 / 토네이도 / 416쪽 / 16,000원

인문학적 자유 vs 과학적 자유

독일의 한 병원에서 통증환자에 대한 접근을 놓고 회의가 열렸다. 의학자들은 통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의사로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철학자는 치유의 주역이 환자여야 하므로 환자가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과제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결론은? 의학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철학자가 말하는 '인간적 삶'과 과학자가 말하는 '인간적 삶'이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통섭, 소통, 융합 등의 말이 빈번히 쓰이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제대로 통섭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의학적 지식과 사고만으로는 부족해 '철학하는 의사'가 된 저자는 아무리 소통이 시대적 요청이라지만 쉽지 않다며 고개를 젓는다. 때로는 서로 간의 경계만 확인한 채 불쾌한 후유증까지 남기는 탓이다. 그렇기에 이를 언젠가 풀어야 할 과제로 받아들였고 이 책이 그 결과물이다. 책에서 예로 든 의부증·의처증, 감정 없는 의료와 인간적 의료, 금연할 권리와 흡연할 권리 등에 대한 과학자와 인문학자의 견해는 거의 극과 극에 달한다. 해결점이란 도통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저자는 조바심내지 않고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 간다. 소통해야만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차이를 파헤치는 것이야말로 소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여긴 때문이다.



이승범 지음 / 우물이 있는 집 / 205쪽 / 12,000원



Nature and Breath / 53.0×33.3cm / oil on canvas / 2011

자연, 그리고 숨결

인간에게 중요한 요소인 자연의 모습(물, 숲, 땅, 꽃 등)을 표현해 보고 싶었고, 동일한 정경을 바라보면서 아픔, 고뇌, 미움, 슬픔과 행복, 희망, 소망,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듯이 사물을 통해 어둠을 하나하나씩 지워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고 싶었다.

형상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소멸과 탄생의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극화했고, 삶에서 느껴지는 생동감을 추구하려 했고, 복잡한 삶 가운데 작품 속에서 자연의 모습들을 감상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싶었고, 자연 그대로가 숨 쉴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작품 속에서 소망이라든가 밝음이 느껴지도록 표현하고자 했다.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어두운 나를 평화시켜 순수로 향하게 하며, 복잡한 나를 단순화시키고 훈련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Nature and Breath / 53.0×33.3cm / oil on canvas / 2011

최미애

성신여자대학교 회화과 졸업

개인전

- 2011 제4회 개인전 (파리 국제아트쇼)
- 2010 제3회 개인전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
- 제2회 개인전 NAKAYAMA Gallery (일본, 동경)
- 2008 제1 회 개인전 (인사아트센터)

그룹전

- 2011 KPAM 미술제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아트페어 (서울, 하얏트호텔)
- 서울미술관 기획초대전 (인사동, 서울미술관)
- 2010 GALLERY L' ARTISTA EXHIBITION (이탈리아)
- CONTEMPORARY ART IN KOREA 초대전 (일본, 긴자아트홀)
- PROPONENDO 아트페어 (이탈리아, Forte dei Marmi)
- 2009 Korea Christian Art Fair (일본, 동경)
- 제4회 경향미술대전 입선
- 2007 제6회 한성백제 미술대전 특선
- 한 · 중 교류전 (중국 산둥성, 제노미술관)
- 한 · 일 FRIENDS 국제교류전
- 한국 구상회화의 위상전 (예술의전당)
-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작품 소장처 : 미래에셋증권, 우리은행 (대치중앙지점PB센터)

현재 : 한국미술협회, 강남미술협회 이사

문의 : 02-725-9444



Nature and Breath / 53.0×33.3cm / oil on canvas / 2011



Nature and Breath / 53.0×33.3cm / oil on canvas / 2011

잇단 발전소 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국내 최고(最古)의 원자력발전소와 국내 최대(最大)의 화력발전소가 최근 차례로 사고를 당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어서 간담이 서늘하다. 두 사고 모두 국가 기관의 안전 불감증과 응급대처 미숙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국민을 심히 불안케 한다.

고리 원전 1호기 정전 사고는 은폐 의혹마저 사고 있으며, 보령 화전 화재 역시 누장 보고로 비판받고 있다. 이 두 사례는 정부의 국가기반시설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고리 원전의 경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공포가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모골이 송연해진다.

고리 원전 1호기 사고는 2월9일 발생해 후유증이 현재진행형이다. 전력공급이 갑자기 끊기면서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원전은 예방점검을 마치고 3월4일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2대의 비상 디젤발전기 중 한대가 고장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13일부터 가동이 다시 중단됐다. 디젤발전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것은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노심 용해나 방사능 유출과 같은 대형 참사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비상발전기는 현재도 먹통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월16~23일까지 점검해 내린 '이상 없음' 판정의 진실성에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은폐 의혹 등 총체적인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다.

보령화력발전소도 대응이 안일하기는 피장파장이었다. 주무장관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고 사실을 TV 뉴스를 보고서야 뒤늦게 알았더니 정부를 믿고 살아온 국민의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넘

어 분노마저인다. 화재가 난 것은 3월15일 밤 11시 무렵이고, 완전히 진압된 것은 이튿날 오전 10시께 였으나 보령화전을 관할하는 한국중부발전은 화재 발생 3시간 뒤에야 화재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허위보고를 한 셈이다.

게다가 홍 장관이 상황의 전모를 파악한 게 화재 발생 후 약 9시간 후라니 벌어진 일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한밤중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중대 사고의 비상대처가 얼마나 안일한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현장의 누장 대처, 보고 체계 허술, 컨트롤타워의 무기력을 동시에 확인시켜줬다고 할 수 있다.

정권 말기여서 더 그런지 알 수 없으나 잇단 발전소 사고는 나사가 빠질 대로 빠진 국가적 응급비상 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대형 시설의 고장과 사고는 국민 불편에서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소홀히 넘길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히 다스려 재발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시설의 사전 점검과 매뉴얼 철저 준수는 물론 현장 보고와 상부 지시 등 사고 대처를 기민하고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교하게 마련하기 바란다.

특히 원전의 경우 조그만 허점으로도 가공할 사태가 온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07년에 설계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를 그대로 계속 가동해야 하는지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는 오는 11월 설계 수명을 다하는 경주 월성 1호기와도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자는 얘기다. 

임형두 논설위원 ido@yna.co.kr